제 5 장 정선군의 석탄산업 변천사

제1절 여명 태동기의 60년대
- 대형탄좌의 입성과 석탄의 메카

제2절 도약 성장기의 70년대
- 근대화의 중추적 연료공급 기지

제3절 성숙 폐광기의 80년대
- 최대 산탄지와 폐광의 암운

제4절 구조 전환기의 90년대
- 폐광 완료와 석탄메카의 변신

제5절 새천년의 비상
- 고원관광휴양도시로의 도전과 웅비

제1절 여명 태동기의 60년대_대형탄좌의 입성과 석탄의 메카

1. 1960년대 에너지수급

1960년대의 우리나라 에너지수급은 석탄이 주종을 이루는 석탄시대였다. 6.25 전란 중 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연탄이 등장하면서 석탄이 우리나라 주력 에너지로 자리잡는 시기이다.

이전까지 주종 에너지였던 신탄은 산업화과정에서 더 이상의 연료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더욱이 무분별한 산림 남획으로 산림 황폐화의 주된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에너지로서의 역할은 의미가 퇴색되어 갔다.

다. 1960년 당시에 우리나라 가정용 주종 에너지원은 무연탄으로 제조하는 연탄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무연탄은 196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11.8%에 달하여 경이적인 증가율을 이룩하여 왔다.

1962년도에 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 중에서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7%였으며 이후 무연탄 공급을 증가를 거듭하여 연탄파동이 나던 1966년에는 45.7%까지 높아졌다. 이후 정부는 연탄파동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하여 오던 주탄종유정책을 주유종탄정책으로 바꾸어 석탄공급은 급격히 낮아져 1969년에는 30.6%까지 떨어졌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공급 구조(천TOE)

	1인당 에너지소비(TOE)	총계 (천TOE)	석 탄			석 유				LNG	수 력	원자력	기 타
			합계	무연탄	유연탄	합계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1962	0.26	10,346	3,809	3,691	119	1,012	984	-	28	-	176	-	5,349
1963	0.31	10,932	4,473	4,385	88	1,129	1,100	-	28	-	182	-	5,148
1964	0.34	11,483	5,019	4,910	110	1,095	1,086	1	8	-	188	-	5,182
1965	0.36	12,012	5,238	5,161	77	1,455	1,437	2	16	-	178	-	5,142
1966	0.40	13,056	6,029	5,969	60	2,169	2,127	5	37	-	246	-	4,611
1967	0.37	13,944	5,577	5,539	38	3,735	3,551	9	175	-	238	-	4,394
1968	0.34	15,822	5,407	5,338	69	5,509	5,088	19	402	-	232	-	4,674
1969	0.35	17,593	5,445	5,384	61	7,436	6,822	37	577	-	357	-	4,355
62-65	10.4%	5.1%	11.2%	11.8%	-13.5%	12.9%	13.5%	-	-17.0%	-	0.4%	-	-1.3%
65-69	-0.7%	10.0%	1.0%	1.1%	-5.7%	50.4%	47.6%	-	145.1%	-	19.0%	-	-4.1%
62-69	3.9%	7.9%	5.2%	5.5%	-9.1%	33.0%	31.9%	-	54.1%	-	10.6%	-	-2.9%

자료: 에너지통계연보(각년도).에너지경제연구원.1인당 에너지소비는 1차에너지기준

당시에 석유는 고도 성장을 위한 공업화 추진전략으로 에너지원을 무연탄에서 석유로 대체해야한다는 시급성이 강조되면서 1962년에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고 같은해 9월에 미국 플루오사와 하루 3만5천배럴 규모의 정유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석유산업을 태동시켰다. 이후 석유 공급은 비약적인 증가율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우리나라 유일 부존에너지원인 석탄의 존재는 어느 에너지원보다도 중요한 시기였

우리나라 무연탄 생산은 196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가 명확히 대비되는 기간이다. 1960~1965년까지는 무연탄 생산량은 연평균 증가율로 매년 13.9%라는 경이적인 증가율을 지속하여 왔다. 동시에 무연탄 수요량은 동기간에 16.5%로 무연탄 생산 증가율을 무려 2.6% 포인트가 높는 것이다.

그러나 1966년 연탄파동은 무연탄 수요를 줄이는 결과로 작용하였으며 석탄업계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가 주탄종유정책에서 주유종탄정책을 선언한

1960년대 우리나라의 무연탄 수급구조(천톤)

	공급부문				수요부문		
	생산량	이월량	수입량	힙계	수요량	저탄량	합계
1960	5,350	-	-	5,350	4,823	653	5,476
1961	5,884	-	-	5,884	6,028	487	6,515
1962	7,444	935	-	8,379	7,216	1,163	8,379
1963	8,858	1,163	-	10,021	8,617	1,404	10,021
1964	9,622	1,404	-	11,026	9,428	1,598	11,026
1965	10,248	1,598	-	11,846	10,343	1,206	11,549
1966	11,613	1,206	-	12,819	11,769	1,051	12,820
1967	12,436	1,051	-	13,487	11,267	2,219	13,486
1968	10,242	2,219	-	12,461	10,567	1,892	12,459
1969	10,273	1,892	-	12,165	11,059	1,105	12,164
60-65	13.9%	-	-	17.2%	16.5%	13.1%	16.1%
65-69	0.1%	4.3%	-	0.7%	1.7%	-2.2%	1.3%
60-69	7.5%	-	-	9.6%	9.7%	6.0%	9.3%

자료: 석탄통계연보(각년도),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것이다. 이에 1967년도부터 무연탄 수요는 오히려 감소율 보이는 반면에 석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1967년도 무연탄 수요는 11,267천톤이었으며 동년도 의 무연탄 생산량 12,436천톤에 비하여 1,169천톤이 남아 돈 것이다. 이에따라 탄광업계는 불황을 맞이하였으며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저질탄 갱도는 휴광내지는 폐광을 하게 되었다. 동원탄좌는 석탄 생산량을 30%정도 줄여 34개 갱도 중에서 12개가 휴광하였으며 광부 1,300명 중에서 300여명을 감원하였다. 이에따라 1960년대 후반기에 무연탄 생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단지 0.1%에 그쳤다.

이는 196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매년 16.5%씩 증가일로에 있던 무연탄 수요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1.7% 증가에 그친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월되는 무연탄도 증가하였으며 1965~1969년 기간 동안 이월 증가율은 매년 4.3%에 달하여 생산 증가율과 수요 증가율을 능가하고 있었다.

1966년도 연탄파동을 계기로 석유공급은 1960년대 후반기에 연평균 증가율이 50.4%에 달하였다. 그야말로 기록적인 증가이다. 연탄파동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 무연탄이 사리진 것이 아니라 1973년도 제1차 국제석유 위기에 국내 무연탄은 다시 살아남는다. 다시 주탄종유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2. 석탄정책_대단위탄좌 설립과 석탄 증산 정책

정선군이 1960년대 초반에 국내 민영탄광의 메카로 부상하는 계기는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석탄개발임시조치법」(법률 제936호)에 따라 이루어진 대단위석탄 탄좌의 탄생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탄전은 대부분이 소단위의 광구로 세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로두인 지표근처에서 난굴에 그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석탄 자원의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석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세한 민영 광구의 효율적인 통합 개발을 촉진하

旌善地區에 大單位炭座

二次로設定、九百50萬톤生産目標

店頭去來合法

去來所側見解

정선군내 2단계 대단위탄좌 개설소식을 전하고 있다. 내용은 정선군에 회동탄좌, 나전탄좌, 구절탄좌가 들어선다는 보도이다.[1962년 6월 29일]

기 위하여 정부는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 936호로「석탄개발임시조치법」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의 정책적 의의는 증가 일로에 있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석탄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미개발 탄전의 영세 민영광구를 적정한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연간 생산량 30만톤 이상 규모의 대단위화에 의한 종합 개발을 합리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민

간에 의한 대단위 민영 탄좌회사를 설립하고 정부는 대단위 개발을 위한 산업철도 부설과 송변전 시설, 도로 및 개발 자금의 장기융자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정부지원을 통하여 석탄광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한 것이다.

1960년대 초반경 우리나라의 탄광업체 총수는 363개인데 이중에서 대기업체가 40개이다. 즉 대기업체가 11.5%를 차지하고 나머지 88.5%는 중소기업체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석탄층은 심한 지질변동을 받은 결과 한 장소에 대량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노다지광이 아니다. 탄층이 심하게 굴곡되어 있고 탄폭은 0.5m에서 2m까지 변하는 불규칙한 상태이며 경사가 평균 45°나 된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광구마다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자기 소유의 석탄을 채굴하여 내려가다 보면 결국 타인 소유의 광구로 들어가기가 일쑤이다. 또한 입지 조건상 타인 소유의 광구내에 갱도시설을 해야 할 때도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공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농후하며 그 결과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자체를 고도화, 현대화할 수가 없게 된다. 석탄 생산에 지장이 생기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원가가 상승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광업권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려고 할 때에는 귀중한 석탄자원이 사장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광구의 대단위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갔다.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서 「개발탄좌」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동법에서「개발탄좌」라 함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설정한 구역내의 석탄 광구의 집합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탄좌의 설정에서 상공부 장관은 석탄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형, 지질, 매장량과 채광, 운반 및 송전 조건을 고려하여 연간 30만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내의 광구의 집합체를 탄좌로 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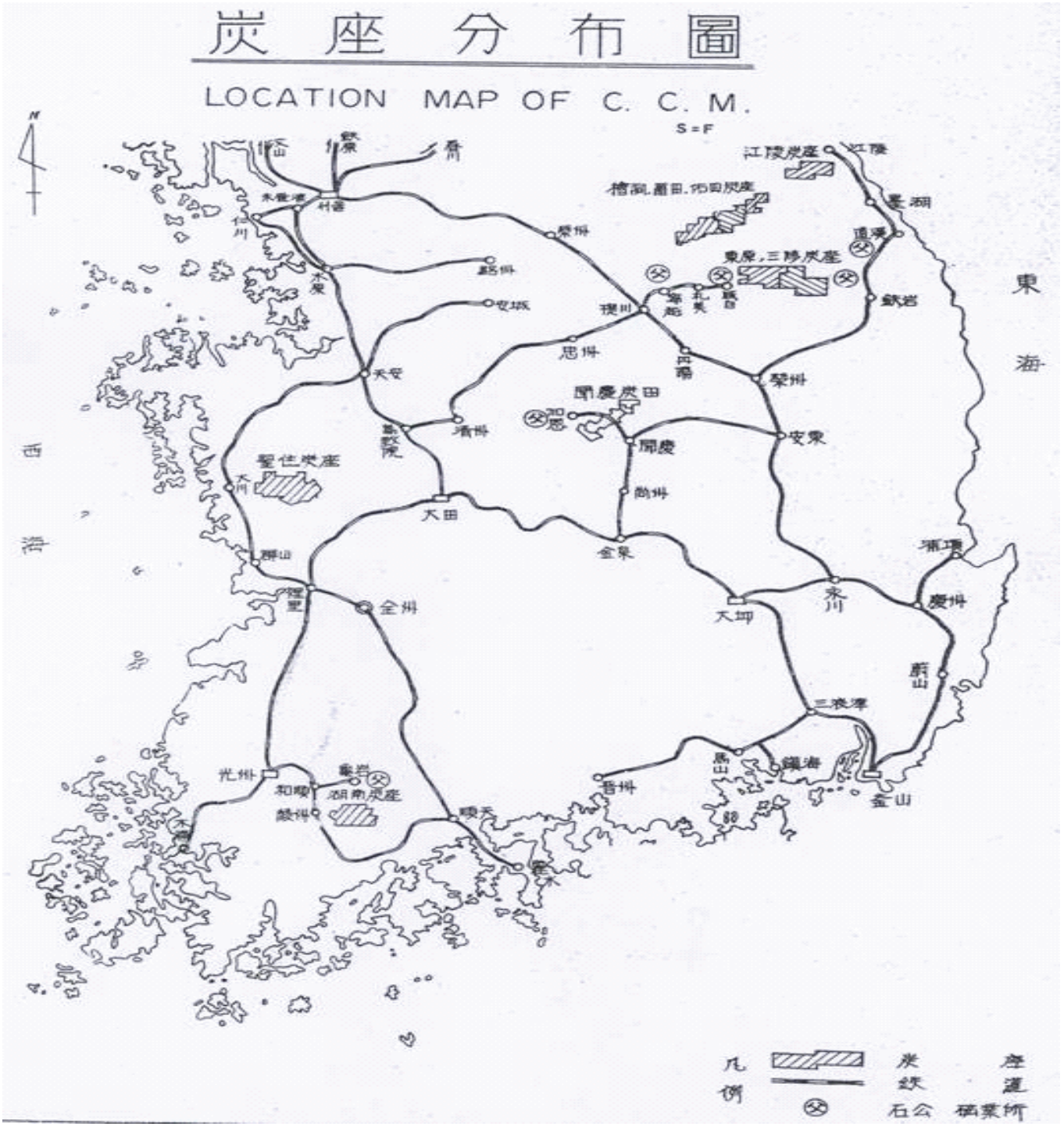
다만, 연간 30만톤의 석탄을 생산할 수 없는 지역에 있어서도 상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에 탄좌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동력자원부 장관은 이미 설정된 탄좌의 개발이 부진하여 탄좌를 재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과 투자촉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탄좌에 대하여는「연간 30만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는 광구를 단위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 이상의 탄좌로 분할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좌가 설정되어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회사가 설립되어야 하며, 만일 탄좌를 구성하는 광업권자가 정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거한 대단위민영탄좌 통합 현황

구 분	통합광구수	탄광수	비 고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한 광구통합 (탄좌설립)	110	8	동원탄좌(강원 정선)_삼척탄좌(강원 정선)_우전(구절)탄좌(강원 정선)_강릉탄좌(강원 명주)_문경(대성)탄좌(경북 문경)_호남탄좌(전남 화순)_동우탄좌_이양탄좌(전남 화순)
탄광간의 자율통합	369	32	■ 삼척탄전:장성, 도계, 함백, 한성, 강원, 경동, 어룡, 황지, 묵산 ■ 문경탄전:은선, 봉명, 성주, 남강 ■ 충남탄전:영보, 성주, 태화, 대창 ■ 정선탄전:영월, 나전, 회동, 정선, 평창 ■ 강릉탄전:강릉, 왕덕 ■ 단양탄전:마로, 단양 ■ 보은탄전:보은, 보발 ■ 호남탄전:화순, 대림
계	479	40	

자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광구통합종합보고서(1988)』



대단위 탄좌분포도. 1962년부터 정선군에는 동원탄좌, 삼척탄좌, 회동탄좌, 나전탄좌, 우전탄좌 등 9개의 대단위탄좌중에 5개탄좌가 들어선다

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이에 불응할 때에는 이 탄좌를 정부 및 대한석탄공사가 매수하게 할 수 있고, 만일 탄좌의 개발회사가 정해진 개발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5·16후인 1962년 12월 31일에 공포된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은 박정희 혁명정부가 아니고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초법적이고 강압적인 법이었던 것이다.

3. 정선군에 대단위 민영탄좌 입성으로 민영탄광 메카로 등장

가. 동원탄좌, 삼척탄좌, 우전탄좌, 회동탄좌, 나전탄좌 등 대단위 민영탄좌의 입성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의 공포에 따라 상공부는 대한석탄공사의 기술적인 지원을 얻어 전국의 각 탄전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동법에 규정한 자문기관인 석탄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개 탄좌를 설정, 공고되었고, 그 중 7개 탄좌회사가 설립 완료되었다.

한편 이같이 설정된 8개 탄좌 중에서 호남탄좌만은 광업권자 중 일부의 지분권 소송과 설립금 미납으로 회사설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1965년도 예산으로 재조사하여 최종 결정키로 되어 있어 앞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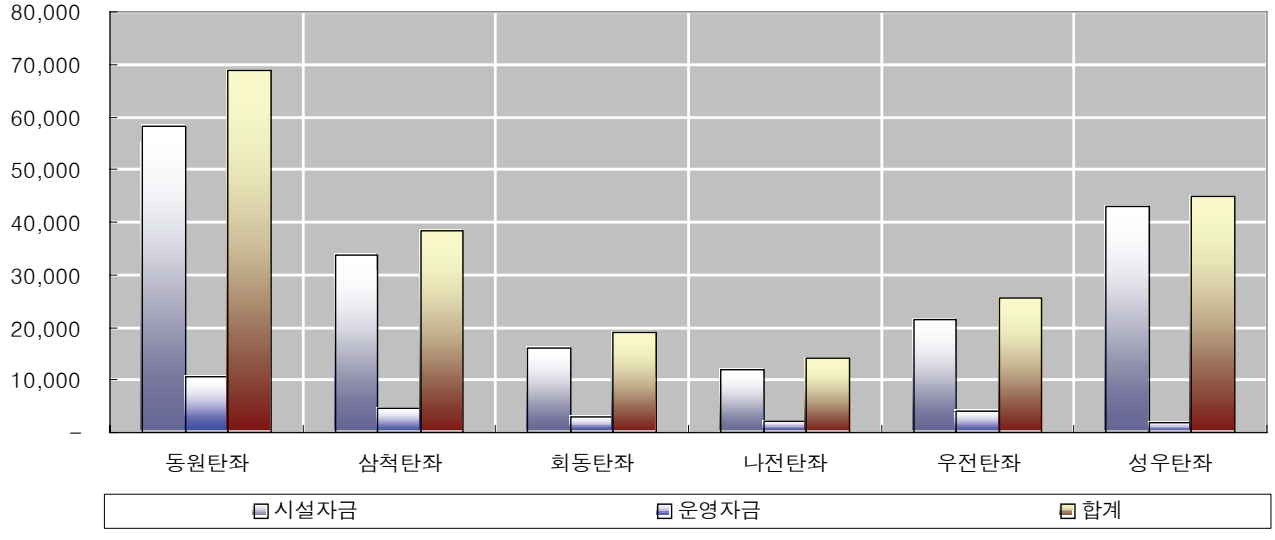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 등은「탄좌개발회사의 설립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업권을 박탈하여 국유화 조치를 한다.」라고 돼 있다. 국가시책에 순응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인 광업권을

9개 대단위민영탄좌의 구체 내역(1962-1965)

탄좌명	탄전명	광구수	총매장량 (천톤)	가능채탄량 (천톤)	탄좌설립일	회사창립일	최종년도 적정생산규모 (천톤)	자본금납입 (천원)
동원탄좌(강원 정선군)	삼척탄전	24	55,280	27,640	1962.2..24	1962. 9.24	1,500	110,000
삼척탄좌(강원 정선군)	삼척탄전	17	53,560	26,780	1962.2..24	1962.12.10	1,200	77,278
회동탄좌(강원 정선군)	정선탄전	24	38,060	19,030	1962.6.27	1962.12.10	1,000	30,000
나전탄좌(강원 정선군)	정선탄전	27	38,980	19,490	1962.6.27	1962.12.14	900	20,000
우전(구절)탄좌(강원 정선군)	정선탄전	10	28,100	14,050	1962.6.27	1962.12.10	600	34,000
호남탄좌(전남 화순군)	호남탄전	14	20,475	10,238	1962.9.28	-	-	51,000
성주탄좌(충남 보령군)	충남탄전	11	64,000	32,105	1963.1. 1	1963. 1.24	840	34,.000
강릉탄좌(강원 명주군)	강릉탄전	13	30,259	15,129	1964.3. 5	1964. 4.10	700	10,000
문경(대성)탄좌(경북 문경시)	강릉탄전	13			1965.3. 3	1965. 6. 1	400	80,000

주: 회동탄좌는 1966년, 나전탄좌와 성주탄좌는 1967년에 대한석탄공사가 매입
자료: 상공부.『상공백서』(1965),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광구통합종합보고서』(1988) 등 종합

정선군내 6개 탄좌에 대한 제1차 광업개발조성융자자금융자금 책정액(천원)



자율통합광구현황

통합연도	탄광명	기보유광구		통합광구		총광구	
		광구수	면적(ha)	광구수	면적(ha)	광구수	면적(ha)
1981-1983	경동탄광(강원 태백)	9	1751	5	890	2641	772
1982-1985	한보탄광(강원 태백)	-	-	8	1643	1643	240
1984	봉명탄광(경북 문경)	8	1258	23	3386	1644	382
계	3개 탄광	11	3009	36	5919	8928	1394

자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광구통합종합보고서』(1988) 등 종합

국가에서 몰수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법의 명칭이 임시조치법으로 됐는데 계엄령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동법에 의해서 설립된 탄좌개발회사에 대해서는 「설립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 영업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고 개발자금의 장기융자, 외국차관에 대한 보증, 전기와 철도 건설, 산업도로의 개발, 시추와 수탄(授炭)조사 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하겠다」는 장려책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1962년에 6개가 있다. 1962년에는 1, 2차로 나누어 6개 탄좌가 설립되었고(동원탄좌, 산척탄좌, 회동탄좌, 우전탄좌, 나전탄좌,호남탄좌)가 설립되었고 1963년에는 성주탄좌가, 1964년에는 강릉탄좌가 설립되기 이르렀다.

이후에 강제성을 띨 수가 없어 자율적으로 통합토록 한 결과 32개의 대단위 탄광이 탄생했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광구수는 약 479개에 이르렀다.

나. 대단위 민영탄좌에 대한 무보증의 개발자금 융자지원

정부는 대단위 민영탄좌의 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 자금을 장기로 융자하기 위하여 「광업개발조성법」(법률 제1089호, 1962년 6월 12일 공포)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단위 민영탄좌에 대한 광업권과 시설만을 담보로 장기 저리로 막대한 자금의 융자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대단위 민영탄좌에 대한 제1차 융자금은 1962년도분 석탄개발자금(재정자금) 259,900천원 중에서 동원탄좌, 삼척탄좌, 회동탄좌, 나전탄좌, 우전탄좌 및 성주탄좌 등 6개 대단위 민영탄좌에 총 210,803천원을 광업개발심의회(「광업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설치)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지불 보증하면서 방출되었다.

나아가 제1차 융자금에 의한 시설공사가 준공된 우전탄좌와 1964년도에 신규 설립된 강릉탄좌에 대하여는 3,700만원(강릉탄좌 2,000만원, 우전탄좌 1,700만원)이 1964년 8월 7일에 제5차 광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후 정부지

정선군내 6개 탄좌에 대한 광업개발조성융자자금융자 상황(천원)

	1차융자책정액(1962)			1차자금방출상황 (1964.10.30현재)		제2차융자상황(1964년도 추천)		
	시설자금	운영자금	계	방출액	잔액	시설자금	운영자금	계
동원탄좌(정선군 소재)	58,155	10,645	68,800	55,352	10,448	-	-	-
삼척탄좌(정선군 소재)	33,728	4,533	38,261	32,807	5,474	15,000	3,000	18,000
회동탄좌(정선군 소재)	16,026	2,927	18,953	11,348	1,605	-	-	-
나전탄좌(정선군 소재)	12,068	2,200	14,268	13,061	1,208	-	-	-
우전탄좌(정선군 소재)	21,557	3,963	25,520	25,476	-	15,000	2,000	17,000
성주탄좌(보령군 소재)	43,000	2,000	45,000	40,697	4,303	-	-	-
강릉탄좌(명주군 소재	-	-	-	-	-	18,000	2,000	20,000
	184,534	26,268	210,802	178,741	23,038	48,000	7,000	55,000

자료: 상공부. 『상공백서』(1965)

대단위민영탄좌에 대한 융자대출(천원)

	1962	1963	1964	1965	1966	계
시설자금	184,534	17,966	48,000	100,000	142,000	492,500
운전자금	27,900	-	7,000	-	-	34,900
계	212,434	17,966	55,000	100,000	142,000	527,400

자료: 한국석탄산업사.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1990

불보증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에 융자, 추천되었고 또한 제1차 융자금에 의하여 시설공사가 준공된 바 있는 삼척탄좌에 대하여는 1964년 11월 27일에 제8차 광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지불보증」을 조건으로 한국산업은행에 융자, 추천하였다.

또한, 상공부는 대단위 민영탄좌의 시설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 비추어 1964년 12월 21일에 제104차 경제각료회의의 의결을 얻어 정부 지불 보증없이 한국산업은행이 융자금을 1964년내에 방출되도록 지시하였다.

대단위민영탄좌에 대한 융자대출상황(천원)

	1962	1963	1964	1965	1966	계
시설자금	184,534	17,966	48,000	100,000	142,000	492,500
운전자금	27,900	-	7,000	-	-	34,900
계	212,434	17,966	55,000	100,000	142,000	527,400

자료: 한국석탄산업사.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1990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의 대단위 탄좌 중에서 대부분은 정선군에 위치하였고 이를 계기로 정선군은 전국 최대의 민영 산탄지로 자리를 잡는다.

1960년대 설립된 9개의 대단위 탄좌 중에서도 최대 민영탄좌인 동원탄좌와 삼척탄좌가 각각 현재의 사북읍과 고한읍에, 회동탄좌는 정선읍 회동리에, 나전탄좌(북면 북평2리), 우전탄좌는 북면 구절리등에 무려 5개 탄좌가 정선군에 골고루 흩어져 채탄을 개시하였다.

4. 정선군내 대단위 민영탄좌 및 국영탄광 현황

가. 동원탄좌_사북광업소(정선군 사북읍)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따라 정선군 사북읍에 자리잡은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는 1962년 4월에 개광하여 2004년 11월 폐광에 이르기까지 약 40여년에 이르는 동안 국내 최대의 민영 탄광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교통여건은 중앙선의 제천역에서 분기되는 태백선이 본 광업소 중심지인 사북을 통과하고 있어 석탄 수송에 매우 유리한 여건에 있다. 사북읍은 해발 700미터 이상의 경지가 전혀 없는 산간지역이었다. 그러나 무연탄 개발이 시작되면서 민가가 생겨났으며, 이후 탄전개발이 촉진되면서 사북읍은 하나의 도시를 이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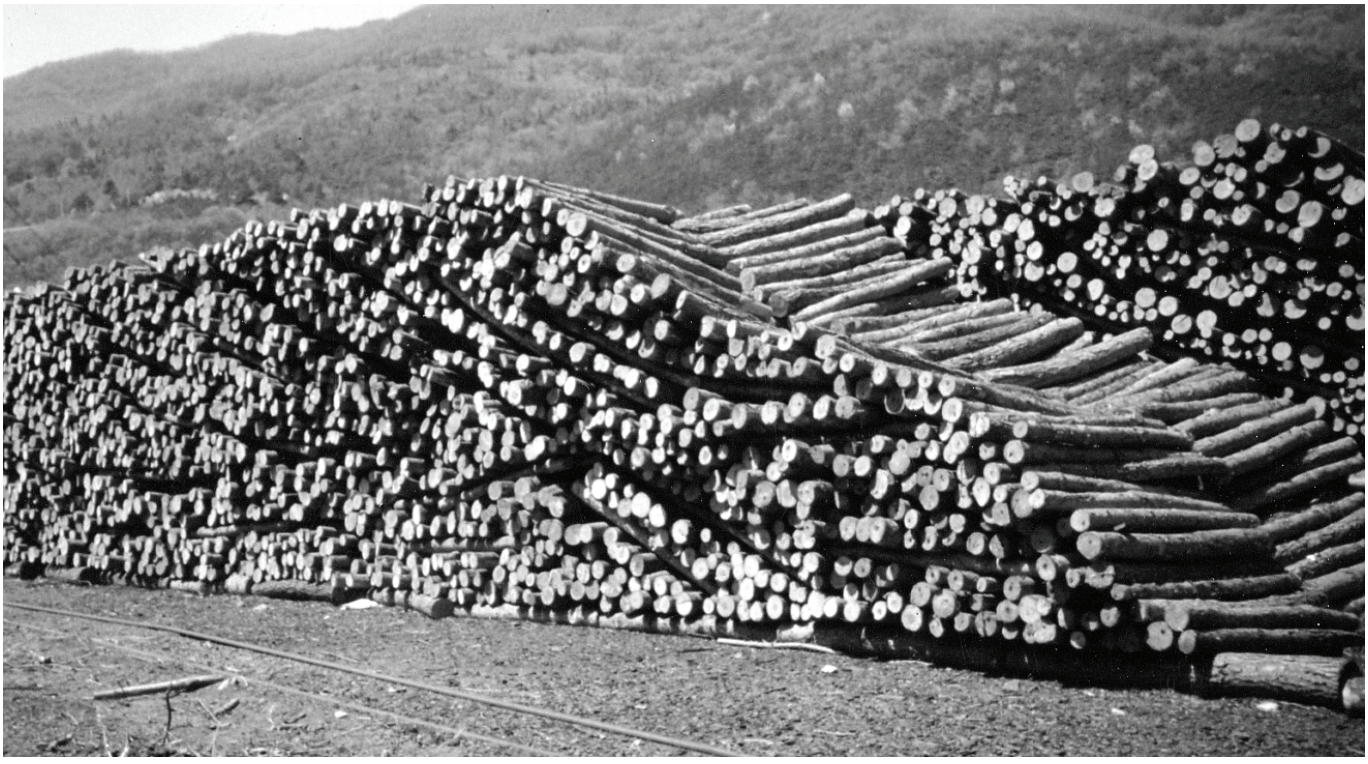
동원탄좌는 1,200만평(3,606ha)의 광활한 광구에 총 24개 광구를 보유하고 예상매장량은 약 5,400만톤에 달한다. 초창기에는 종업원 600여명으로 생산량이 155천톤(1963년)에 불과하였으나 국민연료 생산이라는 책임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기계화된 막장채탄방식으로 혁신하였고 수동운반방식에서 전장 5,600m의 벨트콘 베어 시스템 및 수갱시설로 기계화를 이룩한 광산이다.

동원탄좌는 삼척탄전의 서반부를 점하는 삼척탄전서부에 위치하여 동측에 삼척탄좌, 서측에 석탄공사 함백광업소와 접하고 있다. 개발중심지는 강원도 정선군 동면 사북리이며, 동지점은 동으로 22km거리에 황지리가 있고 서쪽으로는 6km거리에 무능리가 있다.

동원탄좌는 당초에는 원동탄광으로 덕대제하에 채탄을 계속하여 오던 중 1962년 4월 24일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거 원동탄광은 원동탄좌로 설정되어 1962년 9월 24일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 그후 광업권자가 바뀌어서 동원탄좌로 변경되어 새로운 광권자에 의해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동원탄좌는 정부조성책으로 1962년 12월 6일 68,800천원의 융자추천을 받았으나, 광업권상의 제1신저당권 말소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자금방출이 지연되었다가 이후 해결되어 1964년 2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4차에 걸쳐 58,350천원의 융자를 받아 개발을 하였다.

동력 시설로는 사북리에 3,000KVA(66KV/6.6KV)변전시설이 완료되었고 철도공사는 정선일대의 석탄 증산과 수송을 위하여 정선지선인 무릉-고한선을 1965년에 완공시켰다.



쌓여있는 갱목

나.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정선군 고한읍)

삼척탄좌의 정암광업소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15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원탄좌의 사북광업소와 인접하면서 민영탄광으로서 쌍벽을 이루고 있다. 교통여건은 철도가 서울에서 제천을 경유하여 고한까지 이어지며 도로도 제천에서 이어져 석탄수송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사북의 동원탄좌와 함께 국내 최대의 굴지의 민영탄광이다. 삼척탄좌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설정된 본 탄좌의 설정 경위는 1962년 4월 24일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탄좌회사 설립, 공고가 되었다. 1962년 12월 10일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었고, 이로서 1963년 3월 27일 현장 작업에 착수하여 채탄준비 작업에 들어가 1964년 1월에는 채탄을 시작하였다.

본 탄좌내에 가행되고 있는 일부 탄광은 지상탄에 대한 계속 작업을 승인하는 조건하에 탄좌가 설정되었다. 즉, 동고탄광은 매회 700ML이상, 풍개탄광은 800ML이상, 정암탄광은 780ML이상이 계속작업 승인구역이었다.

본 탄좌는 정부의 조성책으로 1962년 12월31일 제1차로 시설자금 33,728천원과 운영자금 4,533천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계획대로 시공되어 제2차로 시설자금 42,500천원의 추천을 받았으나 정부예산 18,000천원을 부속 융자받게 되었다.

삼탄탄좌 정암광업소는 1964년 개광 당시에는 연간 생산량이 8만여톤에 머물렀으나 이후 1986년도 최대 160만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동양 굴지의 탄광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1981년 현대화된 수직갱시설을 완공하여 이 때를 기점으로 채탄 기계화 시설을 확대하면서 생산능률의 극대화를 추진하였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3,691ha나 되는 광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총광구수는 17개였다. 이중 실질적으로 가행되는 광구수는 4개였다. 그리고 가행하지 않는 광구 중 차후에라도 가행 가능한 것이 6개 그리고 아예 가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7개였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개광 이후 지속적으로 시설현대화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의 주요시설로는 제1수갱과 제2수갱, 폐수 정화시설, 정화댐을 갖추고 있었다. 제1수갱은 내경 6m에 심도 585m의 크기로 설계된 곳으로서, 일 5000톤 그리고 연간 15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갱이었다. 제1수갱에서는 주로 석탄, 경성 및 자재의 운반을 하였으며, 작업인부의 입갱과 퇴갱, 그리고 각종 기계의 출입구로 사용되어졌다. 제2수갱은 내경 5m에 심도 542m로서, 이곳에는 분당 5000㎥의 면적을 600Hp의 풍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은 주로 장물운반 및 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폐수 정화시설은 물리·화학처리장으로서 제1·2처리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총 하루에 21680㎥의 폐수를 처리하였으며, 제1처리장에서 일일 9680㎥를 그리고 제2처리장에서 일일 12000㎥의 폐수를 처리하였다. 주로 갱내 폐수의 정화에 이용되었는데, 평소에는 하루 15000㎥의 분량을, 그리고 우기에는 하루 25000㎥의 분량의 폐수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근처에는 인접 폐·탄광 갱내수 입량 조절을 위한 540000㎥ 담수능력을 보유한 조절댐이 북부와 동부에 각 2개소씩 위치하여 있다.

다. 우전탄좌(정선군 북면 구절리)

우전탄좌는 196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14개 광구에 1,802ha의 규모로 정선선의 종착역인 구절역을 광구내에 두고 있다. 광구의 배수수준은 개발 중심지인 남부에서는 440ML이며 북부에서는 460ML이다. 본 탄광의 생산구역은 가무지구, 다락지구, 오장지구 및 노추지구의 4개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출하역은 구절역으로 서울까지 철도운송거리로 270.5km이다.

초창기 개발기의 삼척탄좌 전경

우전탄좌는 대부분의 갱에서 수평지층갱도를 레벨운반갱도 즉, 탐탄 갱도로 사용하였으며 탄탐층을 올려 케이빙하는 탐탄방식을 취한다. 다락지구의 본사갱과 본갱 등과 같이 일부갱에서는 탄층과 10~30m 임시 하단측에 암석운반갱도를 두어 30m~50m 간격의 교차갱도로 착암 후 수평지층 갱도를 굴착 탄승 탐탄하였다. 갱내 레벨1과 굴진 막장의 갱석 적재에 있어서는 축전차 및 적재 기계가 없으며 인력에 의한 작업을 하였으나 1980년대 정부의 탐탄 기계화자금을 지원받아 축전차 1대와 로카쇼벨 2대를 도입하였다.

각 갱의 생산탄은 모두 자동차에 의하여 구절역으로 운반되었으며 역두 저탄장에서 철로운반에 상차전 수반 벨트 켄베이어(Belt Conveyor)를 거쳐 최종 운탄되었다.

우전탄좌는 66KV 임계 송전선로로 공급되는 전력을 한국전력 우전변전소의 3상 3000KVA 3대의 22.9KV변전설비를 거쳐 수전되었으며, 본 우전변전설비는 그밖에 여량, 나전, 정선지역까지 배전하였다.

우전탄좌는 중앙 사갱을 주된 적출 갱으로 하여 생산탄을 역두로 운반할 경우 갱구로부터 역구내 저탄장까지의 자동차 운송을 지양하고 출하작업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930m의 철도선 신설과 이에 따른 350m의 철도 이설공사를 포함하는 총 예산규모 110백만원의 출하시설을 추진하였고 충분한 양의 갱내 석탄 생산기반이 확립될 경우에 이에 대한 운반계통의 근대적 체계화 달성에 노력하였다.

우전탄좌의 주요 수준에서의 탄층부존 현황

수준별	탄층연장	1개 100ML당 매장량
400ML	16.5km	4,198 천톤
300ML	11.0km	4,117 천톤
200ML	8.3km	3,062 천톤
평균	11.9km	3,786 천톤/ 100ML

라. 나전탄좌(정선군 북면 북평2리)

나전탄좌는 1962년도에 탄좌로 설립된 바 있는 광구를 1967년도에 대한석탄공사가 매수 개발하여 온 탄광으로서 27개 광구에 4,839ha의 규모이다.

나전탄광의 생산구역은 광구의 동북부로부터 서남부 방향으로 궁대지구, 옥갑지구, 가평지구, 북평 지구의 4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서남단의 장평지구는 현재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지역으로서 본 탄광의 전체 생산량에 대한 각 지구별 생산비중 현황은 구애지구 45%, 옥갑지구 43%, 가평지구 3%, 북평지구 9%이다.

궁대지구는 직영으로 생산되는 궁대갱과 사외도급으로 생산하는 궁대 1갱의 2개 갱에서 생산하였다. 궁대갱은 427ML수평갱 내에서 굴하된 150HP 권양기 사갱을 통하여 1981년도까지 2편(370ML), 3편(340ML), 5편(295ML)의 3개 레벨1에서 생산하였다.

수평운반은 0편(427ML)과 2편, 3편에 각기 1대씩 배치된 5톤 축전차에 의하였다. 궁대 1갱은 487ML수평갱 내에서 굴하된 75HP 권양기 사갱을 통하여 2편(448ML)에서 생산하였으며 수평운반은 인력에 의존하였다. 궁대갱외의 100HP 6대의 압착기시설은 궁대지구와 옥갑지구 공용으로 사용되었다.

옥갑지구는 666ML(상0편)의 옥갑1갱과 608ML(0편)의 옥갑갱의 2개 수평갱이 있었으며, 옥갑1갱(666ML)내의 150HP 권장기 사갱이 전기 옥갑갱(608ML)과 기(其)하부 각 생산 Level을 상·하 연결하는 갱도 골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반 수평운반갱으로 개갱된 옥갑갱(608ML)은 갱내 사갱으로서 본 옥갑지구 생산탄의 적출갱이 되며 비 갱외는 본 지역의 시설 집약지이다.

본 탄광 각지구의 생산탄은 갱외저탄(貯炭) Hopper에서 Grizzly분급과 수선을 거쳐 자동차편에 나전역으로 출하되었으며, 궁대 생산탄은 때에 따라 동지역 최근역인 여량역으로도 출하된다.

본 탄광의 심탄방식은 하반암석 갱도를 탄층으로부터 수평거리 약 15m 위치에 굴착하고 간극 30m의 Cross갱도로써, 착탄시킨 후 착암지점에서 위경사탄승(僞傾斜炭昇)을 올려 상부로부터 하부로 Caving 심탄하는 방식을 일반적으

로 취하였다. 그러나 탄층이 협소하거나 불균일하고 개발연장이 제한된 곳에서는 수평갱도를 탐탄 겸 채탄갱도로서 굴착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하반암석 갱도를 두지 않고 지층갱도에서 바로 30m 간극으로 위경사탄승을 올려 Caving 채탄하는 방식을 취한다.

마.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정선군 신동읍)

대한석탄공사 직영인 함백광업소의 소재지는 정선군 신동읍이다. 동지역은 일제시대 삼척탄전 조사시 석탄부존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지형이 험하여 개발에 착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광복이 되었다.

그러다 북한으로부터의 송전 중단으로 전력난이 심화되고 영월의 석탄생산 부진으로 영월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이 차질을 빚자 정부는 발전용 탄의 안정공급을 위해 [함백개발계획][당시 상공부 석탄과 기사로 근무한 이상규(1970년 12대 총재 역임)가 작성]을 수립하고 1948년 11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였다.

초기에는 인근에 있던 조선아연광업회사(일제 때부터 존재하던 회사로 광복 이후 정부직영으로 운영)에서 개발을 담당하였다. 1949년 미국 경제고문단에 의해 매장량이 2억톤에 달하고 탄질 역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투자와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 초까지 함백광업소는 UNKRA 지원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등 대규모 투자가 시행되었으나, 실제 석탄 부존상황이 당초 미국경제고문단의 조사 내용과 달라 개발이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초기의 막대한 투자와 고속 굴진에 힘입어 1963년에 40만톤 규모로 성장하였고, 1970년대에는 60만톤 규모로 발전하였으나 탄층이 빈약하고 생산원가가 높아 1993년에 폐광되기에 이르렀다.

1955년 7월부터 추진된 5개년 석탄증산계획과 UNKRA 자금에 의한 함백 탄전개발계획, 1957년 3월의 함백선 개통 등에 힘입어 1957년에는 18만톤, 1963년 42만여톤으로 고속 성장하였다. 이후 계속적인 개발구역 확장과 설비투자 확대로 1976년에 77만천톤을 생산하여 역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1957년 6월 2일 대한석탄공사의 함백광업소 현판식 광경

바. 주요 중소탄광 업체

1) 경일탄광

정선군 고한읍에 위치한다. 1956년 5월 16일에 정명선의 명으로 광업권을 설정하여 등록하였고 1971년 7월 6일에는 당목광업소 신경록과 조광권 체결 개발로 본격적인 양산제에 돌입하였다.

1976년 11월 13일에 신경록 명의로 광업권 이전 등록과 동시 경일탄광으로 명의 변경하였다. 경일탄광의 갱구수는 4개이며 광구면적은 266ha에 달한다. 매장량은 3,513천톤, 가채매장량은 1,500천톤이다. 평균탄질은 5,860Kcal/Kg이다.

단일 광구의 중소업체이나 매장량이 풍부하여 양질의 탄을 계속적으로 채탄할 수 있다. 고한역까지 약1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운탄거리가 가까우며 고한시내와 인접하여 종업원들의 출퇴근 및 생활환경들이 입지조건이 타 인근 광업소보다 뛰어나다. 작업장을 집약하여 사갱 1개소에서 탄층연장 1500m를 전부 채굴하며, 주요 작업심도는 하천 700ML에서 300m 하부인 400ML 사갱이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신설한 경석 처리장이 타 광업

소보다 시설면이나 위치선정 및 영구적인 공해방지 등이 월등히 잘 되어 있다.

2) 묵산탄광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다. 1960년 3월 5일에 사업 인가를 받았으며 1965년 1 월 25일에 광업개발에 착수하였다. 1967년 12월 1일에 일시 개발을 중지하였으나, 1970년 5월 10일에 재개발에 착수하였다.

묵산탄광은 삼척탄전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함백향사의 북익부에 해당하며, 광구 북부로부터 조선계의 대석회암통과 평안계의 홍점통, 사동통 및 고방산통에 해당하는 함백 산층과 고한층의 지층으로 구분되며, 평균 50°의 경사로 남경하고 있는 지질구조이다.

본 탄광의 소유광구는 강원도 정선군 남면 척산에서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범바위에 이르는 탄층, 총연장 약 7km~8km에 해당하는 12개 광구로서 이구역 내의 탐탄 작업은 종전 광업진흥공사에서 무릉지구와 사북 및 발전지구 등 10여개소 이상에서 매장량이 확인되었다.

3) 세원탄광(구 동고탄광)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하며 태백선 고한역에서 4km 거리에 있다. 세원탄광의 하부는 삼척탄좌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광구 경계 심도까지 이미 채굴이 완료되어 사실상 하부개발은 끝났으나, 상부잔탄(上部殘炭)과 개발하지 않은 새로운 탄층을 발견하여 채굴하고 있다.

광구내에 부존하는 지층은 조선계 대석회암통, 청안계 홍점통·사동통 및 고방산통에 대비되는 함백산층과 고한층 등의 순으로 동서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지표에서 지층이 역전되어 북으로 70~80° 정도 기울어져 있다.

탄층은 사동통 내에 2~3배가 부존되어 있으나 주 가행탄층은 중층탄 1장으로 동부와 서부구역에서 집중 개발되고 있다. 부광대에서는 탄폭이 7~8 m 정도나 되지만 평균 약 3m이고 확인매장량은 100만톤이며 가채매장량은 70만톤 정도이다.

5. 석탄수송을 위한 산업철도의 부설

우리나라의 무연탄은 주로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태백산 지구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었다. 추정매장량은 삼척탄전이 2억톤, 함백탄전이 3억톤, 강릉탄전이 8,700톤이었다. 철도당국은 이미 이들 탄전을 개발하기 위해 영암선, 함백선, 황지본선, 황지지선 및 동해북부선을 건설한 바 있다. 이들 철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동서횡단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탄전보다 더 깊숙한 오지에 있는 정선탄전은 6억8,300만톤의 매장량을 과시하고 있었다. 정선탄전은 원동, 삼척, 화동, 나전, 구절 등의 대단위 탄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개 예미북방 70km 근방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연간 200만톤의 석탄은 국가 기간산업의 건설에 필요한 자원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벌채되는 목재 등의 임산자원도 중요한 화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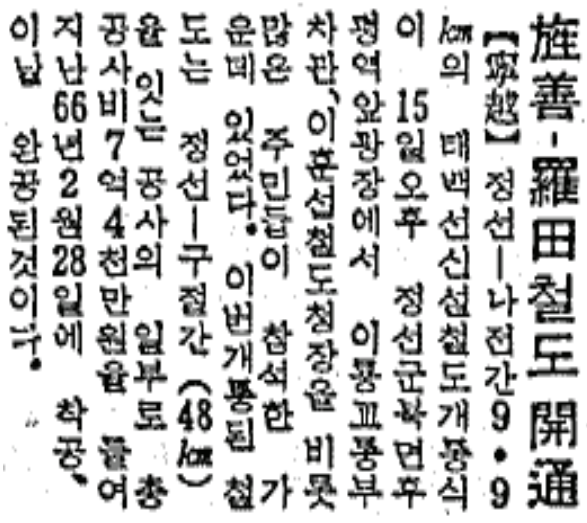
이에 정부는 정선선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정선선 본선을 당초 예미~정선간 42km를 1962년에 착공하여 1964년에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도에서 그 중요성 때문에 수정 보완되어 증산~고한 12km, 정선~회동 15km, 정선~구절리 24km가 추가되었다. 이에 총 93km의 철도를 1968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962년 5월 10일에 착공된 예미~정선간 42km의 건설에 투자되는 총액은 외자 202만7천달러를 포함하여 28억6천6백만원이었다.

정부는 대단위 민영탄좌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는 석탄개발 임시조치법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좌개발에 필요한 ① 철도시설, ② 도로, ③ 송전시설, ④ 시추 및 채탄, ⑤ 개발자금의 장기융자, ⑥ 기술 및 경영의 지도, ⑦ 탄광시설을 위한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에 대한 정부보증, ⑧ 탄좌회사 설립안 5개년 각종 공과금의 면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정부가 개발탄좌 설립안(1962년~1965년)과 관련하여 투자한 시설의 총자금은 다음과 같다.

산 업 철 도	2,194,118,000원
산 업 도 로	149,442,000원
송 변 전 시 설	28,651,000원
계	2,372,211,000원



旌善-羅田철도 開通

【旌越】 정선-나전간 9·9㎞의 태백선신설철도개통식이 15일오후 정선군북면후평역앞광장에서 이풍교통부차관,이훈섭철도청장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번개통된 철도는 정선-구절간(48㎞)인데 공사의 일부로 총공사비 7억4천만원을 들여 지난66년2월28일에 착공, 이날 완공된것이다.

1969년 10월 15일에 정선-나전간 철도노선이 개통되었으며 이는 정선-구절간(48km)간 정선선중 일부구간이다

정선지역의 수송시설은 무연탄의 원활한 수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도부문에 있어서 무연탄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1957년 태백선의 분지선인 신동읍 예미역이 개통되었으며, 1966년에는 예미~고한간 철로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1962년 5월 정선선 철도 개설사업이 착공되었는데 이 사업의 총연장은 42㎞이며, 총공사비 7억8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해발 500~850m의 험준한 산악지대이고 또한 구비가 심하여 31개소의 터널과 20여개의 교량이 건설되는 난공사였다. 이 철로 개설사업은 1967년 1월 20일 완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국 석탄매장량의 56%를 차지하는 지하자원의 개발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66년부터는 정선 나전탄전의 무연탄 수송의 원활을 위하여 정선~구절리 간 24㎞의 철도 개설사업이 3년 계획으로 착공되었는데, 1969년 10월 15일 나전역 개통, 1971년 5월 21일 여량역이 개통되었고 마지막으로는 1974년 12월 20일 정선 구절역을 종점으로 여량~구절 간이 개통되었다.

따라서 구절역을 시점으로 정선 증산역을 경유하여 충북 제천역에 접속되어 중안선과 연결되었으며, 증산역에서 사북 고한을 거쳐 태백선과 접속함으로 인해 영동선과도 연결되었다.

정선군을 중심으로 한 석탄수송산업 철도망

이 같이 당시 무연탄은 군수용 및 관수용, 교통용 및 발전용, 그리고 산업용을 비롯한 민수용과 수출용 등 전체 모든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 이를 위하여 원활한 수송 및 해상수송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중에도 철도수송은 절대적인 것이다.

1964년도 무연탄 수송실적을 노선별로 보면

영 암 선	2,441,704 톤
삼 척 선	1,292,525 톤
함 백 선	979,449 톤
문 경 선	865,906 톤
화 순 선	696,235 톤
황 지 선	1,611,268 톤
동해비부선	421,236 톤
장 항 선	133,966 톤
기 타 선	174,498 톤
계	8,846,234 톤

이 중에서 대한석탄공사 무연탄이 4,409,641톤, 민영탄 4,454,595톤을 수송하였다.

6. 정선군의 산업도로 및 송변소 건설

정부의 석탄수송을 위한 산업도로건설은 탄좌개발 중심지에서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① 동원탄좌, 산척탄좌에 관련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와 확장을 제외하고는 전공사가 이미 완료되고 ② 나전탄좌 관련 시설도 1964년도에 완료되었고 ③ 우전탄좌 관련 시설들은 1965년에 송천교앞까지 완료하였고, ④ 회동탄좌 관련 시설들은 교량 2개 중 1개는 1964년도에 1개는 1965년도에 완공되었다.

한편, 송변소 건설도 예정대로 진척되어 삼척탄좌, 동원탄좌, 성주탄좌에 대한 송변소 건설은 1963년도에 이미 완공하였고 회동탄좌, 동원탄좌, 우전탄좌, 강릉탄좌의 송변소 건설은 1965년도에 완료하였다.

정선군의 송변전 시설 건설 추진

공사명	규격	금액(천원)	준공일	관련탄좌
고한송전선	66 KV	5.500	62.12.15	동원탄좌,삼척탄좌
사북변전소	66 KV/3.3-6.6 KV	13,200	63.10.1	동원탄좌,삼척탄좌

자료: 상공부, 상공백서

정선군의 무연탄수송 산업용 도로 건설

계획		관련탄좌	비고
공사명	거리(km)		
예미-정선 도로	23	동원탄좌 삼척탄좌 정선탄좌	부분적 보수및 확장외이외는 전공사 완료
삼거리-고한리 도로	15	동원탄좌 삼척탄좌	부분적 보수및 확장외이외는 전공사 완료
예미-화,도로	20	동원탄좌 삼척탄좌	62년도에 공사완료
용....탄-회동 도로	9	화동탄좌	교량 2개소 65년도 완공계획
야미-구절리 도로	7	나전탄좌	64년도 완공
여량-구절리	9	우전탄좌	64년도 및 65년도 송천교앞까지 완공계획
고한리-별어곡 도로	17	동원탄좌 삼척탄좌	부분적 보수및 확장외이외는 전공사 완료
화0000 - 백운산 도로	5	동원탄좌 삼척탄좌	64년도에 완공

자료: 상공부, 상공백서

7. 정선군 대단위 민영탄좌의 의욕적인 증산과 전국 점유율 비약 상승

정부는 무연탄 수요가 매년 높게 증가하는 가운데 대한석탄공사 직영의 탄광들이 점진적으로 심부채탄화됨에 따라 대한석공 직영의 석탄생산이 1966년 이후부터 감소될 것에 대비하여 대단위 민영탄좌들에게 최대한의 생산 독려를 계획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대단위 민영탄좌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컸던 것이다. 1964년도의 탄좌들의 생산실적과 1965년 생산계획 간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데에서도 알 수 있다. 1964년 대단위 민영탄좌들의 총생산량은 415천톤에 불과하였는데, 1965년 계획치는 645천톤으로 1년후에 무려 58%를 증산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무연탄은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절대 절명한 [산업의 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선군에 위치한 4개 대단위 민영탄좌(동원탄좌, 삼척탄좌, 우전탄좌, 나전탄좌)들의 생산량은 가히 절대적인 것으로 초기부터 정선군이 대단위 민영탄좌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1964년에 정선군 4개 대단위 민영탄좌들의 생산량은 모두 324천톤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전체 대단위 탄좌들의 생산량중 78%(324천톤)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또한, 1965년 계획된 생산량 중에서도 정선군 4대 대단위 민영탄좌들의 점유율이 78%(505천톤)에 달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단위 민영탄좌들은 연차적인 증산을 거쳐 1973년도에는 7,240천톤을 생산 계획하에 정부의 모든 조성

대단위 민영탄좌들의 생산량과 생산계획/(단위:톤)

탄좌명	1964(실적치)	1965(계획치)	증가율
동원(정선군)	233,148	350,000	150%
삼척(정선군)	85,860	150,000	175%
우전(정선군)	4,571	5,000	109%
나전(정선군)	-	-	
회동(정선군)	-	-	
성주탄좌	9,1164	130,000	143%
강릉창좌	-	10,000	-
계	414,743	645,000	156%

자료: 상공부(,1965)

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대단위 민영탄좌의 석탄개발이 향후 석탄개발 정책의 일대 목표가 될 것이며, 대단위 민영탄좌 개발이 계획대로 진척되는냐에 따라 앞으로의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하겠다.

한편, 정선군내 대단위 민영탄좌들의 높은 생산량과 국영탄광인 함백광업소와 나전광업소, 그리고 중소규모의 탄광들도 증산에 가세하여 정선군의 석탄생산은 전국 시·군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생산 점유율을 높혀 나갔다.

1960년에 전국의 석탄생산량은 5,352천톤이었고, 이 중에서 강원도의 생산량은 4,534천톤으로 이미 강원도는 전국 석탄생산량 중 점유율이 87%에 달하여 탄도로의 굳건한 위치를 다져 나갔다.

이 중에서 정선군은 472천톤을 생산하여 전국대비 8.8%, 강원도 대비 10.4%에 달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후 정선군의 대단위 민영탄좌들이 시설투자를 확충하는 가운데, 생산량이 미진하게 증가하여 전국과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설투자를 완료한 대단위 탄좌들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는 1965년부터 높은 생상을 기록하면서 전국대비 비중을 높혀 나갔다. 1967년에는 정선군이 1,219천톤으로 연간 1,000만톤을 능가하는 매우 의미있는 해로 당시 전국 석탄생산량 12,436천톤 대비 비중이 9.8%로 상승하였고 강원도 생산량 9,592천톤 대비 12.7%로 점전적으로 증가하여 갔다.

특히, 1960년대를 마무리하는 1969년에는 정선군의 석탄생산량이 1,618천톤으로 전년도대비 424천톤을 추가로 생산하여 단 1년만에 36%가 증가하는 기록을 세운다. 이에 따라 전국대비 15.8%로 증가하고, 강원도대비는 21.6%을 점유하여 정선군이 명실상부한 석탄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었다.

물론, 1960~1970년대까지 삼척군이 강원도 전체 생산량의 60~80%를 차지하는 최대의 석탄산지였음에는 분명하나 삼척군이 태백시로 분리되면서 1981년부터 정선군이 석탄생산량이 전국과 강원도에서 최대의 석탄군으로 부상을 한 것이다.

1960년대 정선군 석탄생산과 전국 및 강원도 생산 대비 비중

	전국생산량 (천톤)	강원도 생산량 (천톤)	정선군 생산량 (천톤)	정선군/ 강원도 (%)	정선군/ 전국 (%)
1960	5,352	4,534	472	10.4%	8.8%
1961	5,884	4,862	424	8.7%	7.2%
1962	7,444	5,768	522	9.1%	7.0%
1963	8,844	6,646	424	6.4%	4.8%
1964	9,615	7,455	436	5.8%	4.5%
1965	10,248	7,900	819	10.4%	8.0%
1966	11,613	8,735	988	11.3%	8.5%
1967	12,436	9,592	1,219	12.7%	9.8%
1968	10,242	8,012	1,194	14.9%	11.7%
1969	10,273	7,494	1,618	21.6%	15.8%

함백탄광 개발과 공업권

당초 정부계획은 총64개 광구(삼척탄좌, 동원탄좌 등 장성에 인접하기까지의 모든 광구를 포함)를 대한석탄공사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는 1952년과 1955년에 하달된 "대통령 비서실 공문"으로 확인되며, 1955년 상공부의 함백개발에 관한 보고서류에도 함백의 광구는 64개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실수(?)로 차질이 발생했다. 개발에 착수하면서 공사가 확보한 광구는 33개에 불과하고 그 중 21개 광구는 광업권자인 정명선씨로부터 "민영 개발시 무상으로 이양한다"는 조건부로 무상양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함백광구가 1949년 9월 '지정보류'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개인의 광구출원을 허용, 공산가 출원하기 전 선출원자가 있는 데서 발생하였다.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상공부는 출원신청자가 없는 12개 광구는 1955년 12월 23일자로 공사 명의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선출원자인 정명선씨로부터 무상 증여할 것을 주선하였으나 21개 광구만 실현되고 나중에 동원, 삼탄 등이 개발하는 나머지 광구는 결국 개인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정명선씨는 일제 때 금광개발(대명광업)로 성공한 사람으로 해방 후 조선제련회사 지배인을 역임하고 구봉, 무극, 금정, 임천 등 남한지역 4대 금광을 개발하였다. 해방 후 석탄개발에 관심을 보여 삼척탄전 중 장성과 도계 광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구를 출원하여 확보하였으나 금광에 주력하며 석탄광구 대부분은 타인에게 매각하였다.

‖ 1952년 8월 23일 경무대 비서실 공문 내용 ‖

영월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석공으로 하여금 개발케 하였다는 본 탄광을 지금에 와서 해 발전소(영월화력) 운영은 그대로 두고 본건 탄광만 분리해서 사기업화한다는 것은 산업개발에 무정견인 편견이니 불가하다는 대통령 각하의 분부이옵기 차이 전달하나이다.

‖ 1955년 6월 28일 대통령 지시 ‖

박정희 대통령은 함백탄광 64광구를 조속히 개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광업권 문제로 지체되고있다 하니 이는 1948년 11월에 구 광업령에 의거 국유조치로 하여 1950년 1월 석탄공사에 그대로 이양한 것인바 그 후에 그 중 몇몇 구역을 개인에게 출원 허가하였다는 것은 명료한 국책을 피차 착오한 소치로 인정되니 지체 없이 이것을 취소하여 전체 광업권을 석탄광사에 주도록 할 사항이다.[출처: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50년사』 발췌 (1950-2000), 2001]

정선선 개통식 치사(1967년 1월 20일)

친애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여러분들 이 고장에 개벽이래 처음으로 철도가 들어오고 기차가 통하게 된데 대해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경부선 연변에 사는 사람들은 강원도 정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골이고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6.25 전쟁 때, 이 정선을 여러번 통과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는 아주 교통이불편한 고장이라고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통이 불편하고 산골이다 하는 그런 얘기는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철도청장의 치사에 있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 정선선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계량사업으로, 지금부터 4년전에 착수를 해서 약 4년간이라는 기간과 약 28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늘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공사를 직접 계량하고 감독을 하고 시행을 한 관계당국 실무자 기술진 노무자 현지관민 여러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공사는 지형이 가장 험준한 난공사지대였지만, 이 공사는 전부 우리나라의 기술진으로서, 우리의 손으로써, 우리의 예산으로써, 우리의 노력으로써 완성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자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철도는 금년에 계속해서 구절리방면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머지 않은 장래에는 동해안에 있는 강변까지 이 선이 연결될 것입니다.그렇게 될 때, 교통이 불편하고 산골이라는 정선은 이제 산골이 아니라,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중간지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철도공사를 하는 그 이유는,첫째는 이 일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지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곳이 잘 개발 안된 이유는 교통이 불편하고, 철도가 없고, 기차가 없고, 수송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

이 점에 착안해서 정부는 여기다가 철도를 골어넣어 이 지역에 철도가 들어감으로써 이 지역이 개발이 되고, 이 지방에 무진장으로 많은 지하자원을 우리는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 산업경제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이 공사가 시작되었고 또한 오늘날 완공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3년동안 그리고 지금도 수송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송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도수송면만 하더라도, 5.16전에 비해서 배이상의 능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송력은 그때보다 훨씬 딸리고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이 그동안 그만큼 발달이 되었고, 생산이 늘고, 화물의 유통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큰 하나의 부담이 되지만, 또한 우리로서는 즐거운 비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수송문제의 타결에 대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시책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대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될 것입니다. 오늘날 산업개발과 경제건설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가 이 수송수단인 입니다. 정부는 철도만 가지고 이런 모든 수송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던데 착안을 해서 육로수송 해상수송 이러한 분야에도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철도가 가설될 것이고, 도로가 더 개설될 것이고, 더 많은 선박이 증가될 것이고, 항만들이 수축될 것이고 해서,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수송량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무연탄 철광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지하자원은 매년 개발되어서, 우리나라 산업에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이 지방주민 여러분을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크게 기여할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다시한번 이 어려운 공사를 완공하는데 수고하신 교통부 철도청 관계당국 관계실무자, 또 이 일을 담당한 건설업자 기술진, 또 여기에 종사한 노무자 여러분,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해준 현지관민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력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2 절 도약 성장기의 70년대_근대화의 중추적 연료공급 기지

1. 1970년대 에너지수급

1970년대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것은 석유였다. 1970년도 1차에너지원 구조에서 석유의 점유율은 47.2%에 달하여 거의 반을 석유가 차지할 정도였다. 나아가 1970년대 내내 석유의 수요 증가율은 타 에너지원을 능가하여 매년 12~14%에 달하는 고율의 증가를 이루어 1975년에 비중이 56.8%로 증가하더니 1979년에는 62.8%까지 높아졌다. 다음으로는 석탄이었다.

적으로 감소하더니 1979년도에는 석탄의 비중이 27.4%로 하락을 하였고, 이 중에서 무연탄 비중은 20.8%로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즉, 1970년대 후반기는 역시 석탄중심의 산업구조이기는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석유로 대체하여 가는 과도기였다.

이같은 현상은 1970년대에 무연탄 공급 증가율이 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는데에서 알 수 있다. 1970년대에 무연탄 공급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면에서 5.0%를 유지하여 견실한 증가를 하기는 하였으나, 석유의

1970년대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공급 구조(천TOE)

	국민 총소득 (억$)	1인당 국민 소득 1인당($)	1인당 에너지 (TOE)	총계 (천TOE)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합계	무연탄	유연탄	합계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1970	82	254	0.61	19,678	5,830	5,777	53	9,292	8,668	45	579	-	305	-	4,251
1971	95	290	0.63	20,868	5,872	5,835	37	10,559	9,895	60	604	-	330	-	4,107
1972	107	320	0.64	21,291	6,032	6,010	22	10,927	10,270	68	589	-	342	-	3,990
1973	137	401	0.73	25,010	7,563	7,135	428	13,454	12,259	98	1,097	-	321	-	3,672
1974	192	554	0.74	25,763	7,765	7,211	554	13,998	12,619	131	1,248	-	477	-	3,525
1975	212	602	0.78	27,553	8,075	7,556	519	15,638	14,036	172	1,430	-	421	-	3,420
1976	293	818	0.84	30,193	8,867	7,820	1,047	17,704	15,952	163	1,589	-	447	-	3,175
1977	377	1034	0.94	34,214	9,638	8,252	1,386	21,092	18,901	172	2,019	-	348	18	3,117
1978	529	1431	1.03	38,088	9,894	8,462	1,432	24,124	21,548	239	2,337	-	452	581	3,038
1979	629	1676	1.15	43,242	11,843	8,973	2,870	27,136	24,112	339	2,685	-	582	788	2,892
70-75	20.9%	18.8%	5.1%	7.0%	6.7%	5.5%	57.8%	11.0%	10.1%	30.8%	19.8%	-	6.7%	-	-4.3%
75-79	31.2%	29.2%	10.2%	11.9%	10.0%	4.4%	53.3%	14.8%	14.5%	18.5%	17.1%	-	8.4%	-	-4.1%
70-79	25.4%	23.3%	7.3%	9.1%	8.2%	5.0%	55.8%	12.6%	12.0%	25.2%	18.6%	-	7.4%	-	-4.2%

자료: 에너지통계연보(각년도).에너지경제연구원.국민소득은 시장가격기준임. 1인당 에너지소비는 1차에너지기준

1973년도의 1차 에너지원 중에서 석탄의 비중이 30.2%에 달하고 이 중에서 무연탄 비중은 28.5%로 매우 높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다.

동년도는 제1차 국제유가 파동이 발생한 시기라는 점에서 국내 부존 에너지의 무연탄에 대한 높은 수요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석탄의 비중이 한계

연평균 증가율은 12.6%에 달하여 무연탄 증가율의 2배 이상을 능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연탄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유연탄의 소비처는 주로 발전용(연료탄)과 산업용(원료탄) 등에 사용하는 연료인데, 1973년에는 포항제철(현 POSCO)을 준공함에 따라 금속산업에서 주로 연료

1970년대 우리나라의 무연탄 수급구조(천톤)

	공급부문				수요부문		
	생산량	이월량	수입량	합계	수요량	저탄량	합계
1970	12,394	1,105	-	13,499	11,831	1,668	13,499
1971	12,785	1,668	-	14,453	11,991	2,463	14,454
1972	12,403	2,463	-	14,866	12,324	2,542	14,866
1973	13,571	2,542	-	16,113	14,736	1,377	16,113
1974	15,263	1,371	-	16,634	14,959	1,681	16,640
1975	17,593	1,681	-	19,274	15,945	3,329	19,274
1976	16,427	3,329	-	19,756	16,782	2,974	19,756
1977	17,268	2,974	-	20,242	17,804	2,438	20,242
1978	18,054	2,438	646	21,138	17,953	3,185	21,138
1979	18,208	3,185	2,017	23,410	18,820	4,590	23,410
70-75	7.3%	8.8%	-	7.4%	6.2%	14.8%	7.4%
75-79	0.9%	17.3%	-	5.0%	4.2%	8.4%	5.0%
70-79	4.4%	12.5%	-	6.3%	5.3%	11.9%	6.3%

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유연탄의 증가는 1970년대 전 기간에 거쳐 연평균 증가율에서 55.8%라는 경이적인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국민소득의 증가로 1인당 에너지소비도 높은 증가를 기록하여 왔다. 1인당 에너지소비는 1970년에 0.61TOE에 불과하였으나 1975년까지 매년 5.1%씩 증가하여 1975년에는 0.78TOE로 증가하더니 이후 소비 증가율은 비약적으로 이루어져 1979년에는 1.15TOE에 이르렀다. 즉, 1970년대 후반기에는 매년 10.2%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반기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 무연탄 수급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나라 전체 석탄생산량은 1970년~1975년까지는 연평균 증가율에서 7.3%를 이어왔다. 1966년 연탄파동으로 주유종탄정책으로 인하여 무연탄 생산이 1970년~1972년까지 정체현상을 보였으나, 1973년에 제1차 국제석유 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탄종유정책으로 선회한 이후 무연탄 증산정책을 추진하면서 높은 증가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1975년 무연탄 생산은 17,593천톤으로 바로 전년도 대비 2,330천톤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5.3%에 달하였다. 이후 1978년에 제2차 석유위기를 겪기도 하였는데 동기간에 무연탄 생산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는 못하였다. 이 같은 이유는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었고, 당시 무연탄 생산여건은 심부화가 진행되었고 저질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1973년도 제1차 석유파동이후 정부의 석탄증산정책은 저질탄의 생산을 증가시켰고, 이는 연탄의 품질을 떨어뜨려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정부는 양질의 대한석탄공사의 무연탄을 전국의 연탄공장에 배정하여 연탄의 질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저질탄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생산부족분을 보충하고 저질탄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열량의 외국산 무연탄의 수입을 결정한다. 무연탄 수입은 1978년도부터 시작하여 초기에는 용도에 따라 3개 기관에서 담당하였으며, 연탄제조용 무연탄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전용 무연탄은 한국전력이 비축용 무연탄은 조달청에서 담당을 하였다.

2. 국제 석유위기로 주탄종유정책 전환

가. 동력자원부의 출범

정부 1973년도에 발생한 1차 석유파동으로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77년 12월 16일에 법률 제3011호 정부조직법(동법 37조 2)을 개정하고 1978년 1월 1일자로 동력자원부를 신설하여 이전까지 상공부에

우리나라 에너지 동력 자원을 전담하는 동력자원부 현판식이 1978년 1월에 을지로 德壽빌딩에서 있었다. 초대 장관은 장례준 씨(우측)로 1978년 1월1일부터 1979년 12월 13일까지 재직하였다.

소속되어 있던 동력과 지하자원에 관한 업무를 이관함과 동시에 광무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자원개발국, 석탄국, 석유국, 광산보안담당관실을 두는 것 외에 광업등록사무소를 신설하여 광산보안담당관실에는 광산보안담당관을 배치하여 보안감독기구를 확대개편하고 동년 4월에는 황지를 비롯한 점촌, 대천, 화순 등 석탄산지 4개 지방에 동력자원부 직속으로 "광산보안출장소"를 설치하고, 광산보안관이 직접 보안업무를 수행하여 광산보안업무를 사실상 중앙으로 일원화하였다.

나. 「석탄광업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민영탄광 자금지원

1966년 연탄파동을 겪으면서 주유종탄을 정책을 추진한 정부는 이후 유류 공세에 의한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탄광 개발의 심부화에 의한 작업조건의 악화 등으로 석탄산업의 타격이 심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보호육성책을 추진하였다.

이것이 1969년 8월 4일 「석탄광업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136호)이다. 동법은 한시법으로 법 효력기간은 1979년 12월 31일까지이다. 본 법의 주 내용은 석탄광업조성심의회의 설치, 석탄자원 장기개발계획 수립 및 석탄조성사업 재원의 설치이다.

특히, 조성사업비의 용도는 탄광시설의 근대화 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원거리 및 해상수송비 보조, 대량 소비처에 대한 가격보조, 심부탄광시설보조 등을 담고 있다. 동시에 민영탄광에 대한 융자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민영탄광개발을 위하여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석탄기금을 설치하여 석탄수급의 조정과 석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석탄사업조성비 징수실적(백만원)

벙커C유에 대한 특별소비세(10%) 해당액	1970	2,684
	1971	3,798
	1972	4,447
	1973	4,631
	1974	16,407
	소계	31,967
벙커C유에 대한 특별소비세(5%) 해당액	1975	19,666
	1976	15,477
	1977	21,669
	1978	25,464
	소계	82,276
벙커C유 값의 6%	1979	53,174
	1980	111,124
	1981	102,031
	1982	132,027
	1983	119,481
	1984	123,314
	1985	121,484
	소계	762,635
상동	1986	104,424
	1987	91,029
	1988	80,082
	1989	130,474
	1990	114,113
	1991	99,830
	1992	92,119
	1993	139,340
	1994	103,565
	소계	954,976
합계		1,831,854

다. 「석탄수급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석탄증산정책

석탄생산은 1970년부터 실시된 육성정책의 확립과 1973년도 1차 유가파동으로 무연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1975년도 무연탄 수요량은 1,600만톤을 기록하였다. 이같이 수요가 팽창하면서 수급 구조상에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간간히 연탄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원탄과 연탄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탄질저하 등에서 오는 부작용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유통구조를 바로 잡고 석탄과 석탄 임가공품의 수급을 조절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6년 3월 29일에 석탄수급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746호)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한시법인 관계로 1978년 12월 5일 법률 제 3134호로 유효기간을 198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라. 「광업법」개정과 덕대업 및 하청업자들의 권리보호

정부는 1951년도에 제정된 광업법을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1975년 2월 1일에 법률 제 2492호로 개정하여 지금까지 광업권의 향유유지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개발위주의 새로운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혁신적인 개정을 추진하였는 바, 이는 광업개발촉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주 내용은 광업법의 기본원칙인 광업 자영주의원칙

에서 벗어나 완전한 용익물권으로서의 조광권 제도를 법제화하고 개발능력자로 하여금 조광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석탄개발에 있어서 덕대, 분양, 청부 등의 비합법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광업업자와 합법적인 조광계약을 체결하고 광어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정당히 행사하여 덕대사업이 횡횡하던 탄광의 분쟁도 줄고 석탄생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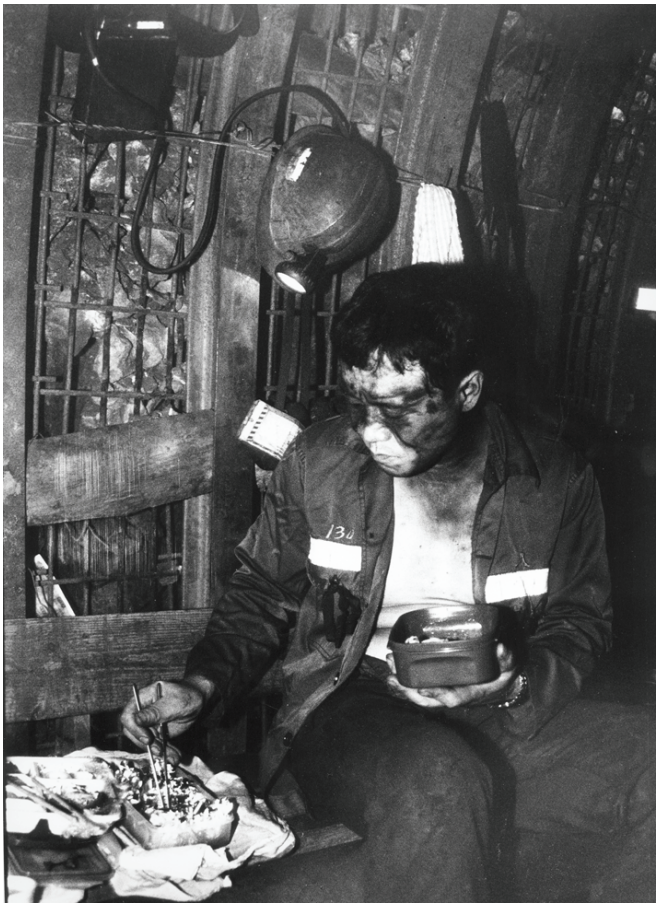
3. 70년대 정선군의 석탄산업_전국 최대 및 최다 민영 탄광의 메카

전국의 등록 석탄 광구수는 1967년도에 약 2,000여개로서 강원도가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정선군은 단연 수위를 차지하여 일찌기 우리나라의 민영탄광 메카로 자리 잡았다.

정선군의 석탄 광구수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증가를 기록하여 왔다. 정선군의 정선군 석탄 광구수는 1960년에는 31개(강원도내 비중: 1.6%)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기록적인 증가를 기록하여 60년대부터 줄곧 강원도내 석탄 광구수에서 가장 많은 광구수를 보유하게 되었다.

1967년도에 강원도의 전체 석탄 광구수는 935개이었으며, 이 중 정선군은 116개에 달하여 강원도내의 비중은 6%로 증가하였으며, 1968년에는 강원도 전체 광구수 886개 중

나전_여량간 철도 개통식 장면. 태완선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이 참석을 하였다(1972년)



막장에서의 식사모습

에서 정선군은 233개로 비중이 11.8%를 기록하여 이미 1960대말부터 정선군은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민영 탄광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추세는 지속하여 왔으며 1970년의 정선군 석탄광구수는 총 235개로 강원도 내 광구수 945개 중 12.0%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의 민영 석탄 광구수는 이후 정체를 보이는데 이는 전국적 및 강원도내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1670년대에 정선군의 석탄광구수는 230-250개 내외에서 부침을 거듭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내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광구수를 보유하는 것이다.

정선군이 이같이 민영 석탄광의 메카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정선군의 지리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정선군이 전국 최대 석탄생산지대인 삼척탄전 일원에 우리나라 최대 민영탄광인 동원탄좌와 삼척탄좌가 자리잡고 있으며,

동원탄좌의 벨트 컨베이어 및 삭도광차 모습

대한석탄공사의 함백광업소를 비롯하여 전국 최대의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정선탄전에 나전탄좌, 우전탄좌 및 회동탄좌 등이 일찌기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 규모의 석탄광들이 속속 들어섰다. 즉, 정선탄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는만큼, 정선군 전체가 석탄산지인 것이다.

4. 대형 탄광_시설 확충과 현대화 추진

가. 동원탄좌

1970년대 부터 정선의 대표적 탄광으로 부상한 동원탄좌는 석탄생산의 중흥기라 불릴만큼 질적, 양적 성장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정부의 석탄위주 에너지정책과 1973년 제1차 석유파동과 78년 제2차 석유파동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등의 영향으로 고속성장을 거듭하게 되며 에너지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동원탄좌는 1971년도에 1020항, 970항 생산개시를 시발로 72년 제1삭도 완공, 875항, 백운 990항, 73년 970항, 1065항을 연이어 개항하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1974년도말에 생산 1백만톤(1,063,935톤)을 달성하게 되며, 이듬해 상공의날에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된다. 생산증대를 위한 개발은 거듭되어 75년 710갱을 개항하는 한편, 대단위 사갱에 의한 1차 심부개발에 착수하게 되며 196년에는 760갱에서 생산을 시작한 이래 1977년말에 1백 5십만톤(1,565,051톤)을 돌파하고 이듬해인 1978년 2월에 석탄

밤에서 낮으로_ 야간작업후 출갱하는 모습(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증산유공부문 제1위 대통령표창 및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1978년 6월에는 역두 간이저탄장시설을 준공하였다. 1970년대 동원탄좌의 성장 버팀목이며 상징이 된 650갱은 79년 12월부터 생산을 개시하면서 1970년대 정선지역 석탄개발의 대미를 장식한다.

동원탄좌가 1980년대를 향해 석탄개발 및 생산에 매진하던 1978년도에는 전국의 가정용 연탄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국 탄광업계의 생산량도 급증한 반면, 탄질과 열량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당국은 외국의 고질탄을 수입하기도 하였으며 아울러 석탄광업 정부보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도 70년대(1970년 도입)며 이 시기에 동원은 고속성장의 기초를 더더욱 공고히 다지게 된다.

1970년대 개항하거나 개발되고 생산하던 동원의 대표적인 구역은 화절계곡지구, 백운지구, 고토일지구로 대별된다. 화절계곡지구는 계곡정상부부터 1,020ML까지의 상부지구와 970, 920, 875ML의 3개 수평항으로 개발된 중부지구(사음항지역), 820, 760, 710, 650ML의 4개 수평항으로 개발된 하부지구로(중앙항지역) 다시 구분된다. 상부와 중부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70년대 동원탄좌의 석탄생산 운반계통도를 살펴보면 주로 삭도광차와 운탄차량 등이 이용되었다.

사북역에서 대기중인 화차

막장의 작업모습

당시 동원은 970ML벙커를 시점으로 하여 650ML에 있는 사북역두 저탄장을 종점으로 하는 제1호 삭도와 820ML 벙커를 출발점으로 하여 역두저탄장을 종점으로 하는 제2호삭도를 설치하여 활용하였다. 화절지구 상부지역(1,020ML 이상) 생산탄은 자동차로 970벙커까지 운반하여 삭도광차로 중계하였고 920ML부터 875ML까지 중부지역 생산탄은 200마력 갱외권양기로 권양하여 970벙커로 운반되었고 다시 역두로 중계되었다. 710ML이하 생산탄과 백운지구 및 고토일지구 생산탄은 대부분 자동차로 역두까지 운반하였다. 이 당시의 사북지역은 전체가 운탄도로 상태였고 화절령, 지장산 등 고지대 탄광촌마을의 유일한 교통수단도 운탄차가 대신하던 시절이었으며, 길바닥에 쌓이거나 비산하는 석탄먼지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 저탄장 주변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나. 삼척탄좌

1979년 9월 삼척탄좌는 정암광업소에 종합사무동 9본관 건물을 완공함으로써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1962년 회사가 설립되고 1963년 1,250미터 레벨부터 채광을 시작한 이후 삼척탄좌는 현장 노동자들의 복지시설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타 탄광에 비해 월등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무환경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갱도 입구에 콘센트형 막사를 지어 급한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채광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증설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무엇보다 갱내 근로자들이 갱내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시급한 과제였다. 당시 국내 탄광들은 갱내는 물론, 가정에서도 목욕을 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 묻은 석탄가루로 인해 온몸이 범벅이 된 채 퇴근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삼척탄좌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아울러 급증하는 사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사무동 건설을 추진했다. 때마침 추진한 수갱건설 연계하여 종합사무동의 위치를 수갱건설 지점인 해발 832미터 지점을 갱외 집약시설 입지로 선정하고 1970년대 초부터 정지작업에 착수했으며, 1979년 9월에 준공하였다.

이때 준공한 종합 사무동은 특히 갱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건설되었다. 즉 근로자들의 주 작업공간인 수갱과 종합사무동을 연결하여 출근과 퇴근시 작업복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는 등의 모든 과정을 이 종합사무동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사무동은 모두 4개 층으로 건설되었으며, 사무실과 샤워실, 작업도구 보관실, 수갱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케이지 등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건설되었다. 특히 샤워실은 갱내 근로자들이 가장 시급히 원했던 시설임과 동시에 1,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되었는데,

70년대 정선군과 강원도내 석탄 생산군들의 석탄생산 추이(천톤)

	1960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정 선 군	451	1,640	1,713	1,875	2,091	2,203	2,708	3,436	4,058	4,142	4,701	4,779	4,674
영 월 군	481	776	577	540	428	415	334	348	466	453	400	469	467
평 창 군	-	-	-	-	-	-	-	2	11	17	15	6	37
명 주 군	164	214	268	402	411	405	364	430	516	483	371	312	378
삼 척 군	3,438	5,382	4,936	6,191	6,013	5,806	6,537	6,874	7,555	7,360	7,559	7,746	7,517
합 계	4,534	8,012	7,494	9,007	8,943	8,829	9,944	11,091	12,607	12,455	13,047	13,311	13,074
정선군의 비중(%)	10.0%	20.5%	22.9%	20.8%	23.4%	25.0%	27.2%	31.0%	32.2%	33.3%	36.0%	35.9%	35.8%

자료: 탄협(대한석탄협회), 석탄통계연보(대한석탄공사), 강원통계연보(강원도),정선통계연보(정선군) 등 종합

1970년대 정선군 소재 대단위 탄좌들의 석탄 생산량(천톤)

	전국 민영 탄광 생산량	정선군 소재 대단위 탄좌 생산량(천톤)			합계	정선군 대단위 탄좌의 생산 비중
		동원탄좌	삼척탄좌	우전탄좌		민영비중
1970	7,939	448	611	37	1,096	13.8%
1971	8,479	486	734	44	1,264	14.9%
1972	8,594	546	804	35	1,385	16.1%
1973	9,326	734	845	30	1,609	17.3%
1974	10,853	1,072	960	34	2,066	19.0%
1975	13,019	1,395	1,038	110	2,543	19.5%
1976	11,810	1,297	1,078	100	2,475	21.0%
1977	12,760	1,565	1,202	117	2,884	22.6%
1978	13,382	1,651	1,222	125	2,998	22.4%
1979	13,506	1,600	1,137	125	2,862	21.2%
연평균증가율(70-79)	6.1%	15.2%	7.1%	14.6%	11.3%	-

하루 3교대 근무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이 외에도 종합사무동에는 수갱 종합운전장치가 설치된 종합운전실, 시청각교육실, 대강당, 회의실 등을 구비해 탄광 내의 모든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와 종합사무동 준공은 연이어 마무리된 제1수갱 건설과 함께 삼척탄좌의 질적 성장을 이끈 견인차가 되었으며, 이후 삼척탄좌가 다른 탄광에 비해 우수한 복지시설을 갖춘 탄광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종합사무동의 건설을 계기로 삼척탄좌는 그해 9월, 국내 민영탄광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해 급여업무를 비롯해 인사관리, 자재수불, 회계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시행하는 등 업무의 합리화도 박차를 가했다.

1979년 9월 종합사무동을 준공한 심척탄좌 정암광업소는 1981년 5월, 탄광의 숙원사업이었던 제1수갱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심부탄광 개발시대를 열었다. 삼척탄좌와 수갱 건설은 점차 채탄상황이 점차 심부화되어감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 준비되기 시작했다. 1973년 초, 사업계획을 통해 삼척탄좌는 1975년 100만톤 생산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연산 200만톤 생산규모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는 수갱건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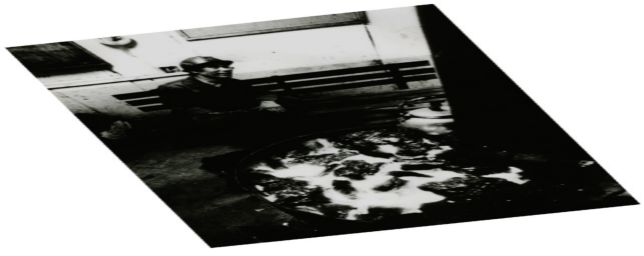
이리하여 삼척탄좌는 1975년 10월, 해발 832미터 레벨에서 수갱철탑을 시공함으로써 깊이 600미터의 수갱건설에 착수했다. 수갱건설에는 국내 최초로 수갱용 점보드릴과 그랩 등 최신장비를 활용하여 국내 토목공사 기술발전에도 기여했다.

수갱의 규모는 내경이 6미터, 심도 600미터의 수직갱으로서 해발 832미터 지점에서 시작해 해발 500미터 지점까지는 초속 8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고, 이후부터는 초속 11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권양 능력에 있어서는 2대의 권양기를 설치하였는데, 4분에 1회씩 20톤의 석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스킵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130만톤의 석탄을 처리할 수 있게 시공되었으며, 4톤 규모의 경석광차 4대를 한꺼번에 싣고 오르내릴 수 있는 케이지를 같은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시공되었다.

이 케이지를 이용하여 갱내 작업자들을 1회에 400명씩 신속하게 작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음은 물론 연간 50만톤 규모의 굴진 암석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권양능력을 갖추기 위해 권양기의 능력은 각각 1,900마력으로서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규모의 용량이었다.

한편 수갱 내부에는 수직 50미터 간격으로 수평갱도가 연결되도록 구축하였고, 수직 100미터마다 20톤의 석탄을

동원탄좌의 석탄운반로



휴식

운반용 스킵에 적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스킵에 적재된 석탄은 위로 운반되어 입구에 설치된 컨베이어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채탄된 석탄은 중액선탄장으로 자동 운반되도록 모든 설비가 건설되었다.

수갱의 모든 시설은 자동 내지 반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시공되었음은 물론 컴퓨터와 연결하여 전산화 장치를 갖춘 중앙집중관리 제어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갱설비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독일의 GHH사와 AEG사가 제작한 것이었다.

본 수갱건설은 연인원 20만명이 투입된 창사이래 최대 역사였으며, 투입된 총공사비도 내자 70억원, 외자 50억원 등 모두 127억원에 달했다. 삼척탄좌는 이 중 외자 50억원은 대한광업 진흥공사의 석탄광업 육성자금에서 지원받았다. 삼척탄좌는 1981년 5월 17일 정암광업소 현장에서 제1수갱 및 종합사무동 종합 준공식을 거행했다. 유성연 회장과 이장균 회장, 최형순 사장 등 삼척탄좌 전 임직원과 외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합준공식은 삼척탄좌 설립이래 최대규모의 행사였다. 삼척탄좌는 당시 이 행사를 위해 서울에서부터 고한역까지 열차를 전세내어 서울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을 참석하도록 했다.

5. 1970년대 정선군 석탄생산_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은 점유율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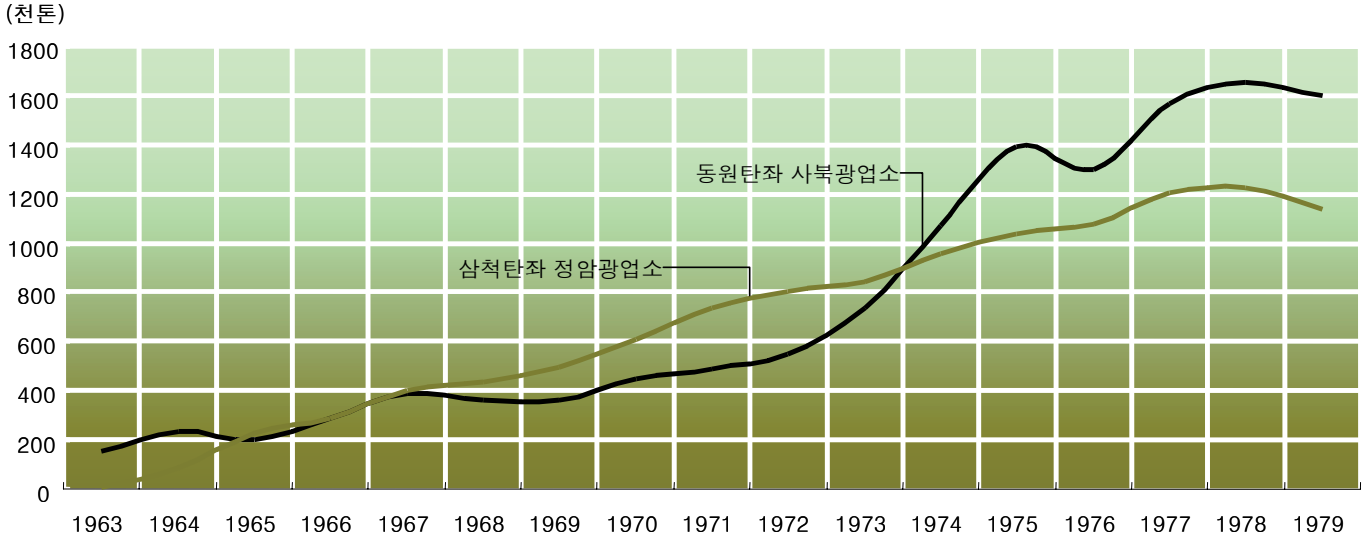
70년대의 우리나라 석탄생산은 빠른 증가현상을 보였다. 1966년도에 연탄파동을 계기로 기존 석탄중심정책에서 주유종탄정책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한 이래 예상치 못한 1973년도 1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다시금 국내 유일 부존자원인 석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증산정책으로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에 정선군은 석탄 르네상스를 맞게되는 시기이다.

1970년대에 정선군의 석탄생산은 전국 대비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1970년에 정선군의 석탄생산은 1,892천톤인데, 이는 전국대비 15.3%이며, 강원도 전체 생산량 9,007천톤 대비 21%를 차지하는 양이었다.

이후 정선군의 석탄생산량은 급격한 증가를 이룩하여 왔으며 1973년도 1차 석유년도에는 3,018천톤을 생산하여 전국대비 22.2%를 점하였고, 강원도 생산 대비에서는

전국 최대 민영탄좌인 동원탄좌(사북광업소)와 삼척탄좌(정암광업소)의 60-70년대 석탄증산 추이(천톤)



전국의 석탄 생산량은 1970년대 전반기에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는데 1970년에 12,394천톤에 1975년에는 17,593천톤으로 무려 40%가 증가하게 되며, 제2차 석유위기가 도래하는 1979년에는 18,208천톤으로 1970년 대비 47%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전국 석탄생산에서 강원도의 석탄생산은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는데, 70년대 내내 강원도는 전국 생산량의 약 70% 이상을 담당한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도 가장 많은 탄광수를 보유한 정선군의 석탄 생산량은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타의 추종을 능가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즉, 70년대 30.4%를 1/3에 달하였다. 이후에도 정선군의 석탄생산은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1979년에는 4,990천톤을 생산하여 전국대비 28%, 강원도대비 37%라는 경이적인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1970년대를 관통하면서 한국의 석탄생산량은 연평균 증가율(1970년-1979년)에서 4.4%로 견실한 증가를 시현하였는데 강원도는 동기간 증가율이 4.2%로 전국적인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이룩하였다. 그러므로 정선군의 석탄 생산증가율이 매년 10.8%를 시현하여 전국 및 강원도 증가율에 비하여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6. 대형탄광의 증산 추진

1970년대에 정선군의 전국 제일의 산탄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계기는 역시 정선군 내 대단위 탄좌설립 이후부터 시설확충에 나선 대형 민영탄광들이 절대적으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북읍의 동원탄좌, 고한읍의 삼척탄좌 및 북면 구절리의 우전탄좌 등은 1962년 탄좌설립 이후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확충하였기 때문에 70년대에 석탄 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동원탄좌, 삼척탄좌 및 우전탄좌 등 3개 민영탄좌가 생산량이 전국 민영탄광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전반기에는 10% 후반대에서 1970년대 후반기에는 20% 이상을 차지하여 전국 민영탄광 생산량 중에서 1/5를 넘어섰다.

전국의 민영탄광들의 석탄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정선군 민영탄광들의 생산 증가율은 전국적인 생산량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즉, 전국의 민영탄광의 생산 증가율은 1970-1979년 동안 매년 6.1%이었으나, 정선군 3개 탄좌들의 생산 증가율은 14.6%에 달하여 기록적인 석탄생산이 이루어졌다.

1970년에 전국 민영탄광 생산량은 7,939천톤이었는데, 전선군의 3개탄좌의 생산량은 1,096천톤으로 13.8%를 차자하였는데 이것이 1975년도의 정선군 3개 탄좌의 생산량은 2,543천톤으로 전국 민영탄광 생산량 13,019천톤 중 19.5%를 차지하였으며 1978년에는 정선군 3개 민영탄광들의 생산량은 2,998천톤으로 전국의 민영탄광들의 생산량인 13,382천톤에서 22.4%를 점하였다.

특히, 1970년대 동원탄좌의 석탄생산 증가율은 15.2%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으며, 삼척탄좌가 7.1%, 그리고 우전탄좌가 14.6%로 기록하여 정선군이 전국적인 석탄 생산량을 주도하여 나갔다.

석탄폐석장

정선군에는 국내 최대 민영탄광인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위치하고 있고 각각은 직할로 운영기 때문에 석탄산업 증흥기에 석탄증산을 위하여 사운을 다하여 석탄증산에 힘을 쏟았다. 특히, 1970년대는 주탄종유정책으로 전환된 이후 석탄증산은 곧바로 판로가 확보되어 별도의 판매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었고, 단지 산탄지에서의 증산만이 관건이며 이는 곧바로 사세 확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삼척탄좌와 동원탄좌는 1962년 동시에 대단위 탄좌설립에 따라 정선군에 입성하였고 탄전도 태백시에서 정선군에 걸쳐 있는 삼척탄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사북광업소는 사북읍에 그리고 정암광업소는 바로 인근인 고한읍에 위치하고 있어 양자 간에는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선의의 석탄 증산 경쟁을 벌이기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탄좌가 설립된 직후인 1963년에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288천톤을 생산하였으며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단지 6천톤에 불과하였다. 이후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생산을 본격화하여 1964년에는 228천톤을 생산하여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203천톤에 비하여 25천톤을 더 생산하여 역전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73년까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생산량을 능가하여 1973년에는 258천톤까지 격차를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5년부터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대대적인 갱도 굴진에 힘입어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생산량을 증가하기에 이르는데, 동년도에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1,072천톤을 생산하였고,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960천톤을 생산하여 112천톤을 생산하였으며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한번도 역전된 경우가 없었다(삼척탄좌 정암광업소: 2002년도 폐광,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2004년도 폐광).

특히, 1974년도에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연간 생산량 100만톤을 돌파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입장에서는 뜻깊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국내 최대 민영탄광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물론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도 1975년도에 1,038천톤을 생산하여 1년 늦게 돌파를 하였으나 이후 생산량을 역전시키지는 못하였다.

이후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는 1975년 4월에 대단위 사갱에 의한 1차 심부개발 착공하는 등 대대적인 석탄 증산을 실시하게 된다. 1978년 02월에 연간 생산량 1,500천톤 을 달성하고 동년도에 '77년 ·석탄생산 유공 제1회 대통령표창 및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7.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 및 나전광업소의 승격과 증산체제 돌입

대한석탄공사는 1970년대 전국에서 6개 직할탄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선군에서는 함백광업소와 1967년에 나전탄좌를 매입한 나전광업소를 운영하였다.

정선군 소재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와 나전광업소의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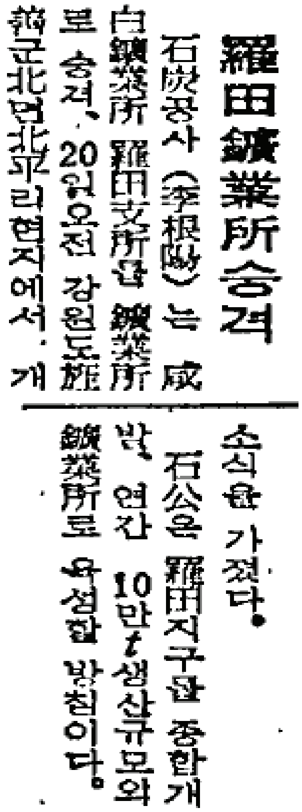
	생산량(천톤)				비중(%)		
	석공전체	함백광업소	나전광업소	계	(함백/석공)	(나전/석공)	(함백+나전/)석공
1970	4,454	419	12	431	9.4%	0.3%	9.7%
1971	4,036	380	37	417	9.4%	0.9%	10.3%
1972	3,809	356	46	402	9.3%	1.2%	10.6%
1973	4,245	488	10	498	11.5%	0.2%	11.7%
1974	4,410	600	4	604	13.6%	0.1%	13.7%
1975	4,574	685	6	691	15.0%	0.1%	15.1%
1976	4,617	725	63	788	15.7%	1.4%	17.1%
1977	4,508	711	89	800	15.8%	2.0%	17.7%
1978	4,672	715	98	813	15.3%	2.1%	17.4%
1979	4,702	675	140	815	15.3%	2.1%	17.4%
연펴균증가율(70-79)	0.6%	5.4%	31.4%	7.3%	-	-	-

참고: 1974년 12월 20일에 함백광업소 나전지소가 나전광업소로 본격 승격되었다

나전광업소의 옥갑갱 입구. 옥갑갱은 나전광업소의 갱들중에서 가장 많은 채탄을 한 갱이다.

특히, 1970년대 석탄공사의 석탄생산량은 생각만큼이나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였다. 이 같은 요인은 초기부터 석탄공사는 경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투자를 적기에 단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석탄공사의 6개 직영탄광들의 석탄 생산량은 1970년에 4,454천톤이었는데,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1973년도 1차 유가파동이후부터 한계적으로 증가를 하였다. 이에 1979년에는 석공의 전체 생산량은 4,702천톤을 기록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를 관통하면서 연평균 증가율



羅田鑛業所승격

石炭공사(李根卨)는 咸白鑛業所 羅田支所를 鑛業所로 승격, 20일오전 강원도旌善군北면北平리현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石公은 羅田지구를 종합개발, 연간 10만t생산규모의 鑛業所로 육성할 방침이다.

1974년 12월 20일에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 나전지소가 나전광업소로 승격되었다.

은 단지 0.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정선군에 위치한 함백광업소와 나전광업소는 다른 직할탄광에 비하여 석탄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먼저 함백광업소는 1970년에 419천톤을 생산하였으나 이후 증산을 거듭하여 1976년도에는 711천톤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1979년에는 675천톤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70-1979년에 연평균 증가율은 5.4%에 달하여 석공 전체의 생산증가율 0.6%를 훨씬 능가하는 생산을 보였다.

한편, 나전광업소는 1967년도에 나전탄좌를 매입하였으나, 이후 개발이 지연되면

1960-70년대의 정선군 및 강원도내 등록 석탄광구수 추이(가행+미가행)

	1960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정 선 군	31	233	235	237	240	247	250	257	241	236
춘 성 군	-	3	3	3	3	3	3	3	3	2
홍 천 군	-	3	3	3	3	4	5	5	3	-
횡 성 군	-	3	3	3	3	3	3	3	1	-
원 주 군	-	-	2	2	2	2	2	2	2	1
영 월 군	50	139	135	146	162	166	170	174	102	99
평 창 군	2	121	128	129	139	152	154	159	124	122
화 천 군	-	6	6	6	7	7	7	7	4	2
양 구 군	-	4	5	5	5	5	5	5	5	2
인 제 군	-	5	5	5	5	5	6	6	-	2
고 성 군	-	-	1	1	1	1	2	2	2	2
양 양 군	-	7	7	7	8	8	8	8	4	2
명 주 군	101	155	158	159	169	170	171	171	164	159
삼 척 군	76	207	222	239	249	260	264	270	197	176
합 계	260	886	913	945	996	1033	1050	1072	852	805
정선군의 비중(%)	1.6%	11.8%	11.9%	12.0%	12.2%	12.5%	12.7%	13.0%	12.2%	11.9%

지료: 강원통계연보 각년도, 상공통계연보(,19691970)

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1974년에는 생산량이 겨우 4천톤에 불과하였다. 이에 한 때 나전광업소는 탄전 민영화를 단행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전광업소는 1974년 이전까지는 함백공업소의 나전지소로 운영되는 등 독자적인 경영여건이 갖추어 지지 못하였다.

이후 1974년에 함백광업소 나전지소에서 나전광업소로 승격되면서 이후 종합개발을 통하여 연간 10만톤 생산체제에 돌입한 이후부터 1976년에는 63천톤을 생산하고 이후 증가를 거듭하여 1979년에는 140천톤을 생산하여 1970-1979년도 생산 증가율은 무려 31.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석탄공사 직할 광업소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것이다. 이로써 나전광업소는 정상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제 3 절 성숙 폐광기의 80년대_최대 산탄지와 폐광의 암운

1. 1980년대 에너지수급

198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은 구조적인 변화를 보인다. 그동안 전통적인 연료인 무연탄과 신탄 등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석유류와 1986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액화천연가스(LNG) 그리고 전력수요에 힘입어 원자력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는 국민 소득의 증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동안 산업 현대화를 추진한 결과, 국민 총생산 증가에 힘입어 1인당 국민 소득도 1980년에 1,645$에서 1985년에 2,309$로 1.4배가 증가하여 5년 동안 매년 7%씩 성장하였다. 1989년에는 5,418$로 1980년 대비 3.3배, 1985년 대비 2.4배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매년 24%씩 증가하여 기록적인 성장을 보여 주었다.

1980년대 국민소득의 빠른 증가는 에너지 수급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시켰다. 즉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들은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원을 요구하게 되며 동시에 가전기기의 높은 보급으로 전력수요도 큰 증가를 보인다. 이는 무연탄 소비, 특히 불편비용이 높은 가정용 주종연료인 연탄을 제조하는 무연탄의 소비를 대폭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같은 수치는 1980년대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수급에 나타나고 있다. 무연탄의 소비는 기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적게 증가하거나 나아가 1980년대 후반기들어 연평균 증가율면에서 매년 - 2.8%씩 감소하는 반면에 기타 가정용 경쟁 연료인 LPG는 1980년대 전반기에 26.2%씩, 후반기에도 20.3%씩 증가하여 가정용 연탄 제조용인 무연탄을 급속히 대체하여 나갔다.

나아가 1986년부터 도입하게 된 액화천연가스(LNG)가 도시가스 연료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가정용 연탄 제조용 무연탄을 급속히 대체한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무연탄 수급 역사에서 여러 가지 신기록을 달성하는 전환점이다. 석탄 생산량은 1980년대 전반기에는 매년 3.9% 정도가 증가하는 견실한 증가를 보였으나 이후 후반기 5년 동안은 매년 -2.0%씩 감소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보인 기간이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공급 구조(천TOE)

	국민 총소득 (억$)	1인당 국민소득 ($)	1인당 에너지소비(TOE)	총 계 (천TOE)	석탄			석유				LNG	수 력	원자력	기타
					합계	무연탄	유연탄	합계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1980	627	1,645	1.15	43,911	13,199	9,878	3,321	26,830	23,362	458	3,010	-	496	869	2,517
1981	697	1,800	1.18	45,718	15,244	10,338	4,906	26,580	23,110	511	2,959	-	677	724	2,492
1982	744	1,893	1.16	45,625	15,451	9,839	5,612	26,312	22,649	750	2,913	-	501	944	2,417
1983	828	2,076	1.24	49,420	16,491	10,133	6,358	27,628	23,250	1,031	3,347	-	681	2,241	2,378
1984	912	2,257	1.32	53,535	19,867	11,455	8,412	27,628	22,663	1,262	3,703	-	600	2,948	2,492
1985	942	2,309	1.38	56,296	22,022	12,322	9,700	27,142	21,836	1,467	3,839	-	915	4,186	2,031
1986	1,089	2,643	1.49	61,462	23,330	13,239	10,091	28,499	22,408	1,799	4,292	71	1,005	7,078	1,480
1987	1,382	3,321	1.63	67,878	23,639	12,935	10,704	29,652	22,958	2,161	4,533	2,104	1,336	9,829	1,319
1988	1,864	4,435	1.79	75,351	25,162	12,441	12,721	35,390	27,869	2,629	4,892	2,718	892	10,025	1,164
1989	2,300	5,418	1.92	81,660	24,493	10,984	13,509	40,523	32,506	3,066	4,951	2,630	1,140	11841	1,033
80-85	8.5%	7.0%	3.7%	5.1%	10,.8%	4.5%	23.9%	0.2%	-1.3%	26.2%	5.0%	-	13.0%	36.9%	-4.2%
85-89	25.0%	23.8%	8.7%	9.7%	2.7%	-2.8%	8.6%	10.5%	10.5%	20.2%	6.6%	-	5.7%	29.7%	-15.6%
80-89	15.5%	14.2%	5.9%	7.1%	7.1%	1.2%	16.9%	4.7%	3.7%	23.5%	5.7%	-	9.7%	33.7%	-9.4%

자료: 에너지통계연보(각년도).에너지경제연구원.국민소득은 시장가격기준임. 1인당 에너지소비는 1차에너지기준

1980년대 우리나라의 무연탄 수급구조(천톤)

	공급부문				수요부문		
	생산량	이월량	수입량	합계	수요량	저탄량	합계
1980	18,624	4,590	2,691	25,905	20,830	5,075	25,905
1981	19,865	5,075	4,293	29,233	21,413	7,820	29,233
1982	20,116	7,820	2,292	30,228	20,865	9,363	30,228
1983	19,861	9,363	813	30,037	21,670	8,367	30,037
1984	21,370	8,367	804	30,541	24,154	6,387	30,541
1985	22,543	6,889	2,333	31,765	25,339	6,426	31,765
1986	24,253	6,931	3,914	35,098	26,928	8,170	35,098
1987	24,273	8,866	2,782	35,921	26,327	9,595	35,922
1988	24,295	10,450	1,670	36,415	25,641	10,774	36,415
1989	20,785	11,134	927	32,846	22,798	10,048	32,846
80-85	3.9%	8.5%	-2.8%	4.2%	4.0%	4.8%	4.2%
85-89	-2.0%	12.8%	-20.6%	0.8%	-2.6%	11.8%	0.8%
80-89	1.2%	10.3%	-11.2%	2.7%	1.0%	7.9%	2.7%

자료: 석탄통계연보(각년도),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특히 무연탄 생산량은 1988년도에 24,295천톤으로 최고치를 달성하는데 이 해는 '88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같은 생산량은 10년전인 1978년도 생산량인 18,054천톤에 비하여 1.35배가 증가한 것이고 20년 전인 1968년도의 생산량인 10,242천톤에 비하여 2.37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후 무연탄 생산량은 가파르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두 번째로는 석탄수요에서 1980년대 전반기에는 매년 4.0%씩 증가하여 석탄생산과 함께 견실한 증가를 보였으나,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2.8%씩 감소하여 석탄 생산량 감소율보다 높았다. 한편, 무연탄 수요에서 1986년도에 최고를 기록하는데 동년도 수요량은 26,928천톤이었다. 이는 10년전인 1976년도의 수요량 16,782천톤에 비하여 1.6배가 증가한 것이며, 20년전인 1966년도의 12,819천톤에 비하면 2..1배가 증가한 것이다.

세 번째는 이월되는 석탄량과 비축량이 1988년도 들어 공히 10,000천톤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동년도까지 이월된 석탄 누적량은 10,450천톤이며 비축량은 10,774천톤에 달하였다. 이같이 이월되거나 혹은 비축되는 무연탄은 타 연료에 비하여 경쟁력이 상실한 상태에서는 국민경제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1980년대 후반기에 추진한 정부의 석탄사용 억제정책도 무연탄 수요 감소를 초래하는데 한 몫을 하였다. 정부는 1986년부터 가정용 주종 에너지인 연탄이 급격히 경쟁연료 특히 가스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미 국제의 유가의 안정으로 국내 석탄가격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민소득의 증가 및 대단위 아파트의 건설, 동시에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시행된 환경규제 등의 강화는 연탄의 입지를 악화시켰다.

1986년 4월에 정부는 연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일산화탄소, 중금속 오염을 낮추기 위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직할시급 이상 대도시의 학교, 병원, 관공서, 요식숙박업소,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지에서의 연탄사용을 금지시켰다. 나아가 1989년 12월에는 연탄사용 가구에 대하여 LNG 보일러설치를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2. 석탄정책_석탄산업법 개정으로 비경제 탄광 폐광

이같이 석탄산업이 타 연료에 비하여 경쟁력이 상실되고 이월되거나 비축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대적으로 석탄산업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것이 1985년 12월에 개정된 석탄산업법[2] 이다. 동법에서는 ①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정책방향, ② 석탄자원의 합리적개발에 관한 사항, ③ 석탄산업의 지원 · 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④ 광산보안 ·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⑤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동법에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설치하여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폐광지원대상 광산 정리, 폐광 대책비 지급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하였다. 동시에 폐광지역에 대하여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하며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을 지정하고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석탄 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공

2) 석탄산업법에 개정과 동시에 ① 석탄개발임시조치법, ②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③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이 폐지되었다.

자원부장관에게 당해 지역을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하여 사실상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알리는 석탄산업법이 된 것이다.

3. 정선군 대형 탄광_시설투자와 사원복지의 확대

가. 동원탄좌

동원탄좌는 1980년대 초에 진입하면서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한다. 동기간에 동원탄좌는 심부개발에 따른 시설을 본격화하는 등 시설투자에 집중한다. 1980년 9월에 심부집약운탄 기계화시설공사를 착공한 이후 82년 9월 Belt conveyor 시설, 대단위 사갱 건설, 운탄 기계화시설 등을 완공하고 수갱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982년 11월에는 대규모 종합 욕장을 준공하여 광원들의 후생시설을 대폭 개선하였다.

1983년 11월에 수갱 영구 철탑을 준공하였고 직영, 사외 총생산 2백만톤 달성으로 전국 생산의 10% 이상을 점유하게 된다. 1985년 12월에 중액 선탄시설을 완공하여 탄질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으며, 1986년에는 종합사무실도 완공하였다.

1987년에는 순수 직영생산 2백만톤을 돌파하였고, 여기에 조광 생산을 포함한 총 생산량은 3백만톤을 돌파하여 당시 전국 석탄 생산량 2천4백만톤의 13%에 육박하는 대규모 생산을 자랑하게 되었다.

한편, 7년여 동안 360억을 투입한 대공사 끝에 1988년 12월에 드디어 수갱 시설공사(총고도 765M, 650M지점서해저 115M까지)를 완공함으로써 1980년대 개발과 성장의 정점을 이루게 되며 잇따라 준공된 대규모 시설들을 기반으로 전국 생산의 12%대를 유지하는 대량생산을 지속하게 된다.

독일 기술진과 합작으로 건설된 수갱시설의 운반 용량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상징인 650갱의 대규모 수갱시설. 1983년 11월에 준공되었다

은 연간 기준으로 석탄운반 120만톤, 경석운반 80만톤 규모에 이른다. 동원탄좌는 198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에 종업원 복지시설에 투자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각 사택단지내에 복지회 구판장을 개설하고 목욕탕 시설도 확충하였으며 특히 사택에서 진일보한 주거시설인 13~15평형 종업원 아파트 594세대를 건립하여(직원아파트: 144세대, 복지아파트: 150세대, 광원아파트: 300세대) 광원들에게 새로운 주거 시

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1980년~1981년에 건립된 동원탄좌 직원 아파트는 사북은 물론 정선군에서 최초의 아파트였다.

나. 삼척탄좌

삼척탄좌는 1980년대에는 높은 생산성과 수준 높은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명실 상부한 국내 석탄산업의 리더로서 발돋움 할 야심 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다. 특히 1979년에는 정암광업소 종합 사무동을 준공하여 근로자들이 입갱에서부터 퇴갱에 이르기까지 한 장소에서 모든 준비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 1981년 5월에는 수직 갱도를 완공하여 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84년에는 국내 탄광 사상 최초로 제2수갱을 통기전용 수갱으로 준공하였으며, 7월에는 삼봉 사택단지 안에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회관을 준공했다. 삼봉 복지회관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그해 4월 새마을훈장 협동장 수훈시 함께 받은 대통령 특별지원금에 회사가 자체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것으로 구판장, 노인정 등이 설치되었다.

제1수갱을 완공한 삼척탄좌는 곧이어 제2수갱의 건설에 착수했다. 제2수갱은 제1수갱과 지하 채광 현장에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아울러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 1984년 12월 준공했다.

제2수갱은 내경이 5미터로 제1수갱에 비해 1미터 작게 건설되었고, 수갱의 깊이는 832레벨에서 시작해 250레벨에 이르는 총 542미터였다. 또 1분당 5,000㎥의 공기를 흡입할

삼척탄좌는 1981년 5월 21알에 숙원사업인 제1수갱시설을 완공하여 본격적인 심부탄광개발시대를 열였다.

동발을 나르는 모습_두개는 짊어져야 한다

수 있는 500마력짜리 대형 통풍기 2대를 설치하였다. 한 탄광에서 통기용 수갱까지 건설한 경우는 국내 탄광개발사상 최초의 일이었는데, 삼척탄좌는 제2수갱 건설에 총 30억원을 투입했다. 제2수갱 건설로 인해 지하작업 현장의 공기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작업 능률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1989년 5월에는 중액 선탄장을 건설하여 채탄 탄질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중액 선탄장은 채탄하여 집하된 원탄 중에 혼합되어 있는 경석을 비중의 차이에 의해 선별하는 장치로서 시간당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총량을 갖추었으며, 이로 인해 원탄 1Kg당 약 100Kcal의 열량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중액 선탄장 건설은 채탄지역의 심부화와 탄질의 저하가 심각해짐에 따라 석탄의 주 수요처인 연탄공장에서 저질탄 파동이 일어나는 등의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 탄광의 현실은 채탄지역의 심부화로 인해 높은 열량의 원탄은 점차 고갈되고 탄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으므로 정부는 석탄수입을 허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다시 탄광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삼척탄좌는 원탄의 선별작업을 기계화, 과학화함으로써 저질탄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중액 선탄장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종업원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삼척탄좌는 1980년대에 지속적으로는 못했으나 나름대로 착실한 성장을 보일 수 있었다. 1980년에 222억원 매출에 순이익 3억원 수준이던 경영실적이 역대 최고 생산실적을 시현한 1986년에는 550억원 매출에 8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여, 매출액은 148.8%, 순이익은 125.4%의 신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1987년에는 전국적인 노사 분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삼척탄좌 역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없었는데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54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순이익은 19% 감소한 6억원을 기록했다.

삼척탄좌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에 전력하여 사고율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1986년에는 삼척탄좌 역대 최고 생산실적을 기록하는 등 1980년대에 명실 상부한 국내 최고의 민영탄광으로 발돋움했다.

4. 산탄 메카 정선군_전국 최대 생산군의 빛과 그림자

198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는 우리나라 석탄산업에서 전환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양 기간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1980년대 전반기는 1970년대에 발생한 1, 2차 석유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석탄 증산정책을 유지를 하였다.

반면에 1980년대 후반기는 86 아시안 게임 및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동안 증가 일로에 있던 석탄 생산에 제동이 걸리고 석탄산업 구조조정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석탄생산은 1980년대 후반기들어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생산량이 감소세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양대 국제스포츠 제전은 우리나라 석탄산업은 사양화를 결정짓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석탄생산량은 1988년 올림픽 해에 24,295천톤을 생산하여 역대 최고를 생산하였는데, 바로 다음 해인 1989년에는 20,785천톤으로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1년 동안에 무려 3,510천톤으로 감소율은 16%에 달하였다.

동기간 강원도 전체의 석탄 감소량은 84천톤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지역별로는 큰 편차를 보였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0월 5일에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650갱에 입갱하여 근로자들을 위로하였다.

이 중에서 정선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상당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정선군은 1986년도에 6,848천톤으로 역내 최고 생산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더니, 1989년도에는 5,554천톤을 생산하여 1986년도 최고 생산량에 비하여 1,294천톤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약 20%에 달하는 감소율은 보인 것이다. 동시에 1989년도 생산량도 1988년도 비하여 무려 957천톤을 적게 생산되었으며 생산 감소율은 15%에 달한다.

1980년대 후반기인 1985-1989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면에서 강원도 전체는 1.1%로 미진한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은 반대로 2.9%의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즉, 우리나라 석탄 증산 시기에 최고의 석탄 생산량을 보인 정선군이 석탄 침체기에는 오히려 가장 많은 석탄 감소량을 보인 것이다. 먼저 1980년대 전반기 우리나라의 석탄 생산은 1970년대와 같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이룩하여 왔다.

1980년대 정선군과 강원도 타시군의 석탄 생산량 추이(천톤)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정 선 군	4,785	5,167	5,274	5,844	6,079	6,423	6,750	6,617	6,512	5,554
동 해 시	-	-	-	-	-	-	18	17	17	1
태 백 시	-	5,996	6,051	5,806	6,130	6,233	6,763	6,398	6,436	5,438
영 월 군	482	611	671	347	742	1,043	1,184	1,042	947	482
평 창 군	33	57	117	109	113	88	115	151	102	103
명 주 군	457	584	890	890	886	934	1,003	1,135	1,137	881
삼 척 군	7,547	1,751	1,767	1,785	1,893	2,050	2187	2,456	2,591	2,577
합 계	13,304	12,591	14,770	14,781	15,844	16,771	18,020	17,816	17,741	15,037
정선군 점유율	36.0%	36.5%	35.7%	39.5%	38.4%	38.3%	37.5%	37.1%	36.7%	36.9%

자료: 강원통계연보(각년도),강원도/정선통계연보(각년도),정선군

1980년대 정선군내 대단위 탄좌들의 석탄 생산량(천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우전탄좌	합 계	3개 탄좌의 민영 비중
1980	1,588	1,256	140	2,984	21.6%
1981	1,768	1,359	147	3,274	21.9%
1982	1,479	1,383	79	2,941	19.5%
1983	1,479	1,382	69	2,930	19.5%
1984	1,704	1,463	86	3,253	19.8%
1985	1,909	1,501	92	3,502	20.0%
1986	1,980	1,569	76	3,625	19.0%
1987	2,000	1,445	63	3,508	18.4%
1988	1,961	1,487	87	3,535	18.5%
1989	2,002	1,247	93	3,342	21.1%
80-85	3.8%	3.6%	-8.1%	3.3%	-
80-85	1.0%	-3.6%	0.2%	-0.9%	-
80-85	2.6%	-0.1%	-4.4%	1.3%	-

우리나라의 석탄 생산량은 1980년에 18,624천톤에서 1985년에는 22,542천톤으로 20%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3.9%에 이르는 만큼 견실한 증가를 이루어 왔다. 동기간 우라나라 석탄 생산에서 크게 기여한 지역은 전국의 석탄 산지인 강원도이며, 이 중 전국 석탄생산 메카로 불리운 정선군임에 두말할 나위도 없다.

동 기간 강원도는 우리나라 석탄생산 중에서 70% 이상을 점하는 등 여전히 한국의 석탄산지로 자리를 굳건히 지켜 왔다. 강원도의 석탄생산은 1980년에 13,304천톤에서 1985년에는 22,542천톤으로 무려 26%나 증가하였고, 이는 동기간 우리나라 석탄 생산 증가율 3.9% 보다 1%포인트나 높은 4.7%에 달하여 높은 성장을 구가한 것이다.

강원도에서도 민영탄광의 메카인 정선군의 석탄 생산량도 타 군에 비하여 매우 높게 증가하여 왔다. 정선군의 1980년대 전반기 석탄 생산량은 강원도의 전체 생산 증가율과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하여 왔는데, 1980년에 5,058천톤에서 1985년에는 6,419천톤을 생산하여 5년 동안에 27%가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면에서 4.9%에 달하여 강원도 전체 생산 증가율을 넘어 섰다.

1980년대에 정선군이 강원도의 전체 석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을 점하여 왔으며, 특히 1983년도에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비중을 점하여 마침내 정선군은 강원도의 석탄 전체 생산 시·군 중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군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 명실 공히 전국 제일의 석탄생산지로 자리 매김한다.

이후에 1980년대 후반기 내내 정선군은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강원도 산탄시·군에서도 수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태백시가 수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5. 대형 민영 탄좌_80년대 전국 석탄 생산을 주도

정선군에 위치한 동원탄좌 삼척탄좌 및 우전탄좌 등은 1980년대 조중반에 대대적인 시설 현대화와 확충을 통하여 민영탄광의 석탄생산량을 주도하여 나갔다.

이 중에서 국내 최대 민영탄광의 쌍두마차인 동원탄좌 시북광업소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1980년대 전반기에 석탄생산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1980년대 후반기인 1988년은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해인 동시에 우리나라 역대 석탄생산에서 최고를 기록한 24,295천톤을 달성한 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후 우리나라 석탄 생산은 수요부문에서 급격한 구조변화(석탄보다 고급에너지인 석유, LPG, 도시가스 전력 등의 높은 증가)로 인하여 석탄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이는 석탄생산 감소로 이어졌다. 이같이 석탄의 급격한 감소는 1980년대를 넘기지 못하고 1989년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정선군 내 상당수가 모여 있는 영세 및 하청 탄광은 물론이거니와 독립계 중견 탄광까지도 폐광을 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양대 탄좌는 1980-1985년 기간동안 석탄 생산 증가율이 4%에 육박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증산 경쟁을 벌여 나갔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석탄생산은 1980년에 1,588천톤에서 1985년에는 1,909천톤으로 321천톤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20%에 달하였고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도 1980년에 1256천톤에서 1985년에는 1501천톤으로 245천톤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20%에 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들어 양대 탄좌는 갈림길에 놓이는 바, 동원탄좌는 미약하나마 생산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에 삼척탄좌는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즉, 동원탄좌는 1980년대 후반기에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이룩하더니, 마침내 1987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2,000천톤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다. 이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1974년도 연간 1,000천톤을 생산한 이래 13년만에 2배로 성장한 것이다.

삼척탄좌도 1986년도에 1,569천톤을 생산하여 역대 최대치를 생산하였으나, 이후 그 이상을 생산하지는 못하고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특히, 삼척탄좌는 1980년대 후반기에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하는데 1989년도 생산량이 1,247천톤으로 역대 최대 생산량을 보인 3년전의 1986년도 1,569천톤에 비하여 322천톤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21%에 달하였다.

한편, 정선군에서 1964년도 유수의 탄좌들과 설립을 함께한 우전탄좌는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생산을 지속하여 왔으나 상기 양대 탄전에 비하면 생산량은 매우 적었다. 우전탄좌는 70~80년대에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였다.

6. 대한석탄공사의 함백광업소과 나전광업소_후반기 감소세

정선군에 대한석탄공사의 직할 광업소인 함백광업소와 나전광업소의 석탄 생산량은 1980년대에 전반기와 후반기로 대별된다.

1980년대 전반기에 대한석탄공사의 석탄 생산량은 연평균 증가율이 1.1%로 미진한 증가를 이루었다. 즉 1980년도 석공의 전체 생산량은 4,786천톤에서 1985년에는 5,056천톤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중에서 정선군 신동읍에 위치하고 있는 함백광업소의 생산량은 1980년에 650천톤에서 1985년에 630천톤으로 20천톤이 감소되었다. 반면에 1974년에 함백광업소 나전지소에서 승격하여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 나전광업소는 생산이 높게 증가하였는데, 1980년 183천톤에서 1985년에 216천톤으로 무려 33천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양 광업소가 석탄공사 전체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왔다.

1980년도의 양 광업소의 석탄공사 전체 생산량 비중은 17.45%에서 1985년에는 16.5%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1980년대 내내 지속되었다.

1980년대 함백광업소와 나전광업소의 석탄 생산량(천톤)

	석공생산량	함백광업소	나전광업소	합계	점유율
1980	4,786	650	183	833	17.4%
1981	4,883	658	220	878	18.0%
1982	5,006	653	233	886	17.7%
1983	4,863	627	211	838	17.2%
1984	4,953	617	210	827	16.7%
1985	5,056	620	216	836	16.5%
1986	5,218	630	220	850	16.3%
1987	5,178	625	218	843	16.3%
1988	5,222	590	175	765	14.6%
1989	4,953	556	145	701	14.2%
80-85	1.1%	-0.9%	3.4%	0.1%	-
85-89	-0.4%	-2.2%	-7.7%	-3.5%	-
80-89	0.4%	-1.7%	-2.6%	-1.9%	-

1980년대 후반기 들어 대한석탄공사의 전체 석탄 생산량은 미진하나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즉, 석공의 석탄 생산량은 1985년에 5,056천톤에서 1989년에는 4,953천톤으로 103천톤이 감소한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 들어 감소분이 상당분이 함백광업소와 나전광업소에서 기인하고 있다.

함백광업소의 생산량은 1989년도에 566천톤으로 1980년대비 84천톤이 감소하였고 1985년와 비교해서는 54천톤이 감소하는 것이다. 동시에 나전광업소의 생산량은 1989년에 145천톤으로 1980년대비 38천톤이 감소하는 것이며, 1985년와 비교해서는 무려 71천톤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33%에 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1980년대를 관통하면서 대한석탄공사의 석탄 생산량은 정체상태에 머물러있으며 1980년대 후반들어 함백광업소와 나전광업소는 기타 다른 직할 광업소에 비하여 생산량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

7. 독립계 중소탄광_하락세로 반전

1980년대 들어 정선군 내 연간 10만톤 이상의 독립계 중견 탄광들도 사정은 다르나 공통된 점은 석탄 생산량이 나날이 감소를 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정선군 고한읍에 위치한 세원탄광(구, 동고탄광)은 정선군내에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삼척탄좌 정암광

나전광업소는 1983년에 동서부 전차갱을 개통하였다

업소, 그리고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 이어 제 4위를 자랑하는 대형 중견 탄광업체이다. 태백선 고한역에서 4 km 지점에 위치하며 광구면적은 819ha에 이른다. 1974~1976년에는 연간 4,000천톤을 생산하는 등 197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하였으나, 1980년대 진입하면서 석탄 생산량이 급감을 보여 왔다. 특히, 1980년대 후반기에는 5년 사이에 8.9%가 간소하여 사세가 급격히 위축되어 갔으며, 1989년도 석탄 생산량은 단지 104천톤에 불과하여 전성기의 1/4로 대폭 축소되었다.

정선군 남면에 위치한 자미원 탄광은 1989년도를 넘기기 못하고 당해 년도에 63천톤을 생산하고 폐광한 정선군의 중견 업체 중의 하나였다. 자미원 탄광은 1969년도에 45천톤을 생산하며 1985년에 역대 최대 생산량 164천톤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여 왔다.

고한읍에 위치한 경일탄광은 1976년도에 33천톤을 생산

1980년대 정선군내 독립계 중견탄광들의 석탄 생산량(천톤)

	세원탄광	자미원탄광	경일탄광	정동탄광	태영탄광	우성탄광
1980	233	131	177	228	173	127
1981	215	141	159	239	148	128
1982	161	111	135	185	123	125
1983	128	118	112	174	110	117
1984	112	135	118	173	113	111
1985	121	164	148	174	100	131
1986	129	143	194	171	110	148
1987	144	138	182	175	110	148
1988	122	135	158	177	105	130
1989	104	63	149	190	93	66
80-85	-12.3%	4.6%	-3.5%	-5.3%	-10.4%	0.6%
80-85	-3.0%	-17.4%	0.1%	1.8%	-1.4%	-12.8%
80-85	-8.6%	-7.8%	-1.9%	-2.0%	-6.7%	-7.0%

자료: 석탄통계연보(각년도),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하면서 생산량을 증대하다가 1979년에는 229천톤을 생산하여 세원탄광에 이어 정선군 5위 업체에 진입하였으나, 이후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989년도에 급기야 149천톤으로 급감하였다. 동 탄광은 1990년도에 42천톤 생산을 끝으로 폐광을 단행한다.

고한읍에 위치한 정동탄광은 1964년도에 79천톤을 생산하면서 발전을 거듭하다가 1981년에는 역대 최고 생산량인 239천톤을 생산하여 정선군 제 6위의 탄광이었으나, 이후 감소세가 지속하여 1989년도에는 190천톤으로 격감하였다. 정동탄광은 중견 탄광 중에서도 가장 늦게 폐광을 단행하였다.

8. 1989년 최초 폐광 단행_정선군내 21개 업체 폐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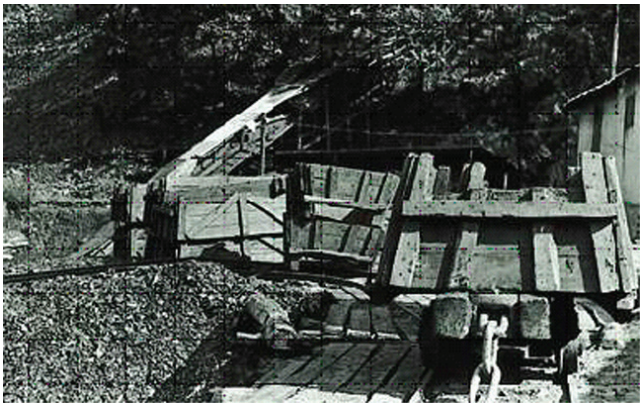
정부는 1989년도 최초로 폐광을 단행하였다. 석탄업계의 우려된 바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미 정부는 석탄산업법을 개정하면서 준비기간을 거쳐 1989년도에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을 동력자원부 제 89-3호(1989년 1월 27일)를 고시하여 폐광지원사업은 이윽고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1989년도 제1차 폐광지원 대상광산기준 고시에는 ① 1987년 채탄성과가 4,000미만인 탄광, ② 1987년도 전국채탄성과 평균(5,375)미만 탄광중 주가행심도가 300m이상인 탄광과 발전용 판매탄의 유황함량이 1.0% 이상인 탄광, ③ 1989년도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탄광 등이 폐광예비신청을 할수 있도록 고시된 것이다. 상기 고시 중에서 주가행심도를 300m로 하였는가는 기준은 탄광이 사갱으로 개발되고 있을 때, 300m까지는 1단 사갱으로 개발할수 있지만, 300m이상은 2단 사갱으로 개발해야 함으로 2단 사갱으로 인한 석탄 및 인원, 자재의 운반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여 300m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1989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1989년도 제1차 폐광 예비신청을 받았다. 예비신청에는 1987년도 전국 가행탄광 363개 중에서 112개 탄광이 신청을 하였고, 생산규모는 4,565천톤, 근로자수는 11,172명에 달하였다.

1989년도 한 해만 무려 전국의 130개 탄광업체가 문을 닫았다. 감축된 생산량은 4342천톤으로 우라나라 역대 최고 생산량을 기록한 1988년도 생산량 24,295천톤의 18%가 폐광된 것이다. 1989년도 한 해에 폐광으로 퇴직한 근로자수는 무려 11,075명에 이르렀다. 탄광업계에 공황이 불어 닥친 것이다. 당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1989년도 폐광지원 예산규모는 1,230천톤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예비신청 결과에 따르면 이를 훨씬 능가한 것이다.

그러나 1989년도 접수한 예비신청서에 따르면, 고시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탄광이 42개에 달하였으며, 이를 신청



석탄합리화사업추진은 영세 및 하청탄광이 몰려있는 정선군에 심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한 탄광업체들은 폐광대책비를 요구하였다.

이에 동력자원부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서둘러 1989년도 제2차 폐광지원 대상 광산기준을 1989년 4월 17일에 동력자원부 고시 제 89-12호를 고시하게 되었다.

이는 발전용탄의 유황함량이 1% 이상인 탄광은 채탄성과와 관계없이 폐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조광은 가채광량이 채진되었다는 기술사의 확인이 있으면 폐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간 생산량 12천톤 규모 미만이거나 혹은 평균탄질이 3,500Kcal/Kg 미만 탄광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탄력성이 있는 조항은 시장 및 군수가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경영악화를 인정할 때는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폐광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1989년도 폐광대상 수를 56개로 잡았으나 실제 실적은 130개 탄광으로 확대되었고, 생산규모도 당초 1,290천톤에서 실제로는 4,343천톤으로 3.53배가 증가하였으며, 근로자수는 당초계획에서는 5,089명이었으나 실제로는 2배에 달하는 10,047명으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 석탄생산량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의 폐광 현황은 실로 엄청났다. 강원도는 총 74개가 폐광되었는데 이는 전국 폐광 광산수 130개중의 60%에 달하는 것이다. 근로자수는 7,190명으로 전국의 퇴직 근로자중 65%에 달하는 것으로 강원도에 불어 닥친 폐광의 회오리는 실로 매서운 것이었다.

특히 정선군 고한읍과 사북읍 소재 폐광된 탄광수는 16개 업체에 근로자수는 1,688명, 생산량은 855천톤에 달하였다. 즉 전국적으로 볼때, 2개 읍에서 이같은 폐광을 이루어진 것은 다른 지역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폐광최초 년도인 1989년의 전국 폐광 현황

	지역	탄광수	생산량	근로자수
강원도	태백	16	656	2272
	도계	3	140	515
	영동	22	553	1119
	고한/사북(정선군)	16	855	1688
	정선/영월(정선군:5개)	17	655	1596
	강원도 계	74	2859	7190
기타도	충북	7	186	386
	충남	22	811	2213
	전남북	6	55	143
	경북	21	432	1143
	계	130	4343	11075

전적으로 탄광도시로 육성된 정선군의 사북읍과 고한읍에 위치한 이들은 주로 영세탄광들로 모광의 하청업체들이 대다수였다. 특히 사북읍과 고한읍은 다른 시·군과 달리, 전적으로 탄광도시였기 때문에 석탄말고는 다른 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이들에게 닥친 폐광으로 지역경제는 순식간에 위축되어 갔다.

정선지역에서 1989년에 폐광된 21개 업체 중에서 강당수가 사외도급(하청업체)라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이 중에서 동원탄좌는 사외도급(하청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으며 21개 폐·탄광 중에서 동원탄좌 하청업체가 9개를 차지하였다. 세원탄광의 하청업체가 4개에 달하였다.

특히, 정선군에서 하청업체들만 폐광을 단행한 것은 아니다. 정선군 석탄개발 초기부터 수십년간 독립적으로 살아남아 년간 10만톤 이상을 채굴한 독립계 중견규모의 탄광도 폐광을 단행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탄광이 묵산광업소와 자미원광업소이다.

묵산광업소는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1980년대 정선군의 강원도내 석탄 광구 비중

	구분	비중(%)
1981	가행	31.6%
	미가행	27.4%
	합계	30.2%
1982	가행	38.4%
	미가행	16.8%
	합계	28.5%
1983	가행	40.9%
	미가행	19.3%
	합계	29.0%
1984	가행	41.9%
	미가행	12.8%
	합계	27.8%
1985	가행	44.0%
	미가행	9.2%
	합계	28.6%
1986	가행	37.0%
	미가행	19.6%
	합계	26.9%
1987	가행	39.6%
	미가행	17.4%
	합계	27.0%
1988	가행	39.7%
	미가행	11.4%
	합계	28.5%
1989	가행	44.0%
	미가행	32.6%
	합계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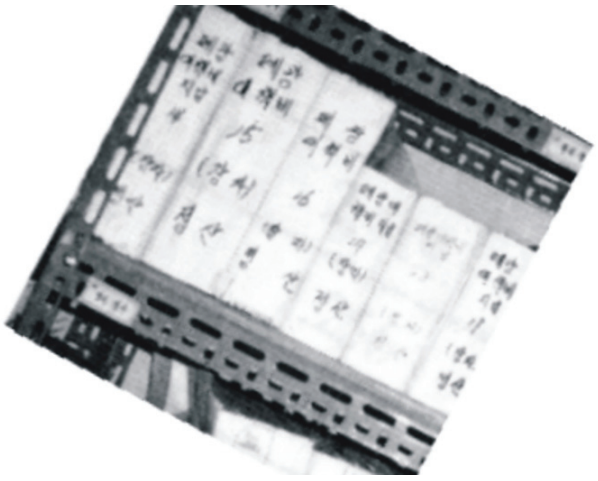
자료: 강원통계연보(각년도), 강원도청, 정선통계연보(각년도), 정선군

일찌기 1960년 3월 5일에 사업안을 인가하였고 1965년 1월 25일에 광업개발을 착수한 바 있으며, 1967년 12월 1일에 일시 개발 중지하였으나 1970년 5월 10일에 재개발 착수한 광산이다.

묵산광업소는 1985~1988년 동안 평균 연간 13~16만톤(종업원: 300~500명선)톤을 생산한 바 있으며 1989년도 폐광당시에는 3천톤을 생산하였고 종업원은 322명이었다. 묵산광업소의 광구면적은 2,037ha로 중소규모 탄광중에서 비교적 큰 탄광에 속하였다. 1989년 5월 16일에 정식으로 소멸되었다.

한편, 정선군 남면에 위치한 자미원광업소도 정선지역의 대표적인 독립계 중규모 탄광업체이다. 자미원광업소의 광구면적은 206ha에 달하였으며 생산량면에서 묵산광업소와 쌍벽을 이룰 만큼 중견업체로 1985~1988년도 생산량은 13~16만톤에 달하였으며 종업원수는 130~160명 선이었다. 1989년 폐광 당시 생산량은 63천톤이었으며 종업수는 278명이었다.

한편, 강원도에서 탄광수가 가장 많은 군은 역시 정선군이다. 이같은 현상은 1980년대를 관통하면서 이어져 왔으며, 이에 정선군이 민영탄광의 메카로 불리우게 된 것이다. 정선군은 강원도의 가행 및 미가행을 포함하여 전체 광구면에서 그 비중은 40%에 이를 때도 있었으며, 특히 폐광이 이루어진 최초년도인 1989년도에 무려 44%까지 올라갔다. 당시 강원도의 전체 광구수는 722개이었는데, 이 중 정선군의 광구수는 277개에 달한 것이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비치된 폐광신청서류

중요한 것은 정선군이 강원도의 타 시·군에 비하여 탄광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며 이는 석탄생산 증산시에는 정선군이 전국 제일의 민영탄광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한 비경제탄광 정리측면에서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특히, 정선군의 민영탄광은 전국 제일의 민영 최대 민영 탄광인 동원탄좌, 삼척탄좌를 비롯하여 중견 탄광인 세원탄광, 정동탄광, 묵산탄광, 자미원탄광, 태영탄광, 우성탄광과 이들의 사외도급(하청업체)들이 즐비하게 존재하고 있어 석탄 불황기에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정선군 남면 문곡리에 위치한 자미원광업소는 1968년도 45 천톤을 시작으로 1979년 134 천톤까지 생산한 중견 탄광이다. 이후 생산이 감소하여 1989년에 89 천톤 생산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1980년대 강원도의 시군별 석탄광구 분포 현황

		정선군	동해시	태백시	춘성군	홍천군	횡성군	원성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명주군	삼척군	합계
1989	합계	277	-	75	1	3	2	-	99	82	2	2	1	-	1	113	64	722
	가행	161	-	60	-	-	-	-	20	34	-	-	-	-	-	47	44	366
	미가행	116	-	15	1	3	2	-	79	48	2	2	1	-	1	66	20	356
1988	합계	208	4	77	1	3	2	-	116	116	2	-	1	-	1	128	72	731
	가행	175	1	63	-	-	-	-	52	33	-	-	-	-	-	69	48	441
	미가행	33	3	14	1	3	2	-	64	83	2	-	1	-	1	59	24	290
1987	합계	205	6	79	-	3	3	-	129	112	4	5	1	-	1	131	79	758
	가행	130	1	62	-	-	-	-	27	14	-	-	-	-	-	59	35	328
	미가행	75	5	17	-	3	3	-	102	98	4	5	1	-	1	72	44	430
1986	합계	204	6	77	-	3	3	1	121	115	4	5	1	-	1	131	85	757
	가행	118	2	57	-	-	-	-	30	20	-	-	-	-	-	53	39	319
	미가행	86	4	20	-	3	3	1	91	95	4	5	1	-	1	78	46	438
1985	합계	212	7	77	-	3	3	1	109	117	4	7	1	-	1	115	84	741
	가행	182	2	69	-	-	-	-	38	20	-	-	-	-	-	62	41	414
	미가행	30	5	8	-	3	3	1	71	97	4	7	1		1	53	43	327
1984	합계	228	7	80	-	3	3	1	108	132	6	8	3	2	2	137	100	820
	가행	177	-	60	-	-	-	-	62	14	-	-	-	-	-	67	42	422
	미가행	51	7	20	-	3	3	1	46	118	6	8	3	2	2	70	58	398
1983	합계	238	5	86	-	-	-	-	126	130	-	-	1	-	2	141	91	820
	가행	151	-	55	-	-	-	-	44	14	-	-	-	-	-	64	41	369
	미가행	87	5	31	-	-	-	-	82	116	-	-	1	-	2	77	50	451
1982	합계	232	5	87	-	-	-	-	133	126	-	-	1	-	2	141	88	815
	가행	169	-	81	-	-	-	-	63	36	-	-	-	-	-	66	25	440
	미가행	63	5	6	-	-	-	-	70	90	-	-	1	-	2	75	63	375
1981	합계	261	1	88	-	2	1	2	100	144	2	1	4	3	2	160	94	865
	가행	180	1	80	-	-	-	-	63	73	-	-	-	-	-	119	53	569
	미가행	81	-	8	-	2	1	2	37	71	2	1	4	3	2	41	41	296

자료: 강원통계연보(각년도), 강원도/정선군통계연보(각년도), 정선군

1989년도 정선군 소재 폐광업체 및 폐광대책비 지급내역

탄광명	대표자	소재지	생산량 (85-87년 연평균 생산량)	근로자수	폐광대책비(백만원)_지급기간은 1989-1993년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산림복구비 등	합계
묵산광업소	김지현	정선군 남면 무릉리	118,667	278	1307	480	287	2,074
자미원광업소	강명기	정선군 남면 문곡 3리	148,441	270	1,904	1,203	-	3,107
(동원) 삼왕	김유봉	정선군 사북읍 사북5리	198,882	316	1649	1,186	74	2909
(동원) 성동	신동철	정선군 고한읍 고한4리	108,842	166	846	882	89	1,817
(동원) 우신	김중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14리 6반	87,404	170	795	708	206	1,709
(동원) 영일	황재동	정선군 고한읍 고한21리	37,953	17	93	302	53	448
(동원) 광정	송진갑	영월군 상동읍 직동리	7,089	22	88	57	18	163
(동원) 경진	장필경	정선군 사북읍 사북 13리	45,400	86	500	368	33	901
(동원) 석흥	주명상	영월군 상동읍 구례2리	37,953	48	184	307	47	538
(동원) 우성	고원희	정선군 사북읍 사북6리	36,753	49	201	298	58	557
(동원) 동보	신동채	영월군 사북읍 사북6리	113,832	103	566	922	135	1,623
(세원) 동성	민병욱	정선군 고한읍 고한3리	34,423	108	567	279	155	1,001
(세원) 동산	이교충	정선군 고한읍 고한3리	10,813	29	96	88	43	227
(세원) 동진	김영길	정선군 고한읍 고한16리10반	21,369	40	209	173	27	409
(세원) 달성	윤달한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6	14,689	1	27	119	-	146
(우전) 대평	김정태	정선군 북면 구절리 305	20,211	38	174	164	147	485
(우전) 신대왕	손분래	정선군 북면 구절리	34,805	75	270	282	16	568
(삼탄) 서진	김정수	영월군 상동읍 구래16리	10,675	129	797	977	222	1,996
(정선) 태일	신태진	정선읍 봉양 9리 3반	16,400	43	133	133	39	305
(정동) 예광	김동혁	정선군 고한읍 고한 2리	39,733	75	319	322	-	641
(경일) 경산	이교충	정선군 고한읍 고한9리	50,485	118	438	409	362	1,208
합 계			1,194,819	2,181	11,163	9,659	2,011	22,832

자료: 석탄광폐광지원백서(1995-01), 석탄통계연보(199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86년 아시안게임은 정선군 석탄생산에서 최고를 달성한 해 6,848 천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우리나라 석탄생산에서 최고를 달성한 해 24,295 천톤 "

1988년 서울올림픽은 16일간에 걸쳐서 290만명의 관광객, 연시 청인원 1,047억명, 방영권 수입은 3억9천3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특히,1982년부터 1988년까지 4조7,504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및 4억4천만 달러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88년 올림픽은 우리나라 무연탄 산업을 조속이 정리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후반기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의 고속 성장으로 인하여 1인당 국민 소득의 향상으로 불편비용이 높은 연탄사용보다는 LPG, 도시가스 및 전력 등 한 차원 높은 고급 에너지로의 선호가 무엇보다도 큰 요인이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80-90년 기간에 매년 14.1%씩 높은 증가가 이루어 졌고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도 동기간에 매년 6.6%씩 증가하였다.

정책적으로는 1986년 4월에 정부는 연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일산화탄소, 중금속 오염을 낮추

기 위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직할시급 이상 대도시의 학교, 병원, 관공서, 요식 숙박업소,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단독 주택 및 아파트 등지에서의 연탄사용을 금지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선군이 무연탄 생산에서 최고를 달성한 해는 86년 아시안게임의 해였는데 당시 무연탄 생산량은 6,848 천톤이었고, 우리나라가 무연탄 생산에서 최고를 기록한 해는 88년 서울 올림픽의 해로 24,295 천톤을 기록하였다. 이후 정선군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무연탄 생산은 하락을 한다.

1980년대 후반기에 개최된 양대 국제 스포츠 제전이 정선군과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에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우연만의 일일까?

국민소득과 에너지소비(1차 에너지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	1인당 에너지소비 (TOE)
	1970	254	0.61
	1975	602	0.78
	1980	1,645	1.15
	1985	2,309	1.38
	1990	6,147	2.17
	1995	11,432	3.34
	2000	10,841	4.10
	2003	12,720	4.49
연평균 증가율	70-80	20.5%	6.6%
	80-90	14.1%	6.6%
	90-2003	5.8%	5.7%
	70-2003	12.6%	6.2%

참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시장가격 기준

제 4 절 구조 전환기의 90년대_폐광 완료와 석탄메카의 변신

1. 1990년대 에너지수급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구조는 고급에너지원 중심으로 재편된 시기이다. 동 기간은 석탄의 시대가 마감하고 1980년대 주종 에너지원인 석유도 1986년부터 도입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도시가스에게 자리를 내주는 시기이다.

지원 중심의 소비 형태를 반전시키지는 못하였다.

한편, 1990년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에너지소비는 1990년에 2.17TOE에서 증가를 거듭하였는데, 1995년에는 3.34TOE로 1.54배가 증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3.89TOE로 1.79배가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1990~1995년기간에는 8.9%가 증가하였으나, 1995~1999년에는 3.9%로 낮아졌으나 이는 IMF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

1990년대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공급 구조(천TOE)

	국민 총소득 (억$)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에너지소비국 (TOE)	총계 (천TOE)	석 탄			석 유				LNG	수 력	원자력	기 타
					합계	무연탄	유연탄	합계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1990	2,635	6,147	2.17	93,192	24,385	9,947	14,438	50,175	39,653	3,601	6,921	3,023	1,590	13,222	797
1991	3,076	7,105	2.39	103,619	24,535	8,144	16,391	59,627	45,773	4,339	9,515	3,503	1,263	14,078	614
1992	3,293	7,527	2.65	116,010	23,618	6,315	17,303	71,740	52,311	5,441	13,988	4,581	1,216	14,133	723
1993	3,614	8,177	2.87	126,879	25,882	5,058	20,824	78,495	57,139	5,990	15,366	5,723	1,502	14,535	742
1994	4,223	9,459	3.07	137,234	26,680	3,507	23,173	86,342	62,680	6,398	17,264	7,618	1,025	14,663	906
1995	5,155	11,432	3.34	150,437	28,092	2,953	25,139	93,955	68,949	6,675	18,331	9,213	1,369	16,757	1,051
1996	5,553	12,197	3.63	165,212	32,200	2,561	29,639	99,898	73,264	6,874	19,760	12,172	1,301	18,481	1,161
1997	5,136	11,176	3.93	180,638	34,799	1,989	32,810	109,080	74,144	7,201	27,735	14,792	1,351	19,272	1,344
1998	3404	7,355	3.58	165,932	36,039	2,207	33,832	90,582	53,952	6,877	29,753	13,838	1,525	22,422	1,526
1999	4400	9,438	3.89	181,363	38,156	2,425	35,731	97,270	59,007	7,808	30,455	16,849	1,517	25,766	1,806
90-95	14.4%	13.2%	8.9%	10.1%	2.9%	-21.6%	11.7%	13.4%	11.7%	13.1%	21.5%	25.0%	-2.9%	4.9%	5.7%
95-99	-3.9%	-4.7%	3.9%	4.8%	8.0%	-4.8%	9.2%	0.9%	-3.8%	4.0%	13.5%	16.3%	2.6%	11.4%	14.5%
90-99	5.9%	4.9%	6.7%	7.7%	5.1%	-14.5%	10.6%	7.6%	4.5%	9.0%	17.9%	21.0%	-0.5%	7.7%	9.5%

자료: 에너지통계연보(각년도).에너지경제연구원.국민소득은 시장가격기준임. 1인당 에너지소비는 1차에너지기준

먼저 국민소득증가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전반기는 1988년도 올림픽을 개최와 함께 국민 총생산이 높게 증가하여 1인당 국민소득은 크게 증가하는데 1990~199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은 매년 13.3%씩 증가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에 6,147$에서 1995년에는 11,432$로 최초로 1만$를 넘어서는 해이기도 하다.

물론 1998년도에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1만$ 이하로 하락은 하였지만, 이것이 고급 에너

적인 현상이었다.

반대로 무연탄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고, 나아가 이의 대체 에너지인 LPG와 가정용 도시가스 연료인 LNG의 소비증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즉, 무연탄의 소비감소는 1990~1995년 동안에 연평균으로 매년 21.6%씩 감소하였던 반면에 1980년대 가정용 주종 에너지인 등유 등 석유류는 11.7%가 증가하였으나 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은 가스류로 LPG는 13.1%, 그리고 천연가

1990년대 도시가스 보급추이

	1988	1990	1995	1996	1997	1998
수요가구 (천가구)	730	1,220	4,345	4,990	5,742	6,486
가구보급율(%)	6.9	10.8	31.9	35.0	38.9	43.7
공급물량 (백만㎥)	323	963	5,327	6,780	7,893	8,194
사업권역내 보급율(%)	11.1	16.0	39.2	40.9	45.6	49.0
공급회사 (개)	19	23	28	30	32	32

스는 무려 26.0%라는 경이적인 증가율은 이룩하였다.

1990년대 후반기들어 무연탄의 수요는 전반기보다는 감소세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평균적으로 매년 -4.8%씩 감소하였으며 전반기까지 증가한 석유류는 -3.8%씩 감소하였던 반면에 LPG는 4.0%가 증가하였다. 특히, LPG 증가율은 16.3%가 증가하였다, LNG의 증가는 1990년대를 관통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높게 증가한 에너지원이 되어 이미 가정용 연료는 도시가스로 대체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보급추이는 1988년에 730천 가구에 보급되어 전체 가구수 중 6.9%를 점하였으나 1995년에 4,345천 가구로 보급율이 31.9%로 급증하고 1998년에는 6,486천가구로 43.7%의 보급율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우리나라의 무연탄의 수급구조를 보다 세밀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미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석탄 생산량은 이미 1988년도에 최대 생산량 24,295

1990년대 우라나라의 무연탄 수급구조(천톤)

	공급부문				수요부문		
	생산량	이월량	수입량	합계	수요량	저탄량	합계
1990	17,217	10,817	958	28,992	20,979	8,013	28,992
1991	15,058	9,266	1,129	25,453	17,181	8,272	25,453
1992	11,970	8,432	330	20,732	13,007	7,725	20,732
1993	9,443	7,613	124	17,180	10,073	7,107	17,180
1994	7,438	6,978	232	14,648	6,925	7,723	14,648
1995	5,720	8,127	146	13,993	5,485	8,508	13,993
1996	4,951	8,461	27	13,439	4,502	8,937	13,439
1997	4,514	8,975	-	13,489	3,769	9,720	13,489
1998	4,361	9,750	-	14,111	3,842	10,269	14,111
1999	4,196	10,393	-	14,589	3,853	10,737	14,590
80-85	-19.8%	-5.6%	-31.4%	-13.6%	-23.5%	1.2%	-13.6%
85-89	-7.5%	6.3%	-	1.0%	-8.5%	6.0%	1.0%
80-89	-14.5%	-0.4%	-	-7.3%	-17.2%	3.3%	-7.3%

자료: 석탄통계연보(각년도),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천톤을 달성하고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1889년도 1단계로 전국의 비경제탄광 130개에 대하여 폐광을 실시한 이후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1990년도의 생산량은 17,217천톤이었고 1995년에는 5,720천톤을 기록하여 무려 67%가 감소하였다. 경제성이 있는 전국 11개 탄광을 장기 가행탄광으로 선정한 이후 생산감소세는 다소 줄어들어 1999년에는 4,196천톤을 시현하였다. 그리고, 무연탄 수입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더니, 1997년 이후 부터는 무연탄 수입은 중단되었다. 수요부문에서는 1986년도에 26,928천톤으로 최대 수요를 달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1990년대 들어 수요 감소세는 이어져 1990년에 20,979천톤에서 1995년에는 5,485천톤으로 10년도 안되어 무려 74%가 감소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단지 3,853천톤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동년도 생산량에 비하여 343천톤이 작은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연탄의 저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10,737천톤에 달하였다.

2. 1990년대 석탄정책_폐광과 개발의 병행 추진

정부는 1990년도에 들어 조기폐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을 보다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도 폐광기준을 4,500미만으로 상향하였고(1989년도 : 4.000미만), 1991년도 기준에서는 생산규모가 30천톤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넓혀 나갔다. 나아가 1992년 9월 7일에는 동력자원부 제2차 고시를 통하여 폐광지원사업 이후 광구 분리를 한 광산과 신규 생산 개시 탄광도 폐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1993년도 고사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모든 탄광이 폐광할 수 있도록 문호를 완전 개방하였으며 1995년도 제2차 고시에서는 1996년부터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석탄가격안

전지원금, 정부비축 및 발전소 납탄 배정 등 각종 정부지원을 통상산업부 장관이 선정한 장기 가행 탄광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예고하여 장기가행탄광이외에는 사실상 모든 탄광이 폐광의 대상이 된 것이다.

1989년도부터 1995년도 1단계 폐광을 단행한 결과를 보면, 전체 386개 탄광이 폐광을 신청하였으나 이 중에서 86.8%에 달하는 335개 탄광이 폐광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최종 선정 탄광의 생산규모는 14,435천톤(1988년도 생상량 기준), 근로자 수는 전체 33,448명에 달하였다.

많은 신문들은 1990년대초에 단행된 조기 폐광에 따른 사회혼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폐광대상 선정결과(1989년-1995년)

	폐광신청	선정탄광		제외탄광	
		선정	선정율	포기	제외
탄광수(개)	386	335	86.8	27	24
생산량(천톤)	15,924	14,435	90.6	807	682
근로자수(명)	38,084	33,448	87.8	2,598	2,038

자료: 사업단10년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그동안 폐광기준 고시에 따라 폐광된 폐광 사유를 분석하면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전체 334개 탄광 중에서 경영여건 악화(직권소멸 포함)로 인한 것이 100개(29.9%)로 가장 많고 채산성과 기준 미달 89개(26.6%), 조광기간 만료 32개(9.6%), 유황함량 1% 이상 25개(7.5%), 생산규모 기준미달 23개(6.9%) 순이다.

연도별 폐광지원광산 선정추이(1989년-1995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폐광신청 탄광수	141	55	50	61	40	21	18	386
선정탄광수	130	47	46	50	30	15	17	335
채택율(%)	92.2	85.5	92.0	82.0	75.0	71.4	94.4	86.8

자료: 사업단10년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규모별 폐광현황(1989년-1995년)

	폐광탄광수		생산감축량(천톤)		폐광근로자		감소광구	
	탄광수	점유율	생산량 (1988)	점유율	근로 자수	점유율	광구수	면적
30만톤이상	8	2.4%	4,140	28.7%	6,717	20.1%	115	18,098
10만톤이상	28	8.4%	4,150	28.7%	8,249	24.7%	140	22,279
5만톤이상	35	10.5%	2,250	15.6%	5,500	16.5%	98	13,435
3만톤이상	39	11.7%	1,503	10.4%	3,476	10.4%	81	11,710
3만톤미만	224	67.1%	2,392	16.6%	9,480	28.4%	376	57,930
합 계	334	100.0%	14,435	100.0%	33,422	100.0%	810	123,452

자료: 사업단10년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1997)

폐광된 폐광 사유별 폐광 현황(989년-1995년)

고시기준	탄광수	점유율	생산량(천톤) (1988년)	근로자수 (1988년)
채산성과 기준미달	89	26.6%	3,222	9,070
경영여건 악화(시장,군수인정)	70	21.0%	4,173	6,690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	32	9.6%	947	2,419
직권소멸(광업자 소재불명)	30	9.0%	2,372	5,575
생산규모 기준 미달	23	6.9%	265	605
유황함량 1% 이상	25	7.5%	1,157	2,358
가채광량 채진	15	4.5%	699	1,256
1989년이후 광구분리 신규생산 탄광	11	3.3%	-	1,227
주가행심도 300M이상	4	1.2%	798	2,322
1987년도 탄질 3,500 kcal 미만	2	0.6%	49	63
기타	33	9.9%	753	1,857
합계	334	100.0%	14,435	33,442

참고: 1) 고시상 채탄성과기준:1989년은 4,000, 1990-1991년은 4,500, 1992-1995년은6,000톤.
2) 고시상생산규모기준:1989-1990년은 12,000톤, 1991년은 30,000톤
자료: 사업단10년사,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1997)

한편, 생산규모별로 폐광현황을 분석하면, 3만톤 미만 탄광이 224개로 전체의 67.1%로 가장 많고, 3만톤 이상~5만톤 미만이 39개로 11.7%이며 5만톤 이상~10만톤 미만이 35개로 10.4%, 10만톤 이상~30만톤 미만이 28개로 8.4%였다. 그리고 30만톤 이상이 8개 탄광으로 2.4%였다. 이에 따라 5만톤 미만 탄광이 263개로 점유율이 78.8%에 달하여 영세탄광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실제 생산량 측면에서는 30만톤 이상 탄광이 4,140천톤으로 28.7%에 달하며 10만톤 이상~30만톤 미만이 4,150천톤으로 28.7%에 달하여 10만톤 이상 생산탄광이 36개로 전체 생산량의 57.4%에 달하였다. 이는 폐광된 탄광들이 업체수에서는 영세탄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생산량 면에서는 중규모 이상의 탄광이 상당수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경영형태별 폐광현황(1989년-1995년)

	폐광탄광수		생산감축량(천톤)		폐광근로자		감소광구	
	탄 광수	점유율	생산량 (1988)	점유율	근로자수	점유율	광구수	면적
모광	168	50.3%	9,574	66.3%	19,183	57%	521	95,380
조광	166	49.7%	4,861	33.7%	14,239	43%	289	28,072
계	334	100.0%	14,435	100.0%	33,422	100%	810	12,3452

자료: 사업단10년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1997)

경영형태별로 보면, 모광이 168개로 50.3%를 점하고 있으며 조광도 166개로 49.7% 점하고 비슷하다. 생산규모 면에서는 모광이 9,574천톤으로 66.3%이고 조광이 4,861천톤으로 33.7%를 차지하여 모광이 약 2배 정도 많다.

3.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개발

가. 추진경위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침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간의 국고지원에 의한 국부적인 기반시설 등을 가지고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폐광지역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폐광지역의 임야가 대부분 국유림이고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고원관광지 개발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제도로 인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법에 산림법 적용의 특례, 자연환경법 적용특례, 관광진흥법 적용특례, 각종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지원내용

지원	지방자치단체	민간개발자	지역주민 등
재정	▫국고보조금인상 지원 -20%인상 지원	▫창업자금 등의 융자 또는 보조지원 -통산부 고시 *간접시설 보조지원 ▫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지원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융자 또는 보조금 우선 및 상향지원 -지역주민 50%이상 출자 · 고용시 *간접시설 보조지원 ▪카지노업이익회수금에 의한 별도지원 대책 가능
기타	▫지방채권발행으 로 재원확보 ▪카지노이익회수 금에 의한 개발사 업지원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도입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시 반영 ▪지방세 감면 -취득세 등(강원도)	▫공익부문배당액 소액주주에 특별배당 -1/100미만주식 소유자 ▫이주대책 -생활근거 상실자 ▫우선고용 -지자체장우선고용조치 ▪우선구매 -농 · 축산물 등

다.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정부는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현황 (㎢)

전체면적		폐광지역진흥지구		
시·군	면적 (A)	지 역	면적 (B)	B/A (%)
정선군	1,221.3	고한읍 : 사북읍전역 신동읍 : 방제리, 조동리·예미리 일부 남 면 : 문곡리, 무릉리 일부 정선읍 : 봉양리, 애산리, 신월리, 여탄리, 덕우리, 회동리, 덕송리, 북실리 북 면 : 여량리, 구절리 북평면 : 나전리, 북평리 동 면 : 화암리, 몰운리	151.3	12.4
태백시	303.1	황지동, 상장동, 장성동, 화광동, 철암동, 연화동, 동점동, 문곡동, 소도동화전동, 사조동, 계산동	191	63
삼척시	1,185.8	도계읍(164.8) : 고사리, 늑구리, 마교리, 도계리, 상덕리, 황조리, 전두리, 흥전리, 심포리, 구사리, 신리	95.4	8.0
영월군	1,127.3	영월읍 : 영흥리, 하송리, 덕포리, 방절리, 정양리, 삼옥리, 거운리 중동면 : 화원리, 녹전리, 석항리, 연상리 하동면 : 진별리, 대야리, 예밀리, 주문리, 옥동리, 와룡리, 내리 북 면 : 문곡리, 마차리 남 면 : 북쌍리 서 면 : 우정리, 신천리 상동읍 : 덕구리, 내덕리, 구래리, 천평리	240.7	21.4

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비 계획(1977-2005)(억원)

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민 자
		소 계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문광부		
관광사업	42,958	522	393	-	-	-	129	900	41,536
지역특화	5,261	248	66	-	173	-	9	103	4,910
기반시설	14,052	8,333	5,142	1,951	496	744	-	4,266	1,453
계	62,271	9,103	5,601	1,951	669	744	138	5,269	47,899

을 제정하고, 1996년 4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8월에는 특별법령에 의거하여 강원도의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시군 전체면적의 17.7%에 해당하는 678.4㎢와 경상북도 문경시 면적의 13.8%에 해당하는 125.9㎢를 신청에 의해 지정고시하였다.

또한, 1996년 8월에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산업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으로써 고용촉진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체산업 사업장과 연결도로망 구축 및 시가지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라.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지원

정부는 개정된 석탄산업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탄광지역진흥 5개년계획(1992-1997)을 마무리하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1997-2005)을 추진하였으며 총기간 동안 총투자액은 무려 62,272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법에서는 국비가 15%에 달하는 9,103억원, 지방비가 8%에 달하는 5,269억원, 나머지 77%인 47,899억원은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추진은 크게 관광사업,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사업으로 추진되며 관광사업이 총투자액의 69%에 달하는 42,958억원, 지역특화사업이 8%에 달하는 5,261억원, 그리고 기반시설사업이 약 23%에 달하는 14,052억원이다.

민자의 대부분을 관광사업에 투자하고 국비와 지방비는 대부분이 지역특화사업과 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었다. 한편, 1998년 12월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진흥지구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97~2005까지 강원도, 경북, 충남, 전남의 4개 지자체에서 총 216개 사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 세부개발계획(억원)

	사 업 명	계	국비						지방비	민자
			소계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문광부		
	강 원 도(107)	43,125	5,737	4,213	1,223	87	214	-	2,857	34,531
정선	관광사업(5)	13,518	-	-	-	-	-	-	8	13,510
	지역특화(3)	2,992	33	-	-	33	-	-	1	2,958
	기반시설(18)	3,913	2,167	1,751	331	-	85	-	950	796
태백	관광사업(15)	9,271	73	73	-	-	-	-	315	8,883
	지역특화(7)	540	17	-	-	17	-	-	12	511
	기반시설(15)	2,658	1,522	1,216	293	-	13	-	623	513
삼척	관광사업(2)	1,669	-	-	-	-	-	-	-	1,669
	지역특화(5)	553	20	-	-	20	-	-	5	528
	기반시설(11)	1,434	903	649	191	-	63	-	436	95
영월	관광사업(7)	4,636	-	-	-	-	-	-	-	4,636
	지역특화(7)	464	17	-	-	17	-	-	19	428
	기반시설(12)	1,477	985	524	408	-	53	-	488	4
소계	관광사업(29)	29,094	73	73	-	-	-	-	323	28,698
	지역특화(22)	4,549	87	-	-	87	-	-	37	4,425
	기반시설(56)	9,482	5,577	4,140	1,223	-	214	-	2,497	1,408

(주)강원랜드의 주주 구성(백만원, %)

구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강원도 개발공사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민간계	총계
출자액	38,520	7,062	5,243	1,337.5	1,337.5	1,070	52430	107,000
지분율	36.010	6.602	4.902	1.250	1.250	1.000	48.986	100.000

업에 총투자비(민자포함)는 63,147억원이다.

4개 지자체의 추진사업을 보면, 강원도의 총투자비는 43,125억원으로 4개 지자체 총투자비의 68.3%를 차지하며 경북은 26.6%(16,774억원), 충남은 3.8%(2,372억원), 전남은 1.3%(800억원)이다.

전체 사업수에서도 강원도가 108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수 216개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북이 56개 사업으로 25.8%, 충남과 전남은 각각 30개, 26개 사업으로 비중은 13.8%, 10.6%이다.

국비는 총 9,703억원이 지원되는데, 국비 배분율에서 강원도는 5,813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지원액중 59.9%를 차지하며, 경북이 2,259억원으로 23.3%, 충남이 1,107억원을 11.4%, 전남이 524억원으로 5.4%이다. 한편, 민자를 통한 총투자액은 48,103억원으로 이중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71.8%로 34,531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 SOC 등 기반시설확충사업 중심으로 전체 90개 사업에 대하여 1997-2005년 까지 5,9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강원도에 4,289억원으로 72.5%, 경북에 800억원으로 13.5%, 충남에 588억원으로 9.9%, 전남에 237억원으로 4.0%이다.

이를 각 지자체별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사업체별로 나누어 보면, 강원도가 40개 사업에 1개 사업당 평균 지원액은 107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경북이 21개 사업에 1개 사업당 평균 지원액이 38억원, 충남이 18개 사업에 1개 사업당 지원액이 337억원, 전남이 11개 사업에 1개 사업당 평균 지원액이 22억원이다. 이에 따라 1개 사업당 지원액수는 강원도가 가장 크다.

마. 정선군의 내국인 카지노 유치

정부는 석탄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제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건설을 허용하였다.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1998년 6월에 정부와 강원도가 510억원을 출자하여 카지노 사업의 운영주체인 (주)강원랜드를 설립하였으며, 아울러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1999년 7월 6일부터 7월8일까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지분 49%에 대한 주식을 공모하였다. (주)강원랜드는 '99년 6월 29일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당초 자본금 구성은 다음과 같다.

4. 한국 석탄 메카_정선군 석탄산업의 퇴조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쇠퇴의 길을 보다 가속화한다. 이에 따라 전국 석탄 생산지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전국 민영 산탄지의 메카인 정선군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폐광에 따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1990년 석탄 생산량은 17,217천톤에서 1995년에는 5,718천톤으로 무려 11,499천톤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67%에 달하였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20%씩 감소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전국 석탄의 대다수를 공급하는 강원도의 석탄생산량은 12,258천톤에서 1995년에는 4,909천톤으로 무려 7,449천톤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5년동안에 무려 60%가 감소한 것이다, 동기간 감소한 우리나라 전체 감소량 중에서 절반이 강원도가 담당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전국의 석탄 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에서도 강원도의 석탄 생산비중은 증가하여 왔다는 것이다. 강원도의 석탄비중은 1990년에 71.2%에서 1995년에는 85.9%로 증가하여 왔는데, 이는 강원도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폐광이 보다 가속화되어 왔다는 것 보다는 강원도내에 대형탄광 등이 살아남아 발생한 것이다. 중소규모 탄광의 폐광은 강원도나 여타 지역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한편, 1990년대 전반기 정선군의 석탄 감소량도 상당하였는데, 1990년도 생산량이 4,808천톤에서 1995년에는 1,576천톤으로 5년 동안에 3,232천톤이 감소하여 감축율은 67%에 달하여 가히 공황에 가까운 것이다. 이는 5년 동안 매년 20%가 감소하는 것이다.

특히, 1990-1995년 동안 정선군의 석탄 생산 감소량은 전국 석탄생산 감축량의 28.1%(3,232천톤/ 11,499천톤=28.1%)에 해당하는 것이며 강원도 전체의 생산 감축량의 43.9%(3,232천톤/ 7,349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정선군의 석탄 생산량 감축은 다른 시·군보다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1990년대 전반기에 정선군의 석탄 생산비중은 전국적인 대비에서는 27-30%를 유지하였으나 강원도내에서는 감소하

1990년대 정선군과 강원도 타시군의 석탄 생산량 추이(천톤)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정 선 군	4,802	4,040	3,475	3,000	2,119	1,576	1,280	1,095	940	906
원 주 시	-	-	-	-	-	12	-	-	-	-
태 백 시	4,531	4,179	3,586	2,665	2,095	1,710	1,530	1,358	1,267	1,237
삼 척 시	-	-	-	-	-	1,529	1,458	1,427	1,460	1,434
영 월 군	151	133	110	96	84	77	49	39	39	38
평 창 군	46	48	59	10	4	5	-	-	-	-
명 주 군	499	439	136	93	65	-	-	-	-	-
삼 척 군	2,229	2,041	1,944	1,812	1,725	-	-	-	-	-
합 계	10,029	10,879	9,309	7,676	6,092	4,909	4,317	3,919	3,706	3,615
정선군 비중	47.9%	37.1%	37.3%	39.1%	34.8%	32.1%	29.7%	27.9%	25.4%	25.1%

여왔으며, 이에 1990년에 강원도 석탄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2%에서 1995년에는 32.1%로 하락을 하였다.

1990년 후반기도 전반기에 이어 전국의 석탄 생산량은 감소를 지속하여 왔으나 단지 그 감소량이 전반기보다는 약간은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전국의 비경제탄광 정리사업을 1995년까지 완료하였기 나타난 현상이다.

1990년 후반기 들어 우리나라 석탄 생산량은 1995년에 5,718천톤에서 1999년에는 4,197천톤으로 1,521천톤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26.6%에 달한다. 물론 이는 1990년대 전반기의 67% 감소율에 비하면 양호하나 여전히 석탄산업의 경쟁력 상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전체의 생산량 감소도 우리나라 전체 생산 감축량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강원도의 1999년도 석탄 생산량은 3,615천톤인데 이는 1995년도의 4,909천톤에 비하여 1,294천톤이 감소하는 것이며, 감소율은 26.4%에 달하는 것으로 동기간 전국의 석탄 생산 감축량의 85%(1,294천톤/ 1,511천톤)를 점하여 주 감축지역은 강원도임을 알수 있다. 이는 이미 다른 산탄지에서는 이전에 폐광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1990년대 후반기의 석탄 생산 감축은 주로 강원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강원도의 전국 석탄 생산량 비중에서 1995년에 85.9%에서 1999년에는 86.1%로 증가하여 왔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기들어 정선군 석탄생산은 전국 및 강원도 기타지역보다 감축 속도가 가속화되어 왔다. 즉, 정선군의 1999년도 석탄 생산량은 906천톤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1995년도의 1,576천톤에 비하면 무려 670천톤가 감소하는 것으로 단지 5년 동안에 42.5%가 감소하여 전국의 산탄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다. 동시에 이는 동기간에 전국의 석탄 생산 감축량의 44%(670천톤/ 1,511천톤), 강원도 전체 생산 감축량의 51.7%((670천톤/ 1,294천톤)에 해당하는 것이다.

5. 정선군 대형탄광_95년이후 최대 민영탄광 지위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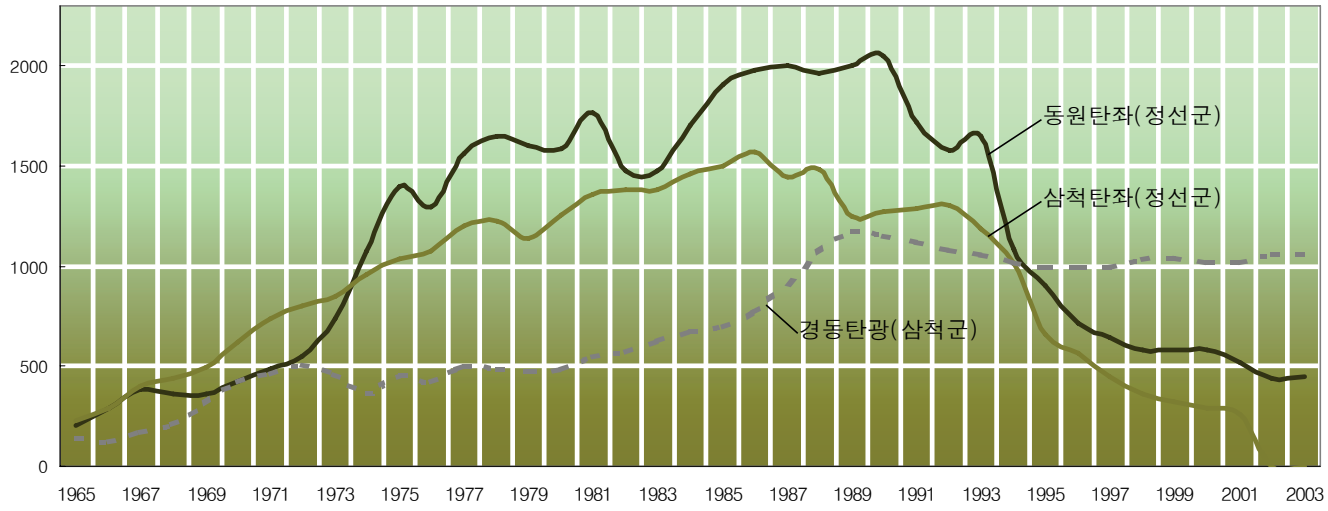
정부는 비경제 중·소탄광들에 대하여 1995년까지 폐광을 사실상 완료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석탄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5년간(1995~1999)을 수급조정기간으로 정하여 중·장기적으로 탄광별 부존여건과 시설규모, 수요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2000년 이후의 적정 석탄생산 규모를 전년도 생산 수준으로 설정하고 비교적 경제성이 양호한 석공의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 화순광업소와 동원탄좌, 삼척탄좌, 경동탄광, 한보탄광 등 4대 탄광을 비롯하여 태백탄광, 마로탄광, 태서탄광, 영월탄광 등 전체 11개 탄광을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 관리하는 방침을 세웠다.

장기가행 탄광 중에는 정선군 내 2개, 대단위 민영탄좌인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나란히 장기 가행탄광으로 선정되었다. 1994년 당시 11개 관리탄광들의 전체 생산량은 7,438천톤에 달하였다.

1990년대 들어 1964년도 설립이래 줄곧 전국 최대 민영탄광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정선군이 전국 산탄지의 메카로 이룩하게 만든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석탄생산은 지속적 하락세를 기록하여 왔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1990년도 생산량은 2,051천톤이었는데, 1995년에는 903천톤으로 급격히 갑소하여 감소폭은 1,148천톤으로 감소율은 56%에 이른 것이다. 특히, 1990년도의 2,051천톤은 사북광업소가 설립된 이후 역대 최고 생산량을 기록한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후 5년만에 1,000천톤 이하로 감소하여 2,000천톤 기록 달성이 무의미해졌다. 사북광업소는 최초로 1986년에 2,000천톤을 달성하였고, 1988년에 2,002천톤에 이어 1995년에 최고 생산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1995년 이후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산하여 1999년에는 582천톤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1995년 대비 321천톤이 감소한 것으로 감축율은 35.5%에 달하였다. 동

1990년대 대형탄광들의 석탄 생산량 역전 : 1995년부터 경동탄광이 최대 민영탄광으로 부상하였다



년도 생산량은 1990년에 비하여 단지 28%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1990년도 관통하면서 매년 13%씩 석탄생산이 감소를 하여 온 것이다.

1990년대 동원탄좌와 삼척탄좌의 석탄생산량(천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합계	민영비중
1990	2,051	1,275	3,326	25.1%
1991	1,716	1,284	3,000	26.8%
1992	1,577	1,300	2,877	34.5%
1993	1,651	1,184	2,835	44.5%
1994	1,087	1,016	2,103	43.6%
1995	903	663	1,566	41.8%
1996	716	564	1,280	40.3%
1997	645	451	1,096	37.6%
1998	580	360	940	33.7%
1999	582	324	906	33.3%
연평균증가율(90-95)	-15.1%	-12.3%	-14.0%	
연평균증가율(95-99)	-8.4%	-13.3%	-10.4%	
연평균증가율(90-99)	-13.1%	-14.1%	-13.5%	

한편, 전국 제 2의 민영탄광인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정암광업소는 1990년 생산량이 1,275천톤이었으나 점진적으로 감소하더니 1995년에는 663천톤으로 512천톤이 감소하여 감축율이 44%에 달하여 매년 14%씩 감소되어 왔다. 또한 1999년도 생산량은 324천톤으로 1995년대비 339천톤이 감소하여 51%가 감소하였다.

정선군 내 양대 광업소가 급격한 생산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전국 민영탄광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여 1993년에 44.5%에서 1999년에는 33.3%로 그 비중도 낮아졌다.

한편, 동원탄좌는 1974년부터 국내 최대 민영탄광으로의 지위를 누려왔으나 1995년도에 삼척군의 경동탄광에 자리를 내주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1995년도에 경동탄광은 1,000천톤을 생산하여 동원탄좌의 903천톤 생산에 비하여 97천톤을 더 생산한 것이다. 이 때부터 경동탄광이 최대 민영탄광으로 부상하였으나 실상, 석탄산업의 하락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6. 대한석탄공사 나전광업소_함백광업소 폐광단행

정선군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의 함백광업소(정선군 신동읍 조동리)와 나전광업소(정선군 북면 북평2리)는 1990년대 초반에 각각 폐쇄된다. 나전광업소는 1990년 9월에, 함백광업소는 1993년 9월에 폐광을 단행한다.

1990년대들어 대한석탄공사의 석탄 생산량도 대폭적으로 감소한다. 1990년 생산량은 3,988천톤인데 1995년에는

1,973천톤으로 무려 2,015천톤이 감소하는데, 이는 절반이 감소하는 것이다. 5년 간에 거쳐 매년 13.1%씩 감소하는 것이다. 1990년에 함백광업소는 417천톤을, 나전광업소는 56천톤을 생산하여 석공 전체의 생산량 중에서 11.9%에 지나지 않았다.

1990년대 폐광시기의 함백광업소와 나전광업소의 석탄 생산량(천톤)

	석공생산량	함백광업소	나전광업소	합계	점유율
1990	3,988	417	56	473	11.9%
1991	3,846	335		335	8.7%
1992	3,624	291		291	8.0%
1993	3,069	92		92	3.0%
1994	2,616			-	0.0%
1995	1,973	1993년 3월 폐광 단행	1990년 9월 폐광 단행	-	0.0%
1996	1,777			-	0.0%
1997	1,599			-	0.0%
1998	1,574			-	0.0%
1999	1,474			-	0.0%
연평균 증가율(90-95)	-13.1%			-	-
연평균 증가율(95-99)	-5.7%			-	-
연평균 증가율(90-99)	-10.5%			-	-

나전광업소는 바로 이전 년도인 1989년에 145천톤을 생산한 바 있으나, 1982년도에 233천톤으로 역사상 최고 생산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를 기록하여 왔던 중이었으며, 이에 1990년 9월에 폐광을 단행한 것이다. 함백광업소도 1990년에 417천톤, 1991년에 335천톤, 1992년에 291천톤, 그리고 1993년에 92천톤을 끝으로 폐광을 단행한다.

7. 독립계 중소규모 및 영세 탄광 폐광 마무리

1990년대 들어 정선군 내 독립계 중소규모 탄광과 대형 탄광의 사외도급(하청기업) 등이 이어서 폐광을 단행한다. 이미 폐광 최초년도인 1989년에 독립계 중견 규모 탄광인 자미원광업소(정선군 남면 문곡리)와 묵산광업소(정선군 남면 무릉리)가 폐광된 이후 1990년에 들어서는 경일탄광(정선군 고한읍 고한20리))이, 1991년에는 정선군 고한읍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 세원탄광, 1993년에는 정동탄광(고한읍 고한2리)이 이어서 문을 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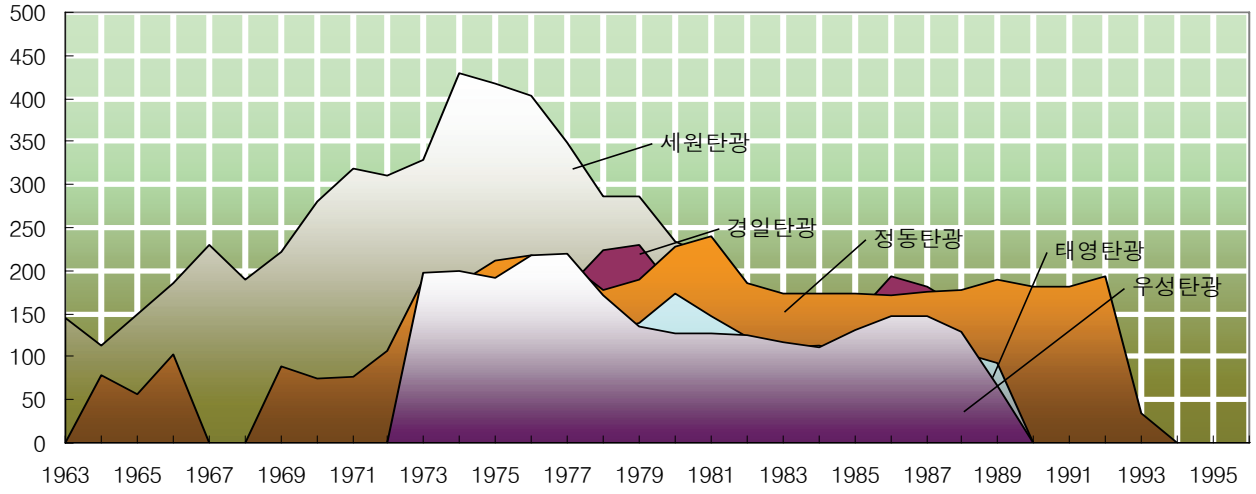
먼저, 경일탄광은 1956년 5월 16일에 정명선씨 명의로 공업권 설정 등록한 이후 1971년 7월 6일부터 당목광업소 신경록과 조광권 체결 개발로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였다. 이후 1976년에 11월 13일부터 신경록 명의로 광업권 이전 등록과 동시에 경일탄광을 명의변경한 바 있으며, 광구면적은 266ha이고 매장량은 3,513천톤, 가채량은 1,500천톤에 달한 탄광이었다. 평균 탄질은 5,860Kcal/Kg로 비교적 양질의 탄을 생산한 업체이다. 갱구수는 4개이며 보유 갱도 길이는 약 15,090m에 달한다.

정선군 고한읍 세원탄광 공가 사택

경일탄광의 전성기는 역시 1970년대 후반이다. 동탄광은 1976년도에 33천톤 생산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77년에는 무려 179천톤으로 석탄 생산량이 급증하였으며, 이후 1979년도에 229천톤을 생산하여 역대 최고 생산량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폐광 당시 1990년에는 42천톤에 불과하였다.

경일탄광은 단일 광구의 중소업체이나 매장량이 풍부하여 양질의 탄을 계속적으로 채탄할 수 있다. 고한역까지 약 1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운탄거리가 가까우며 고한 시내와 인접하여 종업원들의 출퇴근 및 생활환경들이 입지조건이

1990-1993년까지 정선군내 폐광을 단행한 독립계 중견탄광들의 역사적 석탄 생산량 추이(천톤)



1990-1993년도 정선군 소재 탄광의 폐광업체 및 폐광대책비 지급내역

	탄광명	대표자	소재지	폐광대책비(백만원)			
				근로자대책비	광업자자대책비	산림복구비 등	합계
1990년 (8개업체)	(삼탄) 인동	김 성 태	정선군 고한읍 고한4리	1,627	1,169	486	3,282
	(세원) 동덕	권 숙 재	정선군 고한읍 106	237	218	55	510
	경 일	김 일 하	정선군 고한읍 고한20리	2,052	1,212	457	3,721
	(경일) 현대제일	신 창 림	정선군 고한읍 고한9리	350	263	195	808
	(동원) 태흥	김 상 봉	정선군 사북읍 사북6리	688	723	265	1,676
	(동원) 동북	장 필 경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8	21	29	59
	(정선) 용배일	배 명 준	정선군 정선읍 용탄3리	168	122	72	362
	(동성) 진덕	김 익 환	정선군 북면 구절리	246	63	46	355
1991년 (4개업체)	세 원	이 상 현	정선군 고한읍 고한3리	2,323	1,057	690	4,070
	(세원) 거진	권 위 특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6	770	530	216	1,513
	(동원) 유성	김 봉 빈	정선군 고한읍 고한21리	170	134	4	308
	(자미원) 두정	김 현 정	정선군 남면 문곡3리	2,034	280	313	2,627
1992년 (7개업체)	(삼탄) 삼덕	장 세 현	정선군 고한읍 고한1리 19	2,561	853	136	3,550
	(동원) 삼성	김 태 오	정선군 고한읍 고한4리 산1-17	1,834	437	18	2,289
	나 전	김 태 오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20	1,768	336	2,724
	옥 갑	장 필 경	정선군 북면 유천리 산 270	116	104	-	220
	(동성) 신일	손 분 례	정선군 북면 구절리	97	85	-	182
	(정선) 신태일	신 태 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 310	53	418	16	487
	동성탄좌	박 달 수	정선군 북면 구절리 298	1,100	582	245	2,038
1993년 (2개업체)	정 동	남 상 하	정선군 고한읍 고한2리	3,169	1,404	-	4,573
	(석공) 함백	서 생 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8,363	2,531	-	10,894

타 인근 광업소보다 뛰어났었다.

경일탄광은 Slant Chute 채탄에서 Sub Level 채탄을 전환한 바 있으며 특히 신설한 경석 처리장이 타 광업소보다 시설면이나 위치선정 및 영구적인 공해방지 등이 월등히 잘 되어 있었다.

세원탄광(구 동고탄광)은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광산으

로 태백선 고한역에서 4km 지점에 위치한다. 확인 매장량은 1,000천톤이며, 이 중에서 가채광량은 약 700천톤 정도로 추산된다. 세원탄광은 정선군 내에서 생산규모 면에서는 동원탄좌, 삼척탄좌에 이어 제3위의 굴지의 탄광이었다.

1963년도에 146천톤을 생산한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1967년도에 230천톤을 생산하였고, 1971년도에 318천톤을 그리고 1974년도에 430천톤으로 세원탄광 개광 이래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한 것이다. 동시에 세원탄광은 산하에 전국 각지에 연탄공장을 운영하였으며 경상북도 안동시에 안동연탄(주), 경상북도 영주시에 영주연탄(주), 경기도 동두천시에 정원연탄(주), 그리고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 읍에서 세원연탄(주) 등 4개 연탄업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세원탄광의 하부는 삼척탄좌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광구 경계 심도까지 이미 채굴이 완료되어 사실상 하부개발은 끝났으나 상부잔탄과 개발하지 않은 새로운 탄층을 발견하여 채굴하였다.

세원탄광의 광구 내에 부존하는 지층은 조선계 대석회암통, 청안계 홍점통·사동통 및 고방산통에 대비되는 함백산층과 고한층 등의 순으로 동서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지표에서 지층이 역전되어 북으로 약 70~80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세원탄광의 탄층은 사동통 내에 2~3배가 부존되어 있으나 주 가행탄층은 중층탄 1장으로 동부와 서부구역에서 집중 개발되었다. 부광대에서는 탄폭이 7~8m 정도나 되지만 평균 약 3m이다.

제 5 절 새천년의 비상_고원관광휴양도시로의 도전과 융비

1. 정선군 석탄산업의 발자취

가.1960년대_정선군 국내 석탄 메카

정선군에 국내 최대 민영탄광이었던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2001년도 10월에,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2004년도 10월에 폐광을 하게 됨에 따라 이제 정선군 내에는 단 하나의 석탄광도 남아있지 않다.

정선군이 1960년대 초반부터 국내 민영탄광의 메카로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는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석탄개발임시조치법」(법률 제936호)에 따라 이루어진 대단위 석탄 탄좌의 탄생에서 기인한다.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의 대단위 탄좌 중에서 대부분은 정선군에 입성을 하였다는 점이며, 이를 계기로 정선군은 전국 최대의 민영 산탄지로 자리를 잡았다.

1960년대 설립된 9개의 대단위 탄좌 중에서도 왕중의 왕인 동원탄좌와 삼척탄좌가 각각 현재의 사북읍과 고한읍에 입성하였고, 회동탄좌는 정선읍 회동리에, 나전탄좌(북면 북평2리), 우전탄좌는 북면 구절리에 입성하는 등 무려 5개 탄좌가 정선군에 골고루 흩어져 채탄을 개시하였다.

개발 초기부터 정선군에 위치한 대단위 민영탄좌들의 석탄 생산량은 가히 절대적인 것으로 초기부터 정선군이 대단위 민영탄좌의 MECCA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나. 1970년대_최고 생산 증가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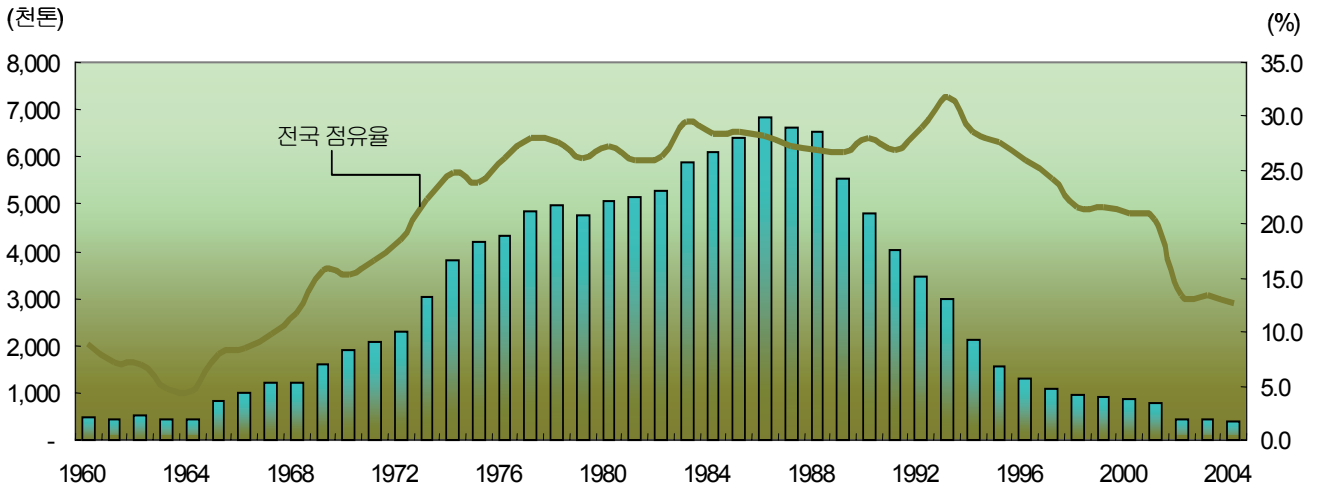
강원도에서도 가장 많은 탄광수를 보유한 정선군의 석탄 생산량은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강원도서도 타의 추종을 능가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즉, 70년대에 정선군은 석탄 르네상스를 맞게 되는 시기이다.

1970년대에 정선군의 석탄생산은 전국 대비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1970년에 정선군의 석탄생산은 1,892천톤인데, 이는 전국대비 15.3%이며 강원도 전체 생산량 9,007천톤 대비

정선군의 석탄 생산량과 전국 및 강원도에서의 비중

	정선군 석탄생산량	정선군과 전국 비교		정선군과 강원도 비교	
		전국 생산량	정선군 점유율(%)	강원도 생산량	정선군 점유율(%)
1960	472	5,352	8.8%	4,534	10.4%
1965	819	10,248	8.0%	7,900	10.4%
1970	1,892	12,394	15.3%	9,007	21.0%
1975	4,180	17,593	23.8%	12,607	33.2%
1980	5,058	18,624	27.2%	13,304	38.0%
1985	6,419	22,542	28.5%	16,771	38.3%
1990	4,808	17,217	27.9%	12,258	39.2%
1995	1,576	5,718	27.6%	4,909	32.1%
2000	875	4,150	21.1%	3,594	24.3%
2001	780	3,817	20.4%	3,342	23.3%
2002	444	3,3,8	13.4%	2,850	15.6%
2003	445	3,2,99	13.5%	2,829	15.7%
2004	404	3191	12.7%	2,788	14.5%

정선군의 무연탄 생산량과 전국 점유율(%)



21%를 차지하는 양이었다.

이후 정선군의 석탄생산량은 급격한 증가를 이룩하여 왔으며 1973년도 1차 석유년도에는 3,018천톤을 생산하여 전국대비 22.2%를 점하였고, 강원도 생산 대비에서는 30.4%를 1/3에 달하였다. 이후에도 정선군의 석탄생산은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1979년에는 4,990천톤을 생산하여 전국대비 28%, 강원도 대비 37%라는 경이적인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1970년대를 관통하면서 한국의 석탄 생산량은 연평균 증가율(1970년-1979년)에서 4.4%로 견실한 증가를 시현하였는데 강원도는 동기간 증가율이 4.2%로 전국적인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이룩하였다. 그러니 정선군의 석탄생산 증가율이 매년 10.8%를 시현하여 전국 및 강원도 증가율에 비하여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1970년대에 정선군의 전국 제일의 산탄지로 우뚝 설수 있었던 계기는 역시 정선군내 대단위 탄좌설립 이후부터 시설확충에 나선 대형 민영탄광들이 절대적으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북읍의 동원탄좌, 고한읍의 삼척탄좌 및 북면 구절리의 우전탄좌 등은 1962년 탄좌설립 이후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확충하였기 때문에 70년대에 석탄 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동원탄좌, 삼척탄좌 및 우전탄좌 등 3개 민영탄좌가 생산량이 전국 민영탄광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전반기에는 10% 후반대에서 1970년대 후반기에는 20% 이상을 차지하여 전국 민영탄광 생산량 중에서 1/5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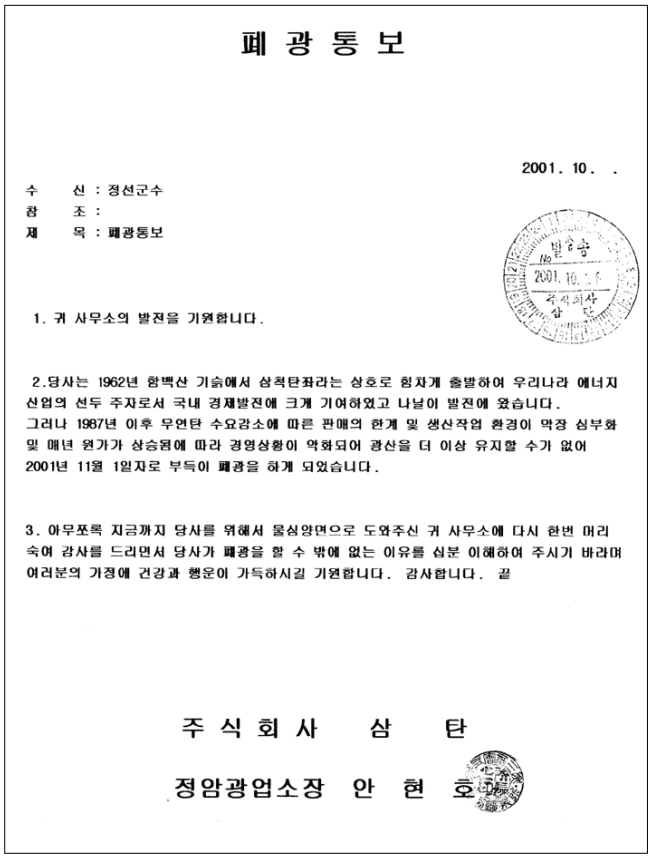
다. 1980년대_역대 최고생산과 대안 찾기

1980년대에 정선군이 강원도의 전체 석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을 점하여 왔으며, 특히 1983년도에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비중을 점하여 마침내 정선군은 강원도의 석탄 전체 생산 시·군 중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군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 명실 공히 전국 제일의 석탄생산지로 자리 매김한다.

이후에 1980년대 후반기 내내 정선군은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강원도 산탄시·군에서도 수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태백시가 수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정선군에 위치한 동원탄좌 삼척탄좌 및 우전탄좌 등은 1980년대 초·중반에 대대적인 시설 현대화와 확충을 통하여 민영탄광의 석탄생산량을 주도하여 나갔다.

이 중에서 국내 최대 민영탄광의 쌍두마차인 동원탄좌 시북광업소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1980년대 전반기에



폐 광 통 보

2001. 10. .

수 신 : 정선군수
참 조 :
제 목 : 폐광통보

1. 귀 사무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당사는 1962년 함백산 기슭에서 삼척탄좌라는 상호로 힘차게 출발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나날이 발전에 옸습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무연탄 수요감소에 따른 판매의 한계 및 생산작업 환경이 막장 심부화 및 매년 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광산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 2001년 11월 1일자로 부득이 폐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아무쪼록 지금까지 당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귀 사무소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당사가 폐광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 식 회 사 삼 탄

정암광업소장 안 현 호

삼척탄좌(삼탄) 정암광업소가 2001년 10월에 정선군에 폐광을 통보하였다

석탄생산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 졌다.

아이러니하게도 1980년대 후반기인 1988년은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해인 동시에 우리나라 역대 석탄생산에서 최고를 기록한 24,295천톤을 달성한 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후 우리나라 석탄생산은 수요부문에서 급격한 구조변화(석탄보다 고급에너지인 석유, LPG, 도시가스 전력 등의 높은 증가)로 인하여 석탄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이는 석탄생산 감소로 이어졌다. 이같이 석탄의 급격한 감소는 1980년대를 넘기지 못하고 1989년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정선군 내 상당수가 모여 있는 영세 및 하청 탄광은 물론이거니와 독립계 중견 탄광까지도 폐광을 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양대 탄좌는 1980-1985년 기간동안 석탄생산 증가율이 4%에 육박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증산 경쟁을 벌여 나갔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석탄 생산은 1980년에 1,588천톤에서 1985년에는 1,909천톤으로 321천톤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20%에 달하였고,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도 1980년에 1256천톤에서 1985년에는 1501천톤으로 245천톤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20%에 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들어 양대 탄좌는 갈림길에 놓이는 바, 동원탄좌는 미약하나마 생산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에 삼척탄좌는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즉, 동원탄좌는 1980년대 후반기에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이룩하더니, 마침내 1987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2,000천톤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다. 이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가 1974년도 연간 1,000천톤을 생산한 이래 13년 만에 2배로 성장한 것이다.

삼척탄좌도 1986년도에 1,569천톤을 생산하여 역대 최대치를 생산하였으나, 이후 그 이상을 생산하지는 못하고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특히, 삼척탄좌는 1980년대 후반기에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하는데 1989년도 생산량이 1,247천톤으로 역대 최대 생산량을 보인 3년전의 1986년도 1,569천톤에 비하여 322천톤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21%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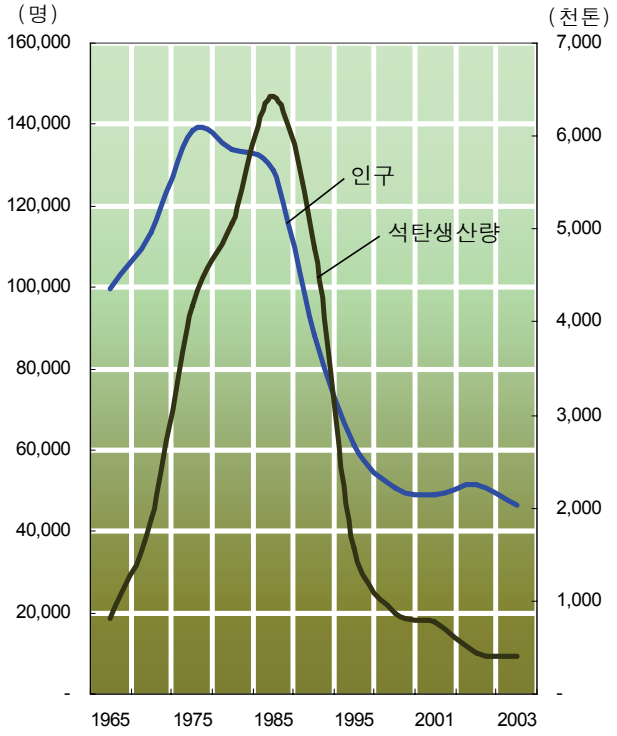
한편, 정선군에서 1964년도 유수의 탄좌들과 설립을 함께한 우전탄좌는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생산을 지속하여 왔으나 상기 양대 탄전에 비하면 생산량은 매우 적었다. 우전탄좌는 70~80년대에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 석탄생산은 1980년대 후반기들어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생산량이 감소세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양대 국제 스포츠 제전은 우리나라 석탄산업은 사양화를 결정짓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라. 1990년대_특별법제정과 정선카지노 유치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쇠퇴의 길을 보다 가속화한다. 이에 따라 전국 석탄 생산지의 명성을 유지

정선군의 인구수와 석탄생산량 추이



하면서 전국 민영 산탄지의 메카인 정선군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폐광에 따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1990년 석탄 생산량은 17,217천톤에서 1995년에는 5,718천톤으로 무려 11,499천톤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67%에 달하였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메년 20%씩 감소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전국 석탄의 대다수를 공급하는 강원도의 석탄생산량은 12,258천톤에서 1995년에는 4,909천톤으로 무려 7449천톤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5년동안에 무려 60%가 감소한 것이다, 동기간 감소한 우리나라 전체 감소량 중에서 절반이 강원도가 담당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전국의 석탄 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에서도 강원도의 석탄생산 비중은 증가하여 왔다는 것이다. 강원도의 석탄비중은 1990년에 71.2%에서 1995년에는 85.9%로 증가하여 왔는데, 이는 강원도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폐광이 보다 가속화되어 왔다는 것보다는 강원도 내에 대형 탄광 등이 살아남아 발생한 것이다. 중소규모 탄광의 폐광은 강원도나 여타 지역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한편, 1990년대 전반기 정선군의 석탄 감소량도 상당하였는데, 1990년도 생산량이 4,808천톤에서 1995년에는 1,576천톤으로 5년 동안에 3,232천톤이 감소하여 감축율은 67%에 달하여 가히 공황에 가까운 것이다. 이는 5년 동안 매년 20%가 감소하는 것이다.

특히, 1990-1995년 동안 정선군의 석탄 생산 감소량은 전국 석탄생산 감축량의 28.1%(3,232천톤/ 11,499천톤 =28.1%)에 해당하는 것이며 강원도 전체의 생산 감축량의 43.9%(3,232천톤/ 7,349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정선군의 석

정선군의 인구수와 석탄생산량 변화

	인구(명)	석탄생산량(천톤)	인당생산량(톤)
1965	99,465	819	8.23
1970	113,493	1,892	16.67
1975	138,541	4,180	30.17
1980	133,960	5,058	37.76
1985	128,781	6,419	49.84
1990	88,382	4,808	54.40
1995	61,121	1,576	25.79
2000	50,631	875	17.27
2001	49,111	780	15.88
2002	51,299	444	8.65
2003	46,362	404	8.71
65-70	2.7%	18.2%	15.2%
70-80	1.7%	10.3%	8.5%
80-90	-4.1%	-0.5%	3.7%
90-2003	-4.8%	-17.3%	-13.1%
65-2003	-2.0%	-1.8%	0.1%

탄 생산량 감축은 다른 시·군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1990년대 전반기에 정선군의 석탄생산 비중은 전국적인 대비에서는 27-30%를 유지하였으나 강원도 내서는 감소하여왔으며, 이에 1990년에 강원도 석탄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2%에서 1995년에는 32.1%로 하락을 하였다.

1990년 후반기들어 우리나라 석탄 생산량은 1995년에 5,718천톤에서 1999년에는 4,197천톤으로 1,521천톤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26.6%에 달한다. 물론 이는 1990년대 전반기의 67% 감소율에 비하면 양호하나 여전히 석탄 산업의 경쟁력 상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전체의 생산량 감소도 우리나라 전체 생산 감축

강원랜드의 부지조성공사

강원랜드의 골조공사

고한읍의 아파트와 석탄산

량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강원도의 1999년도 석탄 생산량은 3,615천톤인데, 이는 1995년도의 4,909천톤에 비하여 1,294천톤이 감소하는 것이며 감소율은 26.4%에 달하는 것으로 동기간 전국의 석탄 생산 감축량의 85%(1,294 천톤/1,511 천톤)를 점하여 주 감축지역은 강원도임 알수 있다. 이는 이미 다른 산탄지에서는 이전에 폐광이 모두 이루어 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1990년대 후반기의 석탄생산 감축은 주로 강원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강원도의 전국 석탄 생산량 비중에서 1995년에 85.9%에서 1999년에는 86.1%로 증가하여 왔다는 것으로 알수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기들어 정선군 석탄생산은 전국 및 강원도 기타 지역보다 감축 속도가 가속화되어 왔다. 즉, 정선군의 1999년도 석탄 생산량은 906천톤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1995년도의 1,576천톤에 비하면 무려 670천톤가 감소하는 것으로 단지 5년 동안에 42.5%가 감소하여 전국의 산탄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다. 동시에 이는 동기간에 전국의 석탄 생산 감축량의 44%(670천톤/ 1,511천톤), 강원도 전체 생산 감축량의 51.7%((670천톤/ 1,294천톤)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선군이 전국 최대의 민영 탄광지로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 석탄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 특히, 지난 30여년 간 중화학공업 전략을 추진하면서 석탄은 산업의 쌀이었으며, 이에 정선군은 전국 석탄 산업의 메카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이에 정선군의 인구는 석탄산업과 함께 하여 왔으며 무연탄의 수요가 증가할 때 인구수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으나 1980년대 후반들어 석탄산업이 사양화하면서 인구도 함께 감소하여 왔다.

정선군 인구는 1965년에 99,465명이 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975년에는 138,54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정선군의 인구가 최고를 보인 해는 1978년도 139,862명에 달하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정선군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온 것이다. 이후 정선군의 인구는 중가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왔고 1980년에는 128,781명으로 줄었다.

이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폐광이 늘고 인구는 급격한 감소를 한다. 1990년도 인구는 88,382명으로 10만명대로 하락한 것인데, 1980-1990년기간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4.1%에 이른 것이다. 이는 석탄 생산량의 급감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수 있는데, 석탄생산은 1980년에 5,058천톤에서 1990년에는 4,808천톤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1990년대 후반기에는 인구는 보다 급격한 감소세가 지속되는데 2000년에는 50,631명으로 2003년에는 46,362명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인구가 최고로 도달한 1978년의 139,862 명의 단지 33%에 불과한 것이다. 이같은 이유는 동기간에 석탄 생산량의 높은 감소에서 기인하며 석탄생산은 1990년에 4,808천톤에서 2003년에는 404천톤으로 단지 8.4%에 불과한 것이다.

2. 정선군_새천년 고원관광지로의 웅비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침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간의 국고지원에 의한 국부적인 기반시설 등을 가지고는 침체된 지역경제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폐광지역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정부는 석탄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제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건설을 허용하였다.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1998년 6월에 정부와 강원도가 510억원을 출자하여 카지노 사업의 운영주체인 (주)강원랜드를 설립하였다.

정선군이 석탄산업을 접고 고원관광지로의 웅비를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다. 특히 강원랜드 카지노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강원랜드의 일부 수입금은 폐광지역개발기금, 관광지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한다. 동시에 정선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연간 수백억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국의 석탄 메카였던 정선군은 새천년 들어 고원관광지로의 웅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